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

심 의 사 항

- 일 시 : 2019. 4. 23.(화) 14:00~17: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참석자 : 윤인석(위원장), 김문수,
김연희, 김이순, 부길만,
신안준, 송기한, 오용섭,
이광표, 한태식(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주변 현상변경(진입로 포장 공사)	
2	「매천 황현 전적류 및 유물」 문화재 등록	
3	「윤희순 의병가사집」 문화재 등록	
4	「서울 한양대학교 구 본관」 문화재 등록	

【검토사항】

5	「자해자전(慈海自傳)」 문화재 등록 검토	
6	「한국독립운동사(상)」 문화재 등록 검토	
7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교사」 문화재 등록 검토	

【보고사항】

8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주변 현상변경(병원 신관 연결다리 설치)	
9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현상변경(냉·난방기 교체 공사)	
10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사적 제545호 「구 군산세관 본관」 주변 현상변경(보도 그린터널 설치)	

1.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주변 현상변경(진입로 포장 공사)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진입로 포장 공사'계획과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계획하는 '진입로 포장 공사' 사업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 소재지 : 서울 중구 청파로 447-1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 중구 청파로 447-1 일원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허용지군 : 개별심의), 이격거리 3m
 - 신청내용 : 청파로에서 진입하는 노후 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판석 포장으로 교체
 - 규모 : 폭 5m, 연장 100m (500㎡)
 - 포장재료 : 화강석(마천석, 고흥석, 포천석) 소형판석(개당 규격: 15×15×10cm)
 - 시공방법 : 습식공법, V컷팅, 도두락 마감

라. 현지조사 의견 (2019. 4. 16.) : 문화재위원 000

- 현 콘크리트 포장을 석재로 바꾸는 것은 문화재 주변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됨
- 단, 석재가 설치되는 노면의 경사가 심하여 장기적으로 밀림 현상과 몰탈 또는 에폭시로 충분한 접착강도를 확보하더라도 기후요건(온도차, 결빙과 해빙에 따른 팽창과 수축, 우수 등)에 의해 박락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발주 시 입찰자에게 충분히 공지되고, 실시 도면에 반영되어 시공에 하자가 없도록 준비가 필요 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급경사 지형과 기후, 환경 특성을 고려한 재료 및 공법 선정 필요
 -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청파로 보·차도 정비계획 제출 필요
- 출석 10명 / 보류 10명

2. 「매천 황현 전적류 및 유물」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매천 황현 전적류 및 유물」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8.2.26.)를 거쳐 등록 예고한 '매천 황현 전적류 및 유물'(매천야록, 「오하기문」, 「대월헌절필첩」, 「매천 황현 시문, 관련 유묵·자료첩, 교지·시권·백패통」)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판종	형식	연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매천야록 (梅泉野錄)	7책	24.5×23.0cm	"	선장	1864~1910년	OOO	OOO	
오하기문 (梧下記聞)	7책	24.5×23.0cm	"	가철장	1895~1907년	"	"	
대월헌절필첩 (待月軒絶筆帖)	1책	29.7×22.5cm	필사	첩장	1910년	"	"	
매천 황현 시문, 관련 유묵·자료첩, 교지·시권·백패통	시문	7책	24.5×23.0cm	필사	선장	"	"	
	유묵·자료첩	11책	29.3×27.5cm	필사, 인쇄	첩장	"	"	
	교지·시권·백패통	(교지) 1점 (시권) 2점 (백패통) 1점	(교지) 76.2×68.5cm (시권) 76×166cm (백패통) 길이95cm, 둘레268cm	(교지) 날장 (시권) 수기 (시권) 수기 (백패통) 대나무	1880~1910년대	"	OOO	
소계	37							

(2) 추진경과

- 항일의병 관련 문화재 등록 확대 자문회의 개최('18. 7. 20.)
 - 동산(動産) 분야 조사대상 15건 선정(1차 조사대상 8건)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8. 12. 19~20. / '19. 2. 1.)

(3) 등록예고 : 2019. 3. 11. ~ 4. 9.(30일간) * 의견없음

(4)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 등록명칭 부여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

- 「대월헌절필첩(待月軒絶筆帖)」은 「황현 절명시첩(絶命詩帖)」으로 등록
 - (OOO) 표제의 '대월헌(帶月軒)'에서 대(帶)는 장정과정에서 '대(待)'를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여 본명칭의 명확성이 떨어지며, '대월헌절필첩(待月軒絶筆帖)' 명칭 자체로는 유물의 성격 파악이 어려움. 유물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줄수 있는 「황현 절명시첩(絶命詩帖)」으로 등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OOO, OOO, OOO) 유물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황현 절명시첩(絶命詩帖)」으로 등록
 - (매천 황현 후손 / 문화재 소유자) 「황현 절명시첩(絶命詩帖)」으로 명칭 등록 동의
- 가지번호를 부여하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천야록」, 「오하기문」, 「황현 절명시첩」, 「매천 황현 시문, 관련 유묵·자료첩, 교지·시권·백패통」 4건으로 등록

(5) 기타사항

- 교지·시권·백패통 4점과 관련된 등록조사보고서는 기존 문화재위원회('19.2.26) 시 상정하였던 생활유품 57점에 대한 보고서(붙임2) 참고
 - * 생활유품 57점 중 교지(1점)·시권(2점)·백패통(1점) 4점이 등록 심의 대상임.

등록검토 대상('19.2.26)	등록심의 대상('19.4.23)
문방구류, 생활유품, 교지·시권·백패통 등 57점	교지(1점)·시권(2점)·백패통(1점) 4점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2> 참조

- OOO 전라남도 문화재위원(2018.12.19.) <전적류 및 교지·시권·백패통>
 - 매천 황현의 저술과 관련인사 유묵은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 전후 한국의 정치/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당시 선비들이 지향했던 관계 입문의 첫걸음인 과거시험과 관련된 시권과 교지 등도 잘 보존되어 있음.
 - 따라서, 이 유품들은 순절한 우국지사의 일상을 길이 보존하고 이 시기 선비들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 **OOO 경기대학교 교수(2018.12.19.) <전적류>**

- 경술국치에 항거하여 순절한 황현의 절명시, 한국근대사 연구에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사료로 평가받는 매천야록과 오하기문, 우국충절의 의식과 당시의 역사 및 황현의 사상과 행적 및 경제학 연구에 가치가 높은 황현의 시문, 황현의 저술, 지인 간의 서간, 중요 사건 등에 대한 기록 등이 포함된 자료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음.

○ **OOO 문화재 전문위원(2018.12.19.) <전적류>**

- 1910년 경술국치에 항거하여 순절한 우국지사로서 역사가이자 시인이었던 황현의 역사관과 사상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 또한 문화재의 등록은 가지번호 등을 사용하여 일괄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OOO 온양민속박물관 상임고문(2018.12.20./2019.2.1.) <교지·시권·백패통>**

- 황현(黃玹, 1855-1910)은 조선후기의 학자로서 매천야록(梅泉野錄), 오하기문(梧下記聞) 등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구한말 삶을 마감하는 절명시(絶命詩) 4수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서 조선의 마지막 선비로서 의리정신을 다했음
- 매천 황현 현존의 유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당대 선비들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고 역사적으로 상징적 가치가 있는 유물인 만큼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OOO 문화재위원(2018.12.20./2019.2.1.) <교지·시권·백패통>**

- 본 조사 유물들은 매천의 유학자이자 우국지사로서의 삶이 녹아 있는 유물임. 순국 이후 후손들이 보존해왔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크며, 제작연대가 19세기 후반에서 늦어도 1910년이라는 하한선이 있는 유물로, 조성연대가 비교적 분명한 시대양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속학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으므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 **OOO 연세대학교 연구교수(2018.12.20./2019.2.1.) <교지·시권·백패통>**

- 황현이 남긴 『梅泉野錄』과 『梧下記聞』은 한국근대사 연구의 필독서로 인정받고 있으며, 왕성한 시작활동을 전개하여 2천여수의 한시를 남겼고, 대한제국기에 전남 구례에 호양학교를 세워 후진양성 활동을 펼쳤으며, 경술국치 직후 일제의 한국 강제병탄에 항거하여 자진하여 순절하였음.
- 한마디로 황현은 국망기 애국적 지식인의 면모를 잘 드러낸 인물임. 이러한 점에서 황현이 남긴 科擧 유품 등은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고 있다고 판단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매천 황현 매천야록', '매천 황현 오하기문', '매천 황현 절명시첩'으로 명칭 부여하며, 개별 등록번호 부여
- '매천 황현 시·문(7책)', '매천 황현 유묵·자료첩(11책)', '매천 황현 교지·시권(2권)·백패통'으로 명칭 부여하며, 하나의 등록번호 하에 가지번호 부여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매천 황현 전적류」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매천 황현 전적류(매천야록, 오하기문, 대월헌절필첩, 매천 황현 시문, 관련 유목·자료집)

2. 소재지 : 전남 000

3. 소유자 : 000

4. 조사자 의견

<000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2018.12.19.)>

가. 대월헌절필첩(待月軒絶筆帖)

1) 명칭 및 조성연대

- 명 칭 : 황현저술-『待月軒絶筆帖』 (*원래 '帶月軒'이라 되어 있으나 바로잡음)
- 조성연대 : 1910년 가을(庚戌秋日裝)

2) 현상

- 『帶月軒絶筆帖』(표제의 帶月軒은 待月軒의 誤字임)은 양면 첩으로 장정되어 있는데, 보존상태가 고르지 못한 편이므로 지정될 경우 시급히 보존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내용 및 특징

- 황현(黃玿, 1855-1910)의 자는 운경雲卿, 잘 알려진 호는 양운養雲 매천梅泉임. 그는 조선말부터 대한제국기의 대표적 역사가이자 시인으로 2,000여 수의 시를 짓고, 한국근대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저술로 평가받는 『매천야록梅泉野錄』과 『오하기문梧下記聞』 등을 저술한 지식인임. 특히 경술국치 직후 순절하면서 남긴 「절명시」 4수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회자됨. 바로 그 절명시 4수가 실려 있는 첩임. 이 절명시는 <유자제서遺子弟書> 등과 같이 이 첩에 수록되어 있음. 글의 말미에 “대한 융희 4년 음력 8월 6일 새벽 등불아래 매천이 마지막으로 쓰다[大韓隆熙四年 舊曆秋八月初六日丁丑 曉燈梅泉絶筆]”라고 되어 있음. 이 날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910년 9월 9일 새벽임.
- 당시 황현은 사랑채인 대월헌待月軒에서 순절하였음. 대월헌은 황현이 1902년 말 구례군 간전면 만수동萬壽洞에서 같은 군 광의면 월곡月谷으로 이사 온 이후의 서재 이름임. 그러니까 만수동 시절의 서재인 구안실苟安室을 이은 것이라 할 수 있음. <구안실기>는 황현 자신이 지은 것 외에도 영재寧齋 이건창李建昌과 운양雲養 김윤식金允植이 지어준 것도 전함. 대월헌은 소철蘇轍의 <대월헌기>에서 따온 것으로 볼 수도 있음. 그가 소식蘇軾 소철 형제의 시를 선호했다는 점에서 그러함. 하지만 그가 1902-1910년 사이에 살았던 월곡 마을의 이름과 그곳에서 바라보는 달을 빗대어 지은 서재명이라 할 수 있음. 현재 필사본으로 알려진

『오하기문』(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의 표지에는 ‘庚戌九月三日待月軒粧池’라 되어 있으며, 구례 월곡에 복원된 사랑채의 현판 역시‘待月軒’이라 쓰여 있음. 그리고 이 첩과 같이 검토한 황현관련유목첩 제7-10책의 표지도 ‘待月軒’으로 표기되어 있음. 따라서 절필첩의 표제인 ‘대월헌帶月軒’은 1910년 가을 황현의 저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장정을 하면서 오기하여 붙인 것으로 추정됨. 한편, 이 첩을 보존하기 위해 융희기원19(1925)년 백로일(9월)에 작성한 동생 황원의 집요한 포부가 담긴 소회의 글도 들어 있음.

- 이 절필첩은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황현이 1888년 생원시에 급제(1등 제2인)한 후 부친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서간, 경기도 포천 가채리의 최익현을 모신 영당影堂의 상량문 등이 수록됨. 그리고 표지의 뒷면에는 <풍운백년 근세역사자료전> (1983.1.7.~1.31, 전시기관 불분명)에 전시된 사실이 적힌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음. 이후 지금까지 현손에 의해 보관되어 왔음. 다만, 약 110년 전에 장정된 첩의 보존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편이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면 바로 보존처리 및 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매천야록(梅泉野錄)

1) 조성연대

- 1895년 전후부터 1910년 사이의 저술임. 다만 장정은 창강 김택영의 刪削을 거쳐 동생 황원(1870-1944)의 나이 60세인 1929년 경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제7권의 앞표지 안면에 쓰인 내용으로 추정).

2) 현상

- 『매천야록』은 한국근대사 연구에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사료로 평가받는 자료임. 즉, 『매천야록』을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처음 조사했던 신석호(해방전 조선사편수회, 해방후 국사편찬위원회 재직, 고려대 사학과 교수 역임)는 이 자료의 부분(전북 남원거주 박정식 소장 부분)을 빌려 필사하여 당시 조선사편수회에 비장해두었음. 6.25전쟁이 끝난 1954년 여름 그는 매천의 둘째 아들 위현渭顯을 만나 친필본과 김택영교정본을 차람하여 조선사편수회본과 대조하여 한국사료총서 제1집으로 『매천야록』 간행을 주도하여 1955년에 활자본으로 간행됨. 이후 현재까지 『매천야록』 친필본과 김택영교정본은 현손이 소장하고 있으며,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임.

3) 내용 및 특징

- 황현은 『매천야록』과 『오하기문』 등을 저술한 역사가라 할 수 있음. 그중 『매천야록』에 대해 신석호는 ‘우리나라 최근세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음. 이 책은 1864년 대원군 집정부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 약 47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음. 이와 비슷한 당대사 저술은 정교鄭喬의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박은식朴殷植의 『한국통사韓國痛史』가 있음. 황현의 『매천야록』은 흔히 野史體라 하여 자유로운 방식으로 당시의 역사를 자신이 보고들은대로 기록하였음. 당시 그는 조선의 현실을 ‘도깨비나라의 미친 사람들의 세상 鬼國狂人之中’이라 인식하였음. 따라서 고종을 비롯한 왕실과 위정자들의 행태를 매우 비판적으로 기록하므로, ‘매천의 붓 끝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

梅泉筆下無完人'란 말이 회자되었다고 함. 이로써 보건대 『매천야록』은 유교적 감개주의의 관점에서 저술한 당대사 자료임. 이 책은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문을 간행한 이후 수많은 번역본이 간행되었음. 그만큼 이 책이 중요하다는 반증이라 하겠음.

- 하지만 지금까지의 간행본은 친필본을 대조하지 않고 간행되었음.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활자본이 있으나 종전 직후의 혼란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대조를 거쳐 간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는, 『매천야록』의 분실을 우려한 황현 집안의 비공개 방침에 의한 것이었음. 따라서 『매천야록』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면 현손의 동의를 얻어 『매천야록』 친필본과 김택영교정본, 국사편찬위원회 필사본 등을 확인 대조해서 定本 사업을 시급히 추진하여 향후 연구의 심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래의 표를 보면 산삭은 김택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친필본의 경우 목서(교정본은 朱書)로 삭제 표시가 되어 있으나 교정본과의 비교가 필요한 상황임. 장정은 제1책의 속지 내용에 의하면 1927년에 황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제1책 속지 내용으로 보면 『매천야록』은 원본을 포함하여 필사본 등 3본으로 추정되나 이 점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아울러 다음에 언급할 『오하기문』과의 관계 등도 아직 선불리 짐작할 수 없으므로 등록문화재 지정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본사업이 필요한 상황임.

<표> 『매천야록』 책별 시기 및 특징

구분	시기	장정방법	비 고
제1책	갑자(1864) - 정해(1887)	4침	- 속지: 1책 55항중 9항 삭제, 합 342항중 96항은 김택영의 삭제라고 밝힘, 들은 내용을 1책으로 하고 이하의 책은 대한매일신보와 다른 책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정묘(1927)년 2월 7일 장정, 1909(기유)년 9월 이후는 초고 상태, 3본을 잘 보관할 것과 보관 장소 등을 기록.
제2책	무자(1888) - 갑오(1894) 6월	4침	- 속지: 94항 * 1894년 이전 기사본말체
제3책	갑오 7월 - 무술(1898)	5침	- 속지: 61항중 21항 삭제 1895년 이후 편년체
제4책	기해(1899) - 계묘(1903)	4침	- 앞표지: (光武)丁未陽月始(정미년 음력 10월 시작) - 표지 첩서가 잘못되었거나, 제7권 표지를 잘못 장정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됨. - 속지: 49항중 13항 삭제 - 뒷표지 안면: 『매천시고』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적힘(097편 2책은 친히 붉은 동그라미 표시, 2책은 無朱라 기록)
제5책	갑진(1904) - 을사(1905)10월	5침	- 속지: 47항중 17항 삭제
제6책	을사 11월 - 정미(1907) 7월	4침	- 속지: 55항중 22항 삭제

구분	시기	장정방법	비 고
제7책	정미 8월 - 경술(1910)7(8)월	5침	- 속지: 황원의 이 책에 대한 설명 - 황현의 유적이 세상에 전해져야 하나 간행할 수 없는 상황, 김택영이 손수 산정을 한 점은 다행, 황현의 유지에 따라 황원이 장정해서 후일을 기다리나 한자문화의 쇠퇴와 자신은 60세가 다 된데다 후손들이 그 뜻을 잘 이어갈지 걱정함. 훗날 간행된다면 창강의 교정본에 의거하여 한자라도 신중히 할 것, 1909년 음력 9월 이후는 초고라는 점을 밝힘.

다. 오하기문(梧下記聞)

1) 조성연대

- 1895-1907년 사이에 저술된 책으로 당대사의 내용이 담겨 있음.

2) 현상

- 『오하기문』은 한국근대사, 특히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지대한 가치를 지닌 사료로 평가받는 자료임. 다만, 황현의 현손이 소장하고 있는 『오하기문』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와 장서각 소장의 필사본으로 알려진 『오하기문』(수필)을 제외한 자료임. 지금까지 친필본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임.

3) 내용 및 특징

- 이 책은 '오동나무 아래에서 들은 대로 기록하다 梧下記聞'로 알려져 있음. 필사본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필사한 필사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음.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필사본의 표제는 『기문記聞』이라 되어 있고, 장정은 1910년 음력 9월 대월헌에서 한 것(庚戌九月三日待月軒粧池)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력 10월 5일 제본된 것으로 판단됨. 이로써 보면 황현의 사후 그 저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장정을 한 것으로 추정됨. 그런데 이 책의 친필본 소재는 알 수 없음.
- 한편, 장서각 필사본은 1894년 봄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어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된 동학농민혁명의 전말이 기록되어 있음. 이 책에서 황현은 최제우의 동학 창시와 포교, 사상적 특징뿐 아니라 동학이 일반 백성들에게 급속히 확산된 배경 및 과정, 그것이 농민봉기로 비화되는 과정을 기록하였음. 황현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는 이른바 '임술민란'이 발생한 1892년부터 1894년 초까지임. 주로 동학농민혁명의 발생 배경과 전개과정, 결과 등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어서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자료로 평가되었음. 이로 인해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번역되었으며(김종익, 『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그 후 다시 개정판이 출간됨(김종익,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역사비평사, 2017). 이 책을 편역상 권수(흔히 '首筆')라 하겠음. 이 책 역시 『매천야록』과 마찬가지로 1895년 경 저술한 것으로 추정됨. 당시 그는 내외간상(1892년 부친상, 1893년 모친상)으로 인해 절필 중이어서 1895년 음력 4월 이후에 글을 짓기 시작한 때문임. 『오하기문』 권수는 『매천야록』 권 1의 상/하와 비슷한 형식으로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각각의 저술의 서론격(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됨.

1984년 전주대학교 한문학연구소에서 간행한 『매천전집』 권5가 간행될 때까지 이 책의 존재가 알려진 바 없었음. 당시 전주대 한문학연구소는 전7책의 『오하기문』을 필사하여 간행했으나, 친필본의 공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었음. 『매천야록』과 마찬가지로 후손들이 분실을 우려했기 때문임. 따라서 『오하기문』 역시 『매천야록』과 마찬가지로 정본사업을 추진한다면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황현의 현존은 『오하기문』 미장정 1필부터 7필(전7책)의 친필본을 소장하고 있음. 이 책의 구성을 『매천야록』과 비교하여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오하기문』 및 『매천야록』 구성 비교

오하기문			매천야록		
筆數	기간	체제 및 특이사항	권	기간	체제 및 특이사항
1 (32장, 첩지1)	1895.4.1-1895.7	편년체, 음력 표기	1	상 (1864-1887)	기사본말체, 년월 표기 불분명
2 (27장)	1895.8-1896.4	편년체, 1895.11월이후 양력 표기 '병신'		하 (1888-1893)	'무자춘2월(고종25년)'
3 (18장)	1896.4-1896.9	편년체 '건양원년'	2	1894.2-1898.12	편년체 및 기사본말체 혼용, '갑오31년(청 광서20년, 일 명치27년), 을미개국504년(위의 방법), 병신개국505년(), 정유건양2년(), 무술광무2년()'
4 (32장, 첩지1)	1896.10-1899.3	편년체, 1899.2월이후 음력 전환 '건양2년, 광무2년 무술, 광무3년 기해'	3	1899.1-1903.12	편년체 위주 기사본말체 혼용, '기해광무3년, 경자광무4년()'
5 (22장, 첩지1)	1899.2-1900.1	편년체, 1899.9월 결락 '광무4년 경자'	4	1904.1-1905.10	편년체 위주 기사본말체 혼용, '신축광무5년(), 임인광무6년(), 계묘광무7년(), 갑진광무8년()'
6 (29장)	1900.2-1902.9	편년체, 1902.5.10~1905.12월 결락 '신축, 임인'	5	1905.11-1907.7	편년체 위주 기사본말체 혼용, '을사광무9년(), 병오광무10년(), 경미광무11년(7월이후 융희원년으로 함,)'
7 (46장)	1905.12-1907.12	편년체, 1907.7 융희 개원 '병오, 광무11년정미'	6	1907.8-1910.8	편년체 위주 기사본말체 혼용, 1909년부터 양력 및 편년체 '무신융희2년(), 기유융희3년(), 융희4년경술()'

-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종합하면, 『오하기문』은 『매천야록』의 저본으로 이해되고 있음. 『매천야록』과 중복되는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임.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황현은 기복忌服을 마치고 『오하기문』 권수를 먼저 저술한 것으로 추정됨.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밝혀 후세에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음. 그는 유교적 감개주의의 관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배경과 원인, 전개과정, 처리결과 등을 서술하였음. 그 후 황현은 『오하기문』과 『매천야록』 등의 저술을 본격화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이 책은 『매천야록』과 함께 한국근대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

라. 매천시고(梅泉詩稿)

1) 조성연대

- 1885-1910년 사이에 황현이 지은 시를 모아놓은 책. 황현은 당대 제일가는 시인으로 명성을 날림, 호남에서는 이정직 이기와 더불어 '호남삼걸湖南三傑'로 불려졌고, 전국적으로는 이견창 김택영과 더불어 '한말삼재韓末三才'로 이름이 날린 문장가였음. 이 책은 그가 지은 약 548수의 시를 수록하고 있음.

2) 현상

- 제1,2책은 『매천시고』, 제3책은 『매천우존梅泉偶存』, 제4책은 『매천시초梅泉詩艸』라고 표제되어 있음. 제1책(을유 병술)은 162수, 제2책(무술 경자)은 96수, 제3책(신축 병오)은 166수, 제4책은 124수가 수록됨. 각 책의 간지는 朱/墨으로 쓰여져 있으며, 각 시기에 지은 시로 추정되며 연번으로 표기된 점으로 보아 한 질로 파악해도 무방하리라 판단됨. 다만, 제4책의 경우 간지는 표기되지 않았으나 1907-1910년 사이에 지은 시로 추정되며, 제목으로 보아 미정고의 상태로 보임.

3) 내용 및 특징

- 황현은 평생 약 2천수 내외의 시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중 1885-1910년 사이에 지은 시 548수가 수록된 친필시집임. 그는 "시문은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의 습성은 고금의 다름이 있거늘 후세에 태어나서 억지로 옛날을 본받으려 든다면 결코 이루어질 이치가 없다."라고 하며 이른바 성정론性情論에 입각하여 시를 지었음. 그래서 그는 역사적 사실을 읊은 우국충정의 시가 많은 편임. 이에 대해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는 매천 시의 특징을, "시로써 시를 짓는 것은 속인의 일일 뿐이다. 매천은 그렇지 않았다. 구구하게 시로써 시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시가 그 사람을 닮았다詩以爲詩, 俗人事耳. 梅泉不然, 不區區以詩爲詩, 而詩肖其人"고 하였음.
- 그런데 그에게 있어 시는 일차적으로 서정抒情의 도구였으며, 많은 경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교제交際의 수단이었음. 아울러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훈도하는 교육의 일환이었고 자신의 시대를 여실히 기록한 메시지로서의 역사를 의미한 것임. 따라서 그의 시에는 식자인(지식인)의 책임 의식이 깊이 투영되어 있어서 우국충정의 지사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시집임.
- 현재 황현의 시는 김택영의 주선과 교정으로 1911년에 중국 상해에서 간행된 『매천집』(7권3책) 및 『매천속집』(2권1책, 1913)에 약 440여 수가 수록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영인, 필사되거나 보충하여 번역, 간행되고 있음. 따라서 그의 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후손이 소장한 시집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는 시를 모두 모으고 대교하여 보다 완전한 완결판의 시집 발간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마. 매천문초(梅泉文鈔)

- 1) 조성연대
 - 황현이 지은 다양한 글을 모은 책으로, 주로 1880년대 이후 1910년 사이에 저술한 것임.
- 2) 현상
 - 앞표지의 오른편 상단(목서) 및 앞표지 안쪽(朱書)에 문장의 형식을 알려주는 내용이 적혀 있음. 즉, 제1책은 記 論 跋 銘 記事 贊을 수록했고, 제2책은 序 祭文 上梁文, 제3책은 傳 說 行狀 疏 墓碣銘 墓表 雜著 書 등이 수록되었음을 표시해놓음. 그리고 1,2책의 앞표지 안쪽에는 난곡 이건방이 선정한 글의 분량을 표시하였음. 글 제목의 상단에 붉은 색으로 X 표시를 하거나 간혹 수정을 한 부분도 있음. 모두 5첩으로 장정되어 있고, 보존 상태도 양호한 편임.

3) 내용 및 특징

- 황현이 지은 다양한 문체를 통해 그의 사상과 활동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임. 특히, 3책에 실린 언사소와 격문, 잡저 등을 통해 황현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음. 『매천문초』에 수록된 글의 일부는 『매천집』(1911)과 『매천속집』(1913)에도 실려 있으며, 전주대 호남학연구소에서 1984년에 간행한 『매천전집』 3, 4에 대부분 필사되어 수록된 것으로 판단됨.

마. 매천황현관련유목첩(梅泉黃玆關聯遺墨帖)

- 1) 조성연대
 - 1880년 전후-1910년 사이의 황현의 저술뿐만 아니라 그의 지기들이 보낸 서간, 대한매일신보 등 신문기사 스크랩, 그의 순절후 동생 황원과 주고받은 편지 등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첩.
- 2) 현상
 - 제1첩 『미상소별』과 제2첩 『여견기인如見其人』의 경우 매천이 직접 제첩을 썼다는 내용을 표지 우측에 밝히고 있음. 즉, '광무 기해년 춘분절 매천이 제목을 쓰다 담취헌 소장 / 光武己亥春分節 梅泉題籤 澹翠軒藏'이라 되어 있음. 기해년, 즉 1899년 춘분에 황현이 제첩하여 담취헌에 소장하고 있던 첩으로 판단됨. 담취헌은 황현이 1886년부터 1902년까지 살았던 집의 당호임. 따라서 양 첩은 그의 지기들이 보낸 글이 주로 수록되어 있음. 제3첩 『思至則是』와 제4첩 『我懷維何』는 제목만 적혀 있는데, 첩으로 만든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황현의 절친한 지기들인 김택영 이정직 이견승 이견방 박항래 등이 보낸 서간 등을 모아 첩으로 묶은 것임. 제5첩 『手澤存焉』 및 7첩 『天涯比鄰』, 8첩 『七分其容』, 9첩 『心犀查照』, 10첩 『四海兄弟』은 제목과 함께 표지 우측에 '기묘년 음력 10월 염재가 제첩함, 대월헌 소장 / 己卯年小春 念齋題籤 待月軒藏'이라 적혀 있음. 따라서 5, 7-10첩은 1939년에 제첩은 염재 송태회가 썼고, 대월헌에서 소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염재 송태회(宋泰會, 1872-1941)는 황현과 같은 해에 진사시에 합격한 전남 화순 출신으로, 시서화 삼절에 뛰어난 인물로 황현과 절친한 사이였음. 이러한 인연으로

황원이 그에게 제첩을 부탁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 다만, 제6책 『위서첩慰書帖』은 표지 우측에 '隆熙紀元四年 庚戌冬十月 待月軒藏'이라 쓰여 있는 첩으로 보아 1910년 음력 10월에 제첩하고 첩으로 만들어 대월헌에 보관한 것으로 판단됨.

3) 내용 및 특징

- 황현은 당대의 내로라하는 문인들과 교류하며 수많은 글을 남겼고, 그들과 주고받은 글도 많은 편임. 따라서 이 유목첩은 당대 지식인들의 교류 내용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이 유목첩의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매천관련유목첩]의 주요 특징

첩수	표지사진	주요 내용	비고
제1첩 (31장)		<미상소별>(제1첩) : 황현은 젊은 시절 "養雲"이란 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음, 이견창, 정만조, 이성렬, 조성희 등 지기들이 주로 1880년대에 보낸 편지를 첩으로 만든 것임.	황현의 1899년 제첩, 담취헌 소장
제2첩		<여견기인>(제2첩) : 1890년대에 보낸 편지를 묶은 첩. 구례군수 서택환, 박항래, 친구인 정만조 조성희 등의 편지를 모은 첩.	황현의 1899년 제첩, 담취헌 소장
제3첩 (21장)		<사지즉시>(제3첩) : 황현은 1907년 <미상소별> <여견기인> <사지즉시>의 제목 유래를 앞에 적어놓았음. 말미에 황원은 1927년 자신의 소회를 피력한 글을 붙임. 김택영, 이정직, 이견승, 이견방, 조성희 등의 편지를 모은 첩.	제목만 적음 (1907년 제작)
제4첩 (22장)		<아회유하>(제4첩) : 1907년에 황현은 <아회유하>의 유래를 먼저 기록함. 박항래 이정직 정규석 등의 편지를 모아 첩을 만든 것임.	제목만 적음 (1907년 제작)
제5첩 (27장)		<수택존언>(附 滄書, 제5) : 김택영의 편지와 壽序, 이견방이 찬한 황현묘지명,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항일활동중 장인환 전평명의 스티븐스적격사건, 이재명 의거, 안중근의 이토오 처단 및 재판과정 등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1916년에 첩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 1919년 독립선언서(보성사판) 원본 및 김지섭의거관련 조선일보 기사(1928.3.19)도 들어 있음. 특히, 황원이 황현의 手蹟을 빠짐없이 수집한 내용이 적혀 있음.	창강의 편지 부록, 송태회의 1939년 제첩, 대월헌 소장

책수	표지사진	주요 내용	비고
제6집 (19장)		<위서첩>(제6) : 황현의 절명시가 실린 경남일보 신문기사(1910.10.11.), 황현의 순절을 기리는 제문을 모아 첩으로 만든 것. 최익현의 아들 최영조, 최익현과 전북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임병찬, 김택영, 이정직, 이진승, 조진규, 김상국 등의 제문, 이진승은 황현을 ‘大韓烈士’라고 호칭.	1910년 겨울 음력 10월에 첩 장 하 여 대월현에 소장
제7집 (21장)		<천애비린>(제7) : 김택영의 글이 많은 편	송태희의 1939년 제첩, 대월현 소장
제8집 (19장)		<칠봉기용>(제8) : 김윤식, 이기, 이진방의 글이 많은 편	송태희의 1939년 제첩, 대월현 소장
제9집 (27장)		<심서사조>(제9) : 김택영, 이진방의 글이 많은 편	송태희의 1939년 제첩, 대월현 소장
제10집 (43장)		<사해형제>(제10) : 한용운의 조시, 김윤식과 이진창의 '구안실기', 홍건, 이진승, 정인보의 글	송태희의 1939년 제첩, 대월현 소장
(17장)		- 이진창의 『당의통략』에 수록한 황현의 발문, 갑오평비책, 최익현을 대신하여 지은 태인의병 격문, 민영환 고광순 안중근의 略史, 친구인 이기를 추모하는 제문 등을 수록. ‘帶月軒’은 ‘待月軒’의 오자임.	1911년 황원이 형의 수적을 후손들에게 전할 목적으로 첩을 만들어 보관

○ <매천황현관련유목집>은 연번으로 구성된 전10책과 <대월현유목집> 1책 등 총 11책임. 『미상소별』 등 10책은 당대 내로라하는 지식인(김택영, 이진방, 이진승, 정만조, 김윤식, 이기, 이정직, 이성렬, 조성희, 박항래 등)들이 보낸 편지 등을 모은 첩. 아울러 1907년에 황현이 직접 쓴 첩의 제목 유래와 첩을 만든 배경, 그리고 그의 동생 황원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분투의 과정 등을 기록으로 전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임. 그중 『위서첩』은 황현의 순절 이후 우국지사들이 보낸 제문, 절명시를 게재한 경남일보 신문 스크랩 등을 수록한 것임. 이진승은 제문에서 황현을 ‘대한열사라 지칭함. 당대 제일의 문장가들과 교유한 이 글들을 통해 19세기말 20세기초의 국가적 위기와 민족의 존망, 사회 상황, 그리고 지식인들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희귀 자료라 할 수 있음. 또한 『대월현유목』(단)에는 황현의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알려주는 귀중한 문헌들이

수록되어 있음. 그 중에서 동학농민군의 진압 및 사후 대책을 피력한 <갑오평비책>은 매우 중요한 자료임. 그리고 1906년에 전북 태인의병 당시 최익현을 대신하여 지은 격문, 민영환 고광순 안중근의 略史, 李沂를 추모하는 제문을 통해 항일운동의 정수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노력한 황현의 우국지사적 면모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내용임.(지금까지 언급한 자료의 사진을 별첨 부록으로 제시함).

사. 매천 황현 전적류 ‘가~마’ 종합기술

1) 문헌자료

○ 자료

- 黃玹, 『梅泉集』(7권3책), 上海, 1911 ; 『梅泉續集』(2권1책), 上海, 1913 ; 『黃玹全集』 上·下, 아세아문화사, 1978 ; 『梅泉全集』(전5책), 전주대 호남학연구소, 1984.
- 황현, 『梧下記聞』 ; 김종익 옮김, 『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2017.
- 황현, 『梅泉野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료총서 1, 1955 ; 金濬 譯, 『完譯 梅泉野錄』(附錄 漢文本), 敎文社, 1994 ; 임형택 외 옮김, 『역주 매천야록』 상하, 문학과지성사, 2005.
- 崔昇孝 編, 『國譯 黃梅泉 및 關聯人士 文墨萃編』, 上·下, 원문(전3책), 미래문화사, 1985.
- 이병기 김영봉 공역, 『역주 매천황현시집』 상중하, 보고사, 2007.
- 김영봉 옮김, 『역주 황매천 시집 속집』, 보고사, 2010.
- 김영봉 옮김, 『역주 황매천 시집 후집』, 보고사, 2010.
- 임정기 박헌순 권경렬 역, 『매천집』 1-4, 한국고전번역원, 2010.

○ 연구논저

- 외솔회 편, 『나라사랑』 46(황현 특집호), 1983.
- 기태완, 『黃梅泉詩研究』, 보고사, 1999.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 『매천 황현과 매천집』, 순천대학교 박물관 편, 2006.
- 김정환, 『梅泉詩派 研究』, 경인문화사, 2007.
- 하우봉 외, 『매천 황현과 역사서술』, 디자인 흐름, 2010.
- 최인진, 『해강 김규진과 천연당 사진관』, 아라, 2014.
- 홍영기, 『경술국치에 항거한 순국지사 황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 洪以燮, 「黃玹의 歷史意識-梅泉野錄 讀解에의 試論-」, 『淑大史論』 4, 1969.
- 林瑩澤, 「黃梅泉의 詩人意識과 詩」, 『창작과 비평』 겨울호, 1970.
- 李章熙, 「黃玹의 生涯와 思想」, 『亞細亞研究』 21-2호, 고려대, 1978.
- 李相寔, 「梅泉 黃玹의 歷史意識」, 『歷史學研究』 8, 전남대학교 사학회, 1978.
- 金昌洙, 「<甲午平匪策>에 대하여-梅泉 黃玹의 東學認識-」, 『藍史鄭在覺博士古稀記念 東洋學論叢』, 고려원, 1984.
- 김창수, 「黃玹의 『東匪紀略』 草藁에 대하여--『梧下記聞』 乙未4月以前記事의 檢討--」,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정음문화사, 1985.

- 金容燮, 「黃玹(1855-1910)의 農民戰爭 收拾策」, 『高炳翊先生回甲紀念史學論叢』, 1984 ; 『歷史와 人間の 對應』(韓國史篇), 한울, 1985.
- 琴章泰 · 高光植, 「梅泉 黃玹」, 『續 儒學近百年』, 驪江出版社, 1989.
- 黃秀貞, 「梅泉詩의 이해를 위한 傳記 研究」, 『古詩歌研究』 10, 2002.
-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김소영, 「매천 황현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홍영기, 「황현」, 『한국사 시민강좌』 41, 일조각, 2007 ; 「한말 한 지식인의 이상과 좌절-梅泉 黃玹을 중심으로-」, 『지리산과 인문학』, 브레인, 2010.
- 이의강, 「매천의 삶과 문학」, 『한문학보』 23, 2010.

2)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황현은 일생동안 손수 필사한 책이 100여 권이나 되었고, 그것을 모두 정성들여 필사하고 정성을 들여 장정했다고 함. ‘一生手鈔書冊百餘卷 皆精鈔粧池精鑿’ (황원. 「선형사행영록」 ; 『매천집』 1 ; 『매천전집』 3, 41쪽). 황원은 그를 ‘서책에 대해서는 치우치게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 심지어는 전답을 팔아서 구입하기 까지 했고, 항상 모든 책을 다 읽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좋은 책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수백리 길이라도 반드시 가서 빌려 왔으며 책이 혹 해진 데가 있으면 보수해서 돌려주곤 하였다. 갑오경장 이후로는 세상의 변천을 사무치게 느끼어 비로소 서양의 서적을 구입하여 열람’(『매천집』 1, 81쪽)할 정도로 세상의 변화에 눈과 귀를 기울이는 지식인이었다고 적었음. 이와 같이 지식인의 책무를 뼈저리게 통찰한 내용을 저술로 남긴 소산이라 할 수 있음.
- 『대월헌절필첩』(전1책) : 1910년 경술국치에 항거하여 순절한 황현의 절명시가 들어 있는 자료. 우국지사로서 역사가이자 시인이었던 황현은 절명사에서 지식인의 책무를 천명하고 순절함으로써 나라를 잃은 백성의 심정을 애절하게 대변함. 그의 절명시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임.
- 『매천야록』(전7책) : 이 책은 유교적 감개주의의 관점에서 저술한 당대사를 기록한 귀중한 자료.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활자본을 간행한 이후 수많은 번역본이 출간될 정도임. 그만큼 이 책이 중요하다는 반증이라 하겠음. 다만, 현재까지 간행된 대부분의 책은 황현의 친필원본을 대조하지 않고 간행한 한계가 있음. 이는, 『매천야록』의 분실을 우려한 매천 집안의 비공개 방침에 의한 것임. 따라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면 현존의 동의를 얻어 친필본과 김택영교정본, 국사편찬위원회 필사본 등을 확인 대조해서 定本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오하기문』(전7책) : 이 책은 흔히 『매천야록』의 저본으로 이해되고 있음. 『매천야록』과 중복되는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임. 황현은 부모상 기복근服을 마친 후 동학농민군에 의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밝혀 후세에 교훈을 주기 위해 『오하기문』(권수)을 먼저 저술한 것으로 추정됨. 그는 유교적 감개주의의 관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배경과 원인, 전개과정, 처리결과 등을 서술하였음. 그후 황현은 『오하기문』(전7책)과 『매천야록』(전7책) 등 당대사를 기록으로 남김.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 망국과정을 진술하게 기록으로 전함. 특히 의병항쟁 등을 비롯한 항일활동을 상세하게 전함으로써 『매천야록』과 함께 한국근대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

- 『매천시초』(전4책) : 황현의 시는 우국충절의 식자인(지식인)의 책임 의식이 깊이 투영된 구국애민의 시로 널리 알려져 있음. 그의 시는 김택영의 주선과 교정으로 1911년에 중국 상해에서 간행된 『매천집』(7권3책) 및 『매천속집』(2권1책, 1913)에 약 440여 수가 수록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영인, 필사되거나 보충하여 번역, 간행되고 있음. 따라서 그의 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황현의 현존이 소장한 시집을 저본삼아 흩어진 시를 모두 모아 <매천시전집> 간행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의 시세계 이해와 연구에 기여할 것임.
- 『매천문초』(전3책) : 황현의 다양한 문체를 통해 그의 사상과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특히, 3책에 실린 인사소와 격문, 잡서 등을 통해 황현의 사상과 행적을 구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매천황현관련유목첩>(전11책) : 『미상소별』을 제1첩으로 하여 연번으로 구성된 전10책과 <대월헌유목> 1책 등 총 11책임. 『미상소별』 등 10책은 당대 내로라하는 지식인(김택영, 이진방, 이진승, 정만조, 김윤식, 이기, 이정직, 이성렬, 조성희, 박항래 등)들이 보낸 편지 등을 모은 첩. 아울러 1907년에 황현이 직접 쓴 첩의 제목 유래와 첩을 만든 배경, 그리고 그의 동생 황원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분투의 과정 등이 잘 드러나는 귀중한 자료임. 그중 『위서첩』은 황현의 순절 이후 우국지사들이 보낸 제문, 절명시를 게재한 경남일보 신문 스크랩 등을 수록한 것임. 이진승은 제문에서 황현을 ‘대한열사’라 칭칭함. 당대 제일의 문장가들과 교류한 이 글을 통해 19세기말 20세기초의 국가적 위기와 민족의 존망, 사회 상황, 그리고 지식인들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희귀 자료라 할 수 있음. 또한 『대월헌유목』(단)에는 황현의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알려주는 귀중한 문헌들이 수록되어 있음. 그 중에서 동학농민군의 진압 및 사후 대책을 피력한 <갑오평비첩>, 1906년에 전북 태인의병 당시 최익현을 대신하여 지은 격문, 민영환 고광순 안중근의 略史, 李沂를 추모하는 제문 등은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항일운동의 정수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노력한 황현의 우국지사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음.
- 이상과 같이 매천 황현의 저술과 관련인사 유목은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 전후 한국의 정치/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 자료들은 크게 <매천황현저술및관련유목>이란 명칭으로 지정하되, 위에서 분류한대로 6건으로 나누어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019년은 삼일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일백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매천의 친필본 『매천야록』, 『오하기문』, 『대월헌절필첩』 등이 최초로 공개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판단됨.
- 이러한 자료를 약 110년간 지켜온 후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싶음. 황현관련 전적류들은 그의 동생 황원을 비롯한 후손들이 그야말로 눈물겹게 보관해온 역사적 유산이라 할 수 있음. 각 문헌의 앞장에 적힌 12자 낙관에는 매천의 유언을 새겨 스스로 각오를 다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감이 됨. 매천의 저술과 유목에는 모두 ‘梅泉家藏과 매천의 유언인 ‘書冊是吾精力所萃其善守護’ 낙관을 찍어 전승해왔음. 여기에 후손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이 깃들어 있으므로 이제 그 뜻을 이어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그 뜻을 널리 알리고 역사적 유산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함.

3)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대월헌절필첩』과 <매천황현관련유목첩> 등은 일부 손상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신속히 수리하여 항구적인 보존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매천야록』과 『오하기문』 등은 처음 공개되는 자료이므로 친필본을 저본삼아 정본 사업을 추진하여 제공한다면 황현과 그 시대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부록 : 매천황현관련전적류 사진 1부.

<부록> 매천황현관련전적류 사진

1) 대월헌절필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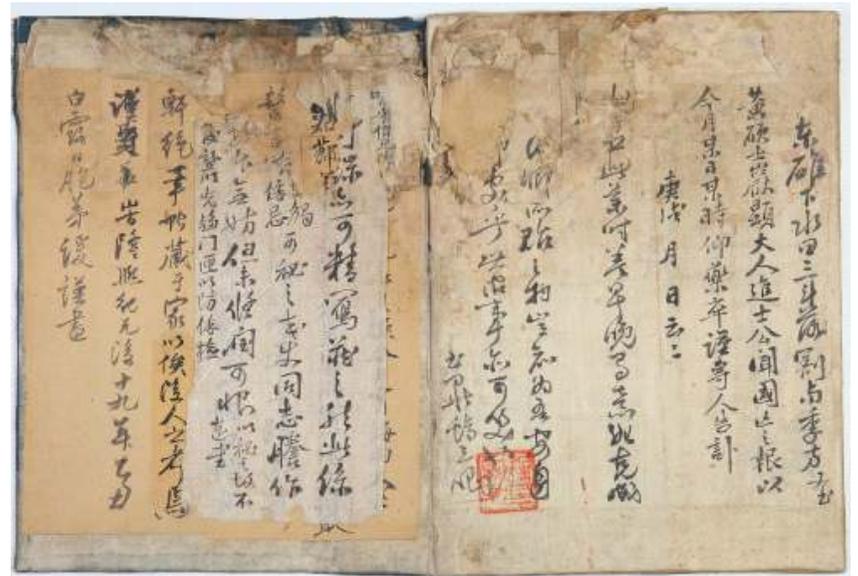
<대월헌절필첩 앞표지>



<황현의 절명시>



<유자제서-1>



<황원의 절필첩에 대한 감회>(1925)



<유자제서-2>



<황헌, (경기도 포천) 가채리영당(최익헌) 상량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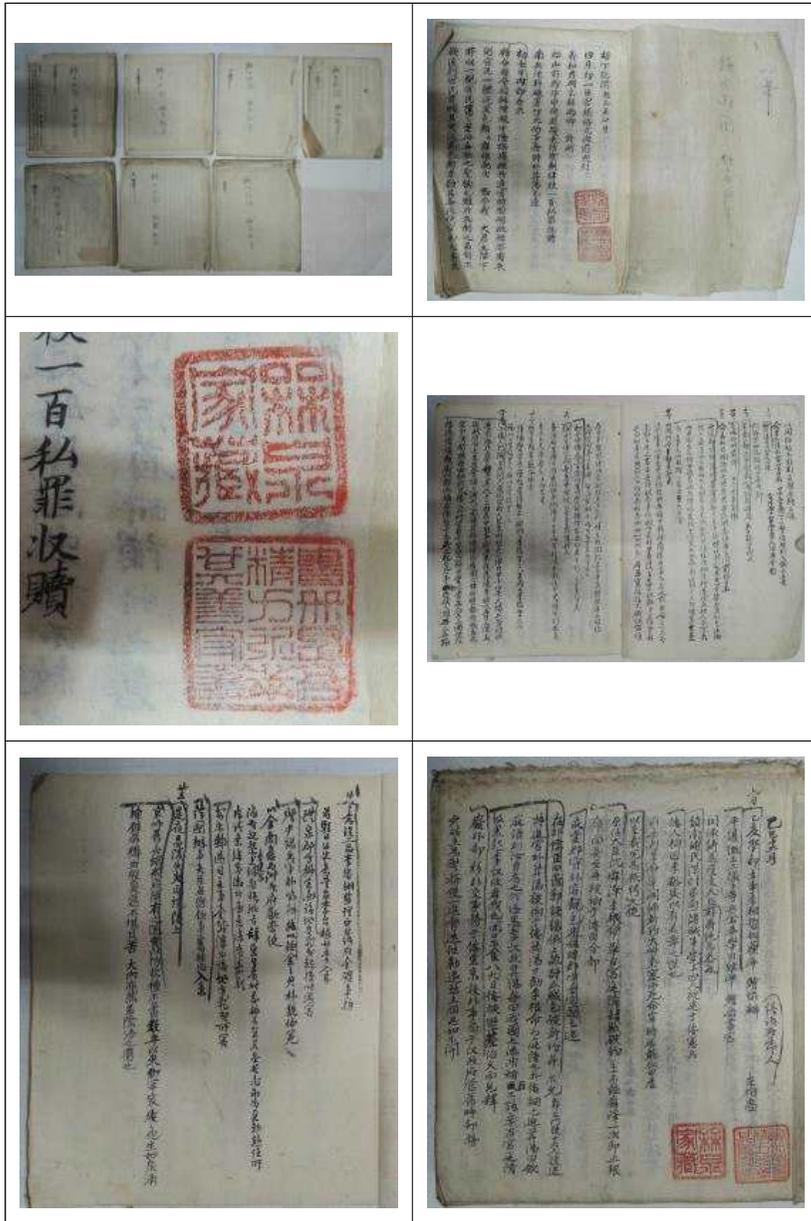
<부록> 매천황현관련전적류-사진2

2) 매천야록(전7책)



<부록> 매천황현관련전적류-사진3

3) 오하기문(전7책)



4) 매천시초(전4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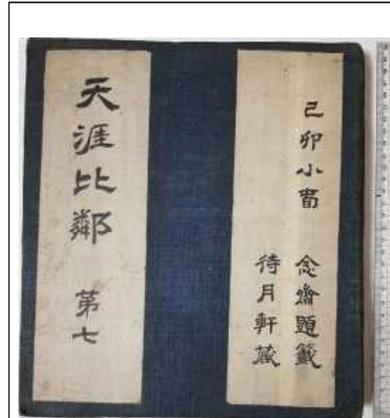


5) 매천문초(전3책)



6) 매천황현관련유목첩(전11책)





가. 대월헌절필첩(待月軒絶筆帖)

1) 명칭 및 현상

- 명칭 : 황현전적류 『待月軒絶筆帖』 (* 表題 상의 '帶月軒'을 '待月軒'으로 바로잡음)
- 현상 : 『帶月軒絶筆帖』은 表題에 '帶月軒'으로 목기 제첩되어 있으나 이는 '待月軒'의 誤字임. 양면의 절첩장으로 장정되어 있으며, 표지가 남색임. 절첩으로 장정한 후 필사로 기록한 부분들이 보이며, 일부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음.

2) 내용 및 특징

- 황현(黃玹, 1855-1910)은 자는 雲卿, 호는 養雲과 梅泉임. 그는 조선말부터 대한제국기의 대표적 역사가임.
- 대월헌(待月軒)은 황현이 1902년 말 구례군 간전면 만수동(萬壽洞)에서 같은 군 광의면 월곡(月谷)으로 이사 온 이후의 서재 이름임. 현전하는 필사본 『오하기문』(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표지에 '庚戌九月三日待月軒粧池' 기록이 있음. 따라서 절첩첩의 표제의 '帶月軒'은 황현의 저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기하여 제첩한 것으로 추정됨(<그림 1> 참조). 즉, '待月軒'은 황현이 1902-1910년 사이에 살았던 월곡 마을의 이름과 그곳에서 바라보는 달을 빗대어 지은 서재명으로 표제의 '帶月軒'은 '待月軒'의 誤字임.
- 황현은 1905년 11월 일제가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하여 국권을 박탈당하자 통분을 금하지 못하고 국권회복을 위하여 중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 실패, 1910년 8월 경술국치를 당하자 그해 9월 절명시 4수를 남기고 대월헌에서 순절하였음.
- 1909년 '시일야 방성대곡'의 장지연 선생이 주필로 전국 최초 지방신문으로 창간한 경남일보에는 1910년 매천 황현의 절필시 4수를 게재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일제로부터 10일간의 정간을 당함.
- 이는 매천 황현이 경술국치 직후 순절하면서 남긴 절명시 4수가 실려 있는 첩으로 원본으로 보임. 말미에 "대한 융희 4년 음력 가을 8월 초6일 새벽 등불아래 매천이 마지막으로 쓰다(大韓隆熙四年 舊曆秋八月初六日丁丑 曉燈梅泉絶筆)"라고 되어 있음. 즉, 1910년 9월 9일 새벽임.
- 한편, 이 첩을 보존하기 위해 기록한 융희 기원(1925)년 백로일(9월)에 작성한 동생 황원의 소희의 글, 황현이 1888년 생원시에 급제(1등 제2인)한 후 부친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서간, 경기도 포천 가채리의 최익현을 모신 影堂의 상량문, 생가의 기록 등이 수록됨.
- '梅泉家藏'과 매천의 유언인 '書冊是吾精力所萃其善守護' 낙관이 찍혀 있음.



<그림 1> 대월헌절필첩 표지



3) 문헌자료

○ 자료

- 김정환. 『梅泉詩派 研究』. 과주: 경인문화사, 2007.
- 金濬 譯. 『完譯 梅泉野錄』(附錄 漢文本). 서울: 敎文社, 1994.
- 순천대학교 박물관 편. 『매천 황현과 매천집』. 순천: 순천대학교 박물관, 2006.
- 임정기, 박현순, 권경렬 역. 『매천집』(1-4).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0.
- 임형택 외 옮김. 『역주 매천야록』.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 崔昇孝 編, 『國譯 黃梅泉 및 關聯人士 文墨萃編』. 서울: 미래문화사, 1985.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서울: 일조각, 2004.
- 황현. 『梅泉野錄』. 국사편찬위원회, 1955.(한국사료총서 1).

○ 연구논저

- 김소영. “매천 황현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원준. “『梅泉集』을 통해 본 『梅泉詩集 下』의 구성과 漏落 詩의 특징 : 영남대학교 소장 南齋文庫 『梅泉詩集 下』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논총』 58(2014. 12), 151-175.
- 金項勾. “黃玹의 新學問 受容과 ‘壺陽學校’ 設立.” 『문화사학』 21(2004. 6), 995-1010.
- 朴杰淳. “매천 황현의 당대사 인식을 둘러싼 논의.” 『한국근현대사연구』 55(2010. 12), 61-89.
- 朴孟洙. “매천 황현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에 대한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55(2010. 12), 34-60.
- 李炳基. “黃梅泉詩研究.” 全南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박사학위논문, 1984
- 이현희. “매천 황현론.” 『나라사랑』 46(1983. 3), 28-43.
- 韓哲昊. “『매천야록』에 나타난 황현의 역사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55(2010. 12), 7-33.
- 허경진. “매천의 죽음과 문학적 성과.” 『민족문화』 36(2011. 1), 45-70.
-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金晋郁. “梅泉 黃玹 自然詩 研究.” 『문화와융합』 39:5(2017. 10), 767-794.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1910년 경술국치에 항거하여 순절한 황현의 절명시가 들어 있는 자료이며, 원본으로 사료되므로 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높음.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일부 손상된 부분이 있으므로 보존처리 등이 필요함.

6) 종합의견

- 황현의 절명시 원본 수록 자료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

나. 매천야록(梅泉野錄)

1) 조성연대

- 제1책 갑자년인 1864년부터 제7책 경술년인 1910년 경술국치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미정고본임. 이후 창강 김택영에 의한 刪削의 정리 작업을 거쳐 동생 황원(1870-1944)이 1929년 경 제책한 것으로 추정. 즉, 제1책의 속지 내용에 의하면 1927년 음력에 황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2) 현상

- 총 7책의 1질로서 4침 안정과 5침 안정이 혼재한 선장본으로 장정되어 있음. 보존 상태 양호함.

3) 내용 및 특징

- 1864년 대원군 집정부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 약 47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황현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책으로 한국근대사 연구에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사료로 평가받는 자료임. 특히 제7책의 경우 제자들의 글이 수록되어 있으며, 안중근에 대한 신문기사들도 채록하여 수록하고 있음. 또한 제7책 속지에 동생 황원의 이 책에 대한 간행 관련 상황, 김택영의 산정, 창강의 교정본 등에 대한 상황을 기술 내용이 있음.
- 각 형태와 수록시기를 살펴보면, 제1책은 4침 안정 선장본으로 갑자(1864) - 정해(1887), 제2책은 4침 안정 선장본으로 무자(1888) - 갑오(1894) 6월, 제3책은 5침 안정 선장본으로 갑오(1894) 7월 - 무술(1898), 제4책은 4침 안정 선장본으로 기해(1899) - 계묘(1903), 제5책은 5침 안정 선장본으로 갑진(1904) - 을사(1905) 10월, 제6책은 4침 안정 선장본으로 을사(1905) 11월 - 정미(1907) 7월, 제7책은 정미(1907) 8월 - 경술(1910) 7(8)월까지임.
- 『매천야록』에 대한 조사는 1939년 당시 조선편수회 제작의 신석호가 처음 실시하였는데, 당시 전북 남원거주 박정식 소장의 부본을 빌려 필사하여 당시 조선사편수회에서 비장, 1954년 여름 매천의 둘째 아들 渭顯을 만나 친필본과 김택영교정본을 차람하여 조선사편수회본과 대조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료총서 제1집으로 1955년에 간행하였음. 이후 국사편찬위원회본을 대본으로 번역본들이 간행되었음.
- ‘梅泉家藏’과 매천의 유언인 ‘書冊是吾精力所萃其善守護 낙관이 찍혀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 낙관

4) 문헌자료

○ 자료

- 김정환. 『梅泉詩派 研究』. 과주: 경인문화사, 2007.
- 金濬 譯. 『完譯 梅泉野錄』(附錄 漢文本). 서울: 敎文社, 1994.
- 순천대학교 박물관 편. 『매천 황현과 매천집』. 순천: 순천대학교 박물관, 2006.
- 임정기, 박헌순, 권경렬 역. 『매천집』(1-4).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0.
- 임형택 외 옮김. 『역주 매천야록』.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 崔昇孝 編, 『國譯 黃梅泉 및 關聯人士 文墨萃編』. 서울: 미래문화사, 1985.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서울: 일조각, 2004.
- 황현. 『梅泉野錄』. 국사편찬위원회, 1955.(한국사료총서 1).

○ 연구논저

- 김소영. “매천 황현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원준. “『梅泉集』을 통해 본 『梅泉詩集 下』의 구성과 漏落 詩의 특징 : 영남대학교 소장 南齋文庫 『梅泉詩集 下』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논총』 58(2014. 12), 151-175.
- 金項旻. “黃玿의 新學問 受容과 ‘壺陽學校’ 設立.” 『문화사학』 21(2004. 6), 995-1010.
- 朴杰淳. “매천 황현의 당대사 인식을 둘러싼 논의.” 『한국근현대사연구』 55(2010. 12), 61-89.
- 朴孟洙. “매천 황현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에 대한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55(2010. 12), 34-60.
- 李炳基. “黃梅泉詩研究.” 全南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박사학위논문, 1984
- 이현희. “매천 황현론.” 『나라사랑』 46(1983. 3), 28-43.
- 韓哲昊. “『매천야록』에 나타난 황현의 역사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55(2010. 12), 7-33.
- 허경진. “매천의 죽음과 문학적 성과.” 『민족문화』 36(2011. 1), 45-70.
-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金晉郁. “梅泉 黃玿 自然詩 研究.” 『문화와융합』 39:5(2017. 10), 767-794.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1864년 대원군 집정부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 약 47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황현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책으로 한국근대사 연구에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사료로 평가받는 자료임. 특히 또한 제7책 속지에 동생 황원의 이 책에 대한 제책 관련 상황과 김택영의 산정에 대한 내용 기록을 통해 황현의 친필원본임을 알 수 있음.
- 황현의 유언인 ‘書冊是吾精力所萃其善守護’에 따른 후손의 보존을 위한 노고로 현전하고 있는 황현의 친필원본이므로 문화재 등록을 통한 보존이 필요함.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1955년 간행의 국사편찬위원회본과 이를 대본으로 한 번역본들이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현재, 친필원본의 문화재 등록을 통한 보존과 정본화 사업의 추진 등이 필요함.

7)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

다. 오하기문(梧下記聞)

1) 조성연대

- 제1책부터 제7책에 이르기까지 편년체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즉, 1895년 4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당대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2) 현상

- 총 7책의 1결로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표지 장정 없이 내철 상태의 가제본으로 보존을 위한 표지 등의 수리 보완이 필요함. 장서인 ‘梅泉家藏’과 매천의 유언인 ‘書冊是吾精力所萃其善守護’ 낙관이 찍어 있음.

3) 내용 및 특징

- 이는 1895년 4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당대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표지에 오동나무 아래에서 들은 대로 기록하다라는 ‘梧下記聞’이 목기되어 있음.
- 형태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4침의 내철 상태의 가제본임. 각 책의 표지에 ‘梧下記聞’ 목기와 ‘一筆’ 등과 같이 책차를 기록하고 있음. 각 책의 장수와 수록 기간은 제1책(28장, 1895.4.1.-1895.7), 제2책(27장, 1895.8-1896.4), 제3책(18장, 1896.4-1896.9), 제4책(32장, 첩지1면, 1896.10-1899.3), 제5책(22장, 첩지1면, 1899.2-1900.1), 제6책(29장, 1900.2-1902.9), 제7책(46장, 1905.12-1907.12)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책의 복사본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고, 전사한 전사본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음.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전사본 표제는 『기문(記聞)]이라 되어 있고, ‘庚戌九月三日待月軒粧池’의 기록으로 보아 1910년 음력 9월 대월헌에서 제책 한 것을 알 수 있음. 이 기록으로 황현의 사후 그 저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장정을 한 것으로 판단됨. 1894년 봄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동학농민혁명의 전말을 기록한 것임. 즉, ‘임술민란’이 발생한 1892년부터 1894년 초까지의 동학농민혁명의 발생 배경과 전개과정, 결과 등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음.
- 1984년 전주대학교 한문학연구소에서 간행한 『매천전집』 권5가 간행될 때까지 이 책의 존재가 알려진 바 없었음. 당시 전주대 한문학연구소는 전7책의 『梧下記聞』을 필사하여 간행했음.
- ‘梅泉家藏’과 매천의 유언인 ‘書冊是吾精力所萃其善守護’ 낙관이 찍혀 있음.

4) 문헌자료

○ 자료

- 김정환. 『梅泉詩派 研究』. 과주: 경인문화사, 2007.
- 金濬 譯. 『完譯 梅泉野錄』(附錄 漢文本). 서울: 敎文社, 1994.
- 순천대학교 박물관 편. 『매천 황현과 매천집』. 순천: 순천대학교 박물관, 2006.
- 임정기, 박헌순, 권경렬 역. 『매천집』(1-4).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0.
- 임형택 외 옮김. 『역주 매천야록』.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 崔昇孝 編, 『國譯 黃梅泉 및 關聯人士 文墨萃編』. 서울: 미래문화사, 1985.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서울: 일조각, 2004.
- 황현. 『梅泉野錄』. 국사편찬위원회, 1955.(한국사료총서 1).

- 연구논저
 - 김소영. “매천 황현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원준. “『梅泉集』을 통해 본 『梅泉詩集 下』의 구성과 漏落 詩의 특징 : 영남대학교 소장 南齋文庫 『梅泉詩集 下』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논총』 58(2014. 12), 151-175.
 - 金項旻. “黃玠의 新學問 受容과 ‘壺陽學校’ 設立.” 『문화사학』 21(2004. 6), 995-1010.
 - 朴杰淳. “매천 황현의 당대사 인식을 둘러싼 논의.” 『한국근현대사연구』 55(2010. 12), 61-89.
 - 朴孟洙. “매천 황현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에 대한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55(2010. 12), 34-60.
 - 李炳基. “黃梅泉詩研究.” 全南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박사학위논문, 1984
 - 이현희. “매천 황현론.” 『나라사랑』 46(1983. 3), 28-43.
 - 韓哲昊. “『매천야록』에 나타난 황현의 역사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55(2010. 12), 7-33.
 - 허경진. “매천의 죽음과 문학적 성과.” 『민족문화』 36(2011. 1), 45-70.
 -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金晉郁. “梅泉 黃玠 自然詩 研究.” 『문화와융합』 39:5(2017. 10), 767-794.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梧下記聞』 전7책 1질은 한국근대사, 특히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지대한 가치를 지닌 사료로 평가받는 자료임. 다만, 황현의 현손이 소장하고 있는 『梧下記聞』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와 장서각 소장의 필사본으로 알려진 『梧下記聞』(수필)을 제외한 자료임. 지금까지 친필본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음.
- 또한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梧下記聞』은 『梅泉野錄』의 저본으로 이해되고 있음. 『梅泉野錄』과 중복되는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임.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황현은 忌服을 마치고 『梧下記聞』 권수를 먼저 저술한 것으로 추정됨.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총 7책의 1질로서 보존 상태가양호한 편이나 표지 장정 없이 내철 상태의 가제본으로 보존을 위한 표지 등의 수리 보완이 필요함. 『오하기문』 등은 처음 공개되는 자료이므로 정본화 사업이 필요함.

7) 종합의견

- 친필 원본으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

라. 황현시문 ‘매천시고(梅泉詩稿)’와 ‘매천문초(梅泉文鈔)’

1) 명칭 및 조성연대

- 명칭 : 황현시문 ‘매천시고(梅泉詩稿)’와 ‘매천문초(梅泉文鈔)’
- 조성연대 : ① 『梅泉詩稿』는 표지 우상단에 간지년을 묵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885-1910년 사이에 황현이 지은 시임을 알 수 있음. 다만, 제4책의 경우 사성기와 같은 간사년이 관련 표기가 없으나 1907-1910년 사이에 지은 시로 추정됨. ② 『梅泉文鈔』는 황현이 지은 다양한 글을 모은 책으로, 주로 1880년대 이후 1910년까지를 수록범위로 하고 있음.

2) 현상

- ① 『梅泉詩稿』는 총4책 1질의 5침 안정의 선장본임. 제1-2책은 『梅泉詩稿』, 제3책은 『梅泉偶存』, 제4책은 『梅泉詩艸』라고 表題되어 있음.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임.
- ② 『梅泉文鈔』는 총3책 1질의 5침 안정의 선장본임. 표지의 오른쪽 상단(墨書) 및 이배지(朱書)에 문장의 형식을 알려주는 내용이 적혀 있음.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임.

3) 내용 및 특징

- 매천 황현 (1855.12.11.-1910.9.10.)은 한말의 시인이자 문장가이며 순국지사이다. 본관은 장수, 자는 윤경, 호는 梅泉, 전라남도 광양 출신임.
- 1883년(고종 20) 보거과에 응시하여 초시 초장에서 첫째로 뽑혔으나 시험관이 그가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둘째로 내려놓으니 조정의 부패를 절감하여 會試·殿試에 응시하지 않고 귀향하였음. 1888년 아버지의 명으로 생원회시에 응시, 급제(1등 제2인) 합격함. 그러나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겪은 뒤 청국의 적극 간섭정책 하에 수구과 정권의 가림주구와 부정부패가 극심하자 다시 귀향함.
- 1905년 11월 일제가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국권을 박탈하자 중국에 있는 김택영과 국권회복운동을 하려고 망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함. 1910년 8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나라를 빼앗기자 통분하여 절명시 4수를 남기고 자결함.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됨.
- 특히 황현은 귀향 후 구례에서 작은 서재를 마련하여 독서와 시문짓기 및 역사연구 및 경제학 공부에 열중하였음. 즉, 이는 황현의 시문 원고본인 『梅泉詩稿』와 『梅泉文鈔』으로 다음과 같음.

- 『梅泉詩稿』

- 황현은 당대 제일가는 시인으로 호남에서는 이정직, 이기와 더불어 ‘湖南三傑’로 불려졌고, 전국적으로는 이견창 김택영과 더불어 ‘한말삼재韓末三才’로 이름을 날린 문장가였음
- 황현은 평생 약 2천수 내외의 시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책은 그 중 1885-1910년 사이에 지은 시 548수가 수록된 친필 원고본의 시집임.
- 내용의 구성을 살펴 보면, 제1책(을유·병술, 1885-1886)은 162수, 제2책(무술·경자, 1898-1900)은 96수, 제3책(신축·병오, 1901-1900)은 166수, 제4책은 124수가 수록되어 있음.
- 형태적인 구성을 살펴 보면, 총4책 1질로 5침 안정의 선장본임. 다만 각책의 표제는 상이함. 즉, 『梅泉詩稿』는 제1-2책은 『梅泉詩稿』, 제3책은 『梅泉偶存』, 제4책은 『梅泉詩艸』라고 표지에 묵기되어 있음.
- 현재 황현의 시는 김택영의 주선과 교정으로 1911년에 중국 상해에서 간행된 『梅泉集』(7권3책) 및 『梅泉續集』(2권1책, 1913)에 약 440여 수가 수록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영인, 필사되거나 보충하여 번역, 간행되고 있음.

- 『梅泉文鈔』
- 당시 문장가로 명성을 날렸던 황현이 지은 다양한 글들을 실고 있으며, 문체를 통해 그의 사상과 활동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문집 원고임.
- 내용의 구성을 살펴 보면 제1책은 記, 論, 跋, 銘, 記事, 贊을 수록했고, 제2책은 序, 祭文, 上梁文 등을 수록하였고, 제3책은 傳, 說, 行狀, 疏, 墓碣銘, 墓表, 雜著, 書 등이 수록하고 있음. 특히, 3책에 실린 언사소와 격문, 잡저 등을 통해 황현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음.
- 형태의 구성을 살펴 보면 총3책 1질이며 5침 안정의 선장본임. 각 책마다 수록 글을 기록하고 있음. 제1-2책의 표지 이배지에 난곡 이견방이 선정한 글의 분량을 표시하고 있음. 글 제목의 상단에 붉은 색으로 X 표시를 하거나 간혹 수정을 한 부분도 있음.
- 『梅泉文鈔』에 수록된 글의 일부는 『梅泉集』(1911)과 『梅泉續集』(1913)에도 실려 있으며, 전주대 호남학연구소에서 1984년에 간행한 『梅泉全集』 3, 4에 대부분 필사되어 수록된 것으로 판단됨.
- ‘梅泉家藏’과 매천의 유언인 ‘書冊是吾精力所萃其善守護’ 낙관이 찍혀 있음.

4) 문헌자료

- 자료
 - 김정환. 『梅泉詩派 研究』. 파주: 경인문화사, 2007.
 - 金瀆 譯. 『完譯 梅泉野錄』(附錄 漢文本). 서울: 敎文社, 1994.
 - 순천대학교 박물관 편. 『매천 황현과 매천집』. 순천: 순천대학교 박물관, 2006.
 - 임정기, 박헌순, 권경렬 역. 『매천집』(1-4).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0.
 - 임형택 외 옮김. 『역주 매천야록』.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 崔昇孝 編, 『國譯 黃梅泉 및 關聯人士 文墨萃編』. 서울: 미래문화사, 1985.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서울: 일조각, 2004.
 - 황현. 『梅泉野錄』. 국사편찬위원회, 1955.(한국사료총서 1).
- 연구논저
 - 김소영. “매천 황현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원준. “『梅泉集』을 통해 본 『梅泉詩集 下』의 구성과 漏落 詩의 특징 : 영남대학교 소장 南齋文庫 『梅泉詩集 下』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논총』 58(2014. 12), 151-175.
 - 金項句. “黃玟의 新學問 受容과 ‘壺陽學校’ 設立.” 『문화사학』 21(2004. 6), 995-1010.
 - 朴杰淳. “매천 황현의 당대사 인식을 둘러싼 논의.” 『한국근현대사연구』 55(2010. 12), 61-89.
 - 朴孟洙. “매천 황현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에 대한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55(2010. 12), 34-60.
 - 李炳基. “黃梅泉詩研究.” 全南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박사학위논문, 1984

- 이현희. “매천 황현론.” 『나라사랑』 46(1983. 3), 28-43.
- 韓哲昊. “『매천야록』에 나타난 황현의 역사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55(2010. 12), 7-33.
- 허경진. “매천의 죽음과 문학적 성과.” 『민족문화』 36(2011. 1), 45-70.
-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金晉郁. “梅泉 黃玟 自然詩 研究.” 『문화와융합』 39:5(2017. 10), 767-794.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매천 황현은 1910년 8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나라를 빼앗기자 통분하여 절명시 4수를 남기고 자결하였으며, 현대에 들어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됨. 그의 시와 문은 우국충절의 의식과 당시의 역사 및 황현의 사상과 행적 및 경제학 연구에 가치가 높음. 특히 『梅泉詩稿』와 『梅泉文鈔』는 황현의 친필 원고본으로 보존이 가치가 높음.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梅泉詩稿』와 『梅泉文鈔』는 황현의 친필 원고본으로 정고본화 작업이 필요함.

7) 종합의견

- 황현의 시고와 문초 원고본으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

마. 매천황현관련유목첩(梅泉黃玟關聯遺墨帖)

1) 조성연대

- 제1-2, 5-10책의 표지 우측에 간지 간사년 기록을 통해 기해년(1899)에서부터 기묘년(1939)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2) 현상

- 연번으로 구성된 전10책과 ‘單’으로 표기하고 있는 『待月軒遺墨』 1책 등 총 11책임. 제3-4, 6-11책은 남색 표지임. 양면의 절첩장으로 제작하고 있음. 제3-4책과 마지막 책을 제외하고 모두 표제가 제첨되어 있고, 우측에 간기에 제첨자 및 소장처를 기록하고 있음. 대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함.

3) 내용 및 특징

- 황현의 저술뿐만 아니라 그의 지기들과 당시 지식인들인 김택영, 이견방, 이견승, 정만조, 김윤식, 이기, 이정직, 이성렬, 조성희, 박항래 등과 주고받은 서간, 동생 황원과 주고받은 편지 등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첩임. 즉, 황현은 당대의 문인들과 교류하며 수많은 글을 남겼고, 이 유목첩은 당대 지식인들의 교류 내용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또한 1907년에 황현이 직접 쓴 첩의 제목의 유래와 소장처 및 첩을 만든 배경, 그리고 그의 동생 황원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과정 등을 기록하고 있는 자료임.
- 각 첩의 수록내용과 그 특징을 살펴 보면, 제1책 『미상소별』은 황현의 지기들과 주고받은 글로 이견창, 정만조, 이성렬, 조성희 등 지기들이 주로 1880년대에 보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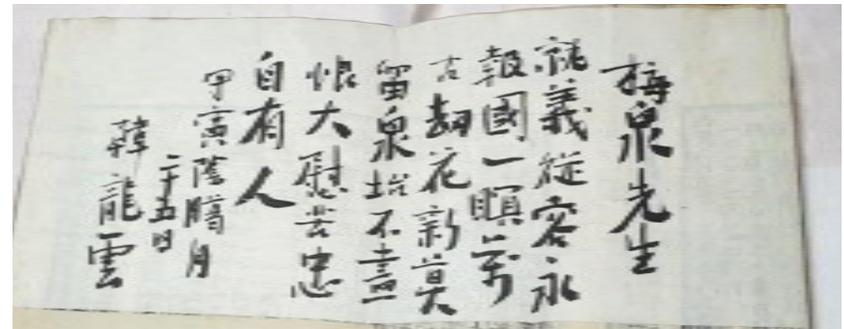
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책 『如見其人』은 1890년대에 보낸 편지를 묶은 첩으로 구례군수 서택환, 박항래, 친구인 정만조 조성희 등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책 『思至則是』은 김택영, 이정직, 이견승, 이견방, 조성희 등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미에 황원이 쓴 1927년 자신의 소회 글이 있음. 제4책 『我懷維何』은 박항래 이정직 정규석 등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음.
- 제5책 『手澤存焉』(附 滄書)은 김택영의 편지와 壽序, 이견방의 황현묘지명, 대한매일신보의 스티븐스저격사건, 이재명 의거와 안중근의 이토오 처단 및 재판과정 등의 기사를 스크랩하고 있음. 특히 1919년 독립선언서(보성사판) 원본 및 김지섭의거관련 조선일보 기사(1928.3.19)도 들어 있음. 또한 황원이 황현의 手蹟을 빠짐없이 수집한 내용이 적혀 있음.
- 제6책 『慰書帖』은 황현의 절명시가 실린 경남일보 신문기사(1910.10.11.), 황현의 순절을 기리는 제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그림 1> 참조). 최익현의 아들 최영조, 최익현과 전북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임병찬, 김택영, 이정직, 이견승, 조진규, 김상국 등의 제문도 수록되어 있음. 제7책 『天涯比鄰』은 김택영의 글이 많으며, 제8책 『七分其容』은 김윤식, 이기, 이견방의 글이 많음. 제9책 『心犀查照』은 김택영, 이견방의 글이 많으며, 제10책 『四海兄弟』은 한용운의 조시(<그림 2> 참조), 김윤식과 이견창의 「구안실기」, 홍건, 이견승, 정인보의 글 등을 구성되어 있음.
- 마지막 『待月軒遺墨』은 이견창의 『당의통략』에 수록한 황현의 발문, 갑오평비책, 최익현을 대신하여 지은 태인의병 격문, 민영환 고광순 안중근의 略史, 친구인 이기를 추모하는 제문 등을 수록하고 있음.
- 각 첩의 표지 우측의 기록(<그림 3>, <그림 4> 참조)을 통한 제첨자와 소장처 등을 살펴 보면, 제1책 『미상소별』(31장)과 제2책 『如見其人』(10장)은 표지 우측의 기록 ‘光武己亥春分節 梅泉題籤 澹翠軒藏’을 통해 황현이 기해년(1899) 춘분에 제첨하고 담취헌 소장하였음을 알 수 있음. 담취헌은 황현이 1886년부터 1902년까지 살았던 집의 당호로서 자가 소장본임을 알 수 있음.
- 제3책 『思至則是』(21장)과 제4책 『我懷維何』(22장)은 남색표지로 간사년 간지와 제첨자와 소장처 등 관련 기록은 없음. 이 첩들은 황현의 절친한 지기들인 김택영, 이정직, 이견승, 이견방, 박항래 등과 주고받은 서간 등을 모아 첩으로 제작한 것임.
- 제5책 『手澤存焉』(附 滄書) (27장), 제7책 『天涯比鄰』(21장), 제8책 『七分其容』(19장, <그림 3> 참조), 제9책 『心犀查照』(27장), 제10책 『四海兄弟』(43장, <그림 4> 참조)은 표지 우측에 ‘己卯年小春 念齋題籤 待月軒藏’(<그림 3>, <그림 4> 참조)이 기록되어 있음. 이를 통해 이 첩들은 1939년에 염재 송태희가 제첨을 쓰고 대월헌에서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宋泰會(1872-1941)는 황현과 같은 해에 진사시에 합격한 전남 화순 출신으로 황현과 절친한 사이였음.
- 제6책 『慰書帖』(19장)은 표지 우측에 ‘隆熙紀元四年 庚戌冬十月 待月軒藏’ 기록을 통해 1910년 음력 10월에 제첨하고 첩으로 만들어 대월헌에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연번이 없는 제11책 『待月軒遺墨』(‘帶月軒’은 ‘待月軒’의 오기임)(17장)은 1911년 황원이 황현의 수적을 후손들에게 전할 목적으로 제작하여 보존한 것임.
- 전체 책의 구성을 종합하면, 표지 좌측에 표제를 제첨하면서 연번으로 번호를 매긴 10책과 ‘單’으로 표기하고 있는 『待月軒遺墨』 1책 등 총 11책임. 형태적인 사항을



<그림 1> 제6책 수록의 경남일보 기사

살펴보면 모두 양면의 절첩장으로 장정되어 있음. 제3-4책과 마지막 책을 제외하고 모두 표제가 제첨되어 있고, 우측에 간지의 간사년과 제첨자 및 소장처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2> 제10책 수록의 한용운의 조시 원본



<그림 3> 제8책의 표지



<그림 4> 제10책의 표지

- ‘梅泉家藏’과 매천의 유언인 ‘書冊是吾精力所萃其善守護’ 낙관이 찍혀 있음

4) 문헌자료

○ 자료

- 김정환. 『梅泉詩派 研究』. 과주: 경인문화사, 2007.
- 金濬 譯. 『完譯 梅泉野錄』(附錄 漢文本). 서울: 敎文社, 1994.
- 순천대학교 박물관 편. 『매천 황현과 매천집』. 순천: 순천대학교 박물관, 2006.
- 임정기, 박현순, 권경렬 역. 『매천집』(1-4).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0.
- 임형택 외 옮김. 『역주 매천야록』.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 崔昇孝 編, 『國譯 黃梅泉 및 關聯人士 文墨萃編』. 서울: 미래문화사, 1985.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서울: 일조각, 2004.
- 황현. 『梅泉野錄』. 국사편찬위원회, 1955.(한국사료총서 1).

○ 연구논저

- 김소영. “매천 황현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원준. “『梅泉集』을 통해 본 『梅泉詩集 下』의 구성과 漏落 詩의 특징 : 영남대학교 소장 南齋文庫 『梅泉詩集 下』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논총』 58(2014. 12), 151-175.
- 金項句. “黃玿의 新學問 受容과 ‘壺陽學校’ 設立.” 『문화사학』 21(2004. 6), 995-1010.
- 朴杰淳. “매천 황현의 당대사 인식을 둘러싼 논의.” 『한국근현대사연구』 55(2010. 12), 61-89.
- 朴孟洙. “매천 황현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에 대한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55(2010. 12), 34-60.
- 李炳基. “黃梅泉詩研究.” 全南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박사학위논문, 1984
- 이현희. “매천 황현론.” 『나라사랑』 46(1983. 3), 28-43.
- 韓哲昊. “『매천야록』에 나타난 황현의 역사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55(2010. 12), 7-33.
- 허경진. “매천의 죽음과 문학적 성과.” 『민족문화』 36(2011. 1), 45-70.
-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金晋郁. “梅泉 黃玿 自然詩 研究.” 『문화와융합』 39:5(2017. 10), 767-794.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당대 황현의 지인과 지식인인 김택영, 이견방, 이견승, 정만조, 김윤식, 이기, 이정직, 이성렬, 조성희, 박항래 등이 보낸 편지 등을 모은 첩으로 총 11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황현이 직접 수집하여 수록한 제5책 『手澤存焉』에 실린 안중근의 이토오 처단 및 재판과정 등의 기사 스크랩, 1919년 ‘독립선언서’ 보성사관 원본, 제6책 『慰書帖』에 실린 황현의 ‘절명시’ 경남일보 신문기사(1910.10.11.), 제10책 『四海兄弟』에 실린 한용운의 조시 등은 가치가 높음. 아울러 1907년에 황현이 직접 쓴 첩의 제목 유래와 첩을 만든 배경, 그리고 그의 동생 황원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분투의 과정 등이 잘 드러나는 귀중한 자료임.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일부 손상된 부분이 발견되므로 수리 복원 등의 보존조치가 필요함.

7) 종합의견

- 황현의 저술, 지인 간의 서간, 중요 사건 등에 대한 기록 등을 묶은 자료로서 등록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

<OOO 문화재 전문위원(2018.12.19.)>

1) 현상

- 『대월헌절필첩(帶月軒絶筆帖)』을 비롯한 매천 황현 선생 관련 자료(梅泉黃玿先生 關聯資料)는 현재 각별한 관심 속에 보존된 상태임. 다만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하나 열화가 진행되는만큼 지정 이후 보존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내용 및 특징

- 매천 황현 선생 후손가에는 황현 선생의 ‘절명시(絶命詩)’가 수록된 『대월헌절필첩(帶月軒絶筆帖)』을 비롯하여 많은 자료들이 보존되고 있음.
- 매천(梅泉) 황현(黃玿, 1855~1910) 선생의 본관은 장수(長水)로, 자는 운경(雲卿)이며 호는 매천(梅泉)임. 부친은 황시묵(黃時默)이며, 어머니는 풍천 노씨로 전라도 광양현 봉강면 서석촌에서 출생함. 어려서부터 총명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고 전하는데, 청년시절에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에 와서 문명이 높던 강위(姜緯)·이건창(李建昌)·김택영(金澤榮) 등과 깊이 교류하였음. 오래도록 과거에 뜻을 두지 않다가 1888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못해 생원회시(生員會試)에 응시해 급제(1등 제2인) 합격하였으나, 당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겪은 나라의 어지러운 현실에 낙심하여 귀향함. 이후 구례에서 작은 서재를 마련해 시문(詩文)과 역사(歷史)에 심취함.
- 1894년 동학농민운동, 갑오경장, 청일전쟁이 연이어 일어나자 급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경험하거나 견문한 바를 기록하여 『매천야록(梅泉野錄)』·『오하기문(梧下記聞)』을 저술하였고, 1905년 11월 일제가 을사조약을 강제체결하자 통분을 금하지 못하고, 당시 중국에 있는 김택영과 함께 국권회복 운동을 하기 위해 망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음.
-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나라를 빼앗기자 통분해 절명시 4수를 남기고 다량의 아편을 먹고 순절하여 조선말·대한제국기의 대표적 지식인으로서 지금까지 숭앙되고 있음.
- 매천 황현 선생 후손가에 전하는 자료를 유형별로 나누면 매천 선생의 절필첩(絶筆帖)과 유묵(遺墨), 저술(著述)인 『매천야록(梅泉野錄)』과 『오하기문(梧下記聞)』, 매천 선생의 문초(文艸)와 시고(詩稿) 그리고 관련 자료첩 등으로 구별되는데, 이를 목록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음.

連番	名稱	數量	規格(cm)	版種	形式
가	대월헌절필첩 (待月軒絶筆帖)	1책	29.5×22.5	筆寫	帖裝
나	매천야록 (梅泉野錄)	7책	24.5×23.0내외	筆寫	線裝 假綴裝
다	오하기문 (梧下記聞)	7책	24.5×23.0내외	筆寫	假綴裝
라	매천시고 (梅泉詩稿)	4책	24.5×23.0내외	筆寫	線裝
마	매천문초 (梅泉文艸)	3책	24.5×23.0내외	筆寫	線裝
바	대월헌유묵 (待月軒遺墨)	1책	29.0×28.5	筆寫	帖裝
사	자료첩 (資料帖)	11책	29.0×28.5내외	筆寫 印刷	帖裝

가) 대월헌절필첩(待月軒絶筆帖)

筆寫本. 1帖 ; 29.5×22.5cm

題籤: 帶 [待] 月軒絶筆帖

- ‘대월헌(待月軒)’은 매천 황현 선생의 뜻을 기리는 매천사(梅泉祠)내에 있는 건물로 1902년 말 선생이 구례군 간전면 만수동(萬壽洞)에서 같은 군 광의면 월곡(月谷)으로 이사온 이후의 서재 이름으로 이곳에서 1864년(고종1)부터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한 『매천야록(梅泉野錄)』과 『오하기문(梧下記聞)』이 저술되었고, 말년을 보내다가 순절하신 장소임.
- ‘대월헌(待月軒)’은 소철(蘇轍)의 만년 작품인 <대월헌기(待月軒記)>에서 따온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곳에 “집은 사람의 몸이고 달은 사람의 본성과 같다. [軒是人身 月是人性]”라는 구절이 있어 당호(堂號)에 담긴 깊은 뜻을 알 수 있음. 현판은 구안실(苟安室, 구차하게 편안함을 구하는 방)이란 서실을 짓고 학동들을 가르쳤던 창석 김창동(菖石 金昌東, 1947~)의 목적임.
- 조사본 『대월헌절필첩(待月軒絶筆帖)』은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매천 선생의 <절명시(絶命詩)>를 비롯하여, 1888년 생원시에 급제(1등 제2인)한 후 부친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서간, 경기도 포천 가채리의 최익현을 모신 영당(影堂)의 상량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또한 이 첩을 보존하기 위해 율희기원19(1925)년 백로일(9월)에 작성한 동생 황원의 집요한 포부가 담긴 소희의 글도 들어 있음.



<대월헌절필첩 내 절명시>



<대월헌절필첩 표제>

- 그런데 『대월헌절필첩(待月軒絶筆帖)』의 현 표지의 제첨(題籤)에는 ‘帶月軒絶筆帖’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함께 소장되어 있는 관련 유묵첩에서 확인되는 표제에도 ‘待月軒’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待月軒’의 오기(誤記)로 판단됨.
- <절명시(絶命詩)>는 매천 황현 선생이 8월 7일(음력) 더덕술에 아편을 타 마시고 자결하면서 남긴 시로 알려져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음.

亂離滾到白頭年 幾合捐生却未然 今日眞成無可奈 輝輝風燭照蒼天
妖氣暍翳帝星移 久闕沈沈晝漏遲 詔勅從今無復有 琳琅一紙淚千絲
鳥獸哀鳴海岳嘯 槿花世界已沈淪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曾無支厦半椽功 只是成仁不是忠 止竟僅能追尹毅 當時愧不躡陳東

- 난리통에 어느새 머리만 허예졌누, 그 몇번 목숨을 버리려건만 그러질 못했던 터, 하지만 오늘은 정녕 어쩔 수가 없으니,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만이 아득한 하늘을 비추는구나 <第1首>
- 요기가 가려서 나라가 망했으니, 대궐은 침침해지고 시간도 더디구나. 조칙도 지금부터 다시는 없을 것이니, 옥 빛 조서에 눈물이 천 가닥 만 가닥 <第2首>
- 새와 짐승도 울며 가고 바다와 산이 쩡그리니/무궁화 우리 땅이 이미 가라앉았구나.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옛 일 헤아려 보니, 글을 아는 사람의 할 일 참으로 어렵구나. <第3首>
- 일찍이 벼슬 살지 않아 조금의 공도 없으니, 내 죽음은 살신성인일까 충성은 아닐세. 내 이 죽음이 겨우 윤곡을 따를 뿐, 어려운 때를 만나 극간하다가 죽은 진동에게는 부끄럽네 <第4首>

나) 매천야록(梅泉野錄)

筆寫本. 7冊(6권 7책) ; 24.5×23.0cm 내외
 線裝 : 1,4,6책-4침, 2,3,5,7책-5침
 印文 : 매천가장(梅泉家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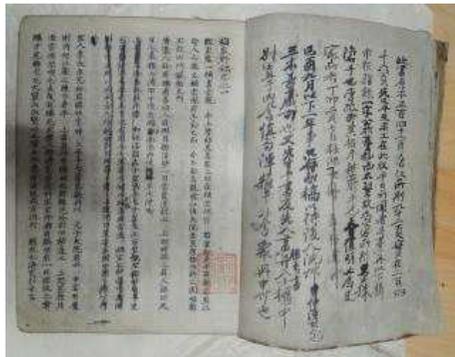
- 『매천야록』은 1864년(고종1)부터 1910년까지 4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한 저술로서 한국근대사 연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됨. 전체 6권 7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 일(卷一)만은 '권지일(卷之一)'과 '권지일 하(卷之一下)' 두 책으로 구성되어 전체 7책임. 내용은 고종 원년부터 동 30년까지의 기록은 1책 반 정도로, 고종 31년부터 융희 4년까지 17년간의 기록은 5책 반으로 되어 있음.



<매천야록 1 권수 간지>



<매천야록 1>



<매천야록 1 권수 >



<권1 인문 1>

○ 우선 『매천야록』의 각 책별 형식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表題	卷次	刊記	內容	印文
梅泉野錄 一	卷之一	起甲子 止丁亥	갑자년(1864)부터 정해년(1887)까지 기록 - 내지에 '野錄 一' 이라 적고, '55항중 9항 삭제' 그리고 '전체 342항' '96항 삭제' '실제 246항' 등과 같이 책의 개략을 밝히고 있음. - 내지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함. "책의 내용은 들은 내용을 1책으로 하고 이하의 책은 신보(申報)와 잡록(雜錄)을 참고하여 심혈을 기울여 정리함." "정묘년(1927) 2월 7일 장정함." "기유년(1909) 9월 이후는 초고 상태로 후인을 기다려 세초(洗草)하고, 삼본(三本)을 잘 보관할 것" "선생의 친필과 선조들의 글 등을 내사(內舍) 및 외사(外舍)에 보관함."	朱文方印 梅泉家藏
梅泉野錄 二	卷之一下		무자년(1888) 2월부터 갑오년(1894) 6월까지 기록 - 94항	
梅泉野錄 三	卷之二	起甲午 七月 止戊戌	갑오년(1894) 7월부터 무술년(1898)까지 기록 - 61항중 21항 삭제	
梅泉野錄 四	卷之三	起己亥 止癸卯	표지에 "歲丁未陽月始" 라고 기록 기해년(1899)부터 계묘년(1903) 까지 기록 - 49항중 13항 삭제	
梅泉野錄 五	卷之四	起甲辰 止乙巳	갑진년(1904)부터 을사년(1905) 10월까지 기록 - 47항중 17항 삭제	
梅泉野錄 六	卷之五	起乙巳 十一月 止丁未 秋七月	을사년(1905) 11월부터 정미년(1907) 7월까지 기록 - 55항중 22항 삭제	
梅泉野錄 七	卷之六	起丁未 秋八月 止庚戌 七月	정미년(1907) 8월부터 경술년(1910) 7월까지 기록 내지의 이면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 - 선형(先兄, 황현)의 유적이 세상에 전해져야 하나 간행할 수 없는 상황. - 김택영이 손수 산정을 한 점은 다행 - 황현의 유지에 따라 황원이 장정해서 후일을 기다리나 한자문화의 쇠퇴와 자신은 60세가 다 되는데 후손들이 그 뜻을 잘 이어갈지 걱정이나 훗날 간행된다면 창강의 교정본에 의거하여 한자라도 신중히 할 것. - 1909년 음력 9월이후는 초고임. - 1908년(무신) 음력 정월 이하 내용은 검토하지 못함, - 이 책의 산삭 여부는 알 수 없음.	

- 『매천야록』에는 한말에 난정(亂政)을 주도하였던 위정자의 사적인 비리·비행이라든가, 외세의 악랄한 광란, 특히 일제의 갖은 침략상을 날날이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끈질긴 저항 등이 담겨져 있음.
- 자손들은 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원본 한벌만으로는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부분(副本)을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당시 상해에 있던 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 1850~1927)에게 보내 교정을 청하였다고 전함. 따라서 창강

김택영의 산삭(刪削)을 거쳐 동생 석전(石田) 황원(黃瑗, 1870~1944)에 의해 1929년경 장정된 것으로 판단됨. 이후 책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1939년 조선사편수회가 남원읍에 거주하는 박정식(朴政植)이 소장하고 있던 야록의 부분을 얻은 뒤 일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됨.

- 『매천야록』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음.

다) 오하기문(梧下記聞)

筆寫本. 7冊 ; 24.5×23.0cm 내외

假綴裝

印文 : 매천가장(梅泉家藏)

서책시오정력행화기선수근(書冊是吾精力行華其善守謹)

- 조사 대상 『오하기문(梧下記聞)』은 1895년부터 1907년 사이에 저술된 책으로 당대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동학농민혁명 연구를 위한 기본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됨. 지금까지 친필본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만,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복사본과 복사본을 필사한 사본이 소장되어 있음. 장서각 소장본의 표제는 『기문(記聞)』이라 되어 있는데, 함께 '경술(1910) 9월 3일 대월헌에서 장정함(庚戌九月三日待月軒粧池)'이란 기록이 있어 매천 황현 선생 사후 그 저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음.
- 『오하기문』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제우의 동학 창시와 포교, 사상적 특징뿐 아니라 동학이 일반 백성들에게 급속히 확산된 배경 및 과정, 그것이 농민봉기로 비화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음.

- 조사본 『오하기문』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밝혀 후세에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던 책으로 한국근대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

라) 매천시교(梅泉詩稿)

筆寫本. 4冊 ; 24.5×23.0cm 내외

線裝

印文 : 매천가장(梅泉家藏)

서책시오정력행화기선수근(書冊是吾精力行華其善守謹)

- 조사 대상 『매천시교(梅泉詩稿)』는 1885년부터 1910년 사이에 매천 황현선생이 지은 시를 모아놓은 책으로 약 548수의 시를 수록하고 있음.
- 제1,2책은 『매천시교』, 제3책은 『매천우존(梅泉偶存)』, 제4책은 『매천시초(梅泉詩初)』라고 되어 있는데, 제1책(乙酉 丙戌)은 162수, 제2책(戊戌 庚子)은 96수, 제3책(辛丑 丙午)은 166수, 제4책은 124수가 수록됨.



<매천시교 4책>



<오하기문 7책>



<매천시교(권2) / 매천우존(권3)>

- 현재 매천 선생의 시는 창강 김택영의 주선과 교정으로 1911년에 중국 상해에서 간행된 『매천집』(7권3책) 및 『매천속집』(2권1책, 1913)에 약 440여 수가 수록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영인본, 필사본 형태로 간행되고 있는데, 금번 친필본 공개를 통하여 상세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마) 매천문초(梅泉文艸)

筆寫本. 3冊 ; 24.5×23.0cm 내외

線裝

印文 : 매천가장(梅泉家藏)

서책시오정력행화기선수근(書冊是吾精力行華其善守謹)

- 조사 대상 『매천문초(梅泉文艸)』는 매천 황현 선생이 지은 다양한 글을 모은 책으로, 주로 1880년대 이후 1910년까지 저술한 것임.
- 제1책에는 기(記), 논(論), 발(跋), 명(銘), 기사(記事), 찬(贊) 등을 수록했고, 제2책에는 서(序), 제문(祭文), 상량문(上梁文), 제3책에는 전(傳), 설(說), 행장(行狀), 소(疏), 묘갈명(墓碣銘), 묘표(墓表), 잡저(雜著), 서(書) 등이 수록되었음.



<매천문초(3책)>

- 황현 선생의 다양한 문체를 통해 그의 사상과 활동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서 평가되는데, 『매천문초』에 수록된 글의 일부는 『매천집』(1911)과 『매천속집』(1913)에도 실려 있으며, 전주대 호남학연구소에서 1984년에 간행한 『매천전집』 3, 4에 대부분 필사되어 수록된 것으로 판단됨.
- 금번 친필본 공개를 통하여 상세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바) 대월헌유묵첩(待月軒遺墨帖)

筆寫本. 1冊 ; 29.0×28.5cm

帖裝

- 조사 대상 『대월헌유묵첩(待月軒遺墨帖)』은 1911년 황원이 형의 수적을 후손들에게 전할 목적으로 첩본으로 만든 것으로, 이곳에는 매천 황현 선생의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알려주는 귀중한 문헌들이 수록되어 있음.

- 그 중에서 이견창의 『당의통략(黨議通略)』의 발문, 동학농민군의 진압 및 사후 대책을 피력한 글, 1906년에 전북 태인의병 당시 최익현을 대신하여 지은 격문, 민영환 고광순 안중근의 약사(略史), 이기(李沂)를 추모하는 제문 등은 항일운동의 정수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노력한 우국지사적 면모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내용임.



<대월헌유묵첩>

- 매천 황현 선생의 다양한 문체를 통해 그의 사상과 활동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서 평가됨.

사) 매천 황현 관련 자료첩(梅泉黃玟關聯資料帖)

筆寫 및 印刷. 10冊 ; 29.0×28.5cm 내외

帖裝

- 조사본 『매천 황현 관련 자료첩(梅泉黃玟關聯資料帖)』은 황현 선생의 저술 뿐만 아니라 동생 황원과 그의 지기 등과 주고받은 서간 등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자료로서 간략하게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음.

권차	주요 내용	비고	표지사진
제1첩 (31장)	<미상소별>(제1첩) : 황현은 젊은 시절 “養雲”이란 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음, 이견창, 정만조, 이성렬, 조성희 등 지기들이 주로 1880년대에 보낸 편지를 첩으로 만든 것임.	황현의 1899년 제첩, 담취헌 소장	
제2첩	<여건기인>(제2첩) : 1890년대에 보낸 편지를 묶은 첩. 구례군수 서택환, 박항래, 친구인 정만조 조성희 등의 편지를 모은 첩.	황현의 1899년 제첩, 담취헌 소장	

권차	주요 내용	비고	표지사진
제3첩 (21장)	<사지즉시>(제3첩) : 황현은 1907년 <미상소별> <여견기인> <사지즉시>의 제목 유래를 앞에 적어놓았음. 말미에 황현은 1927년 자신의 소회를 피력한 글을 붙임. 김택영, 이정직, 이진승, 이진방, 조성희 등의 편지를 모은 첩.	제목만 적음 (1907년 제작)	
제4첩 (22장)	<아회유하>(제4첩) : 1907년에 황현은 <아회유하>의 유래를 먼저 기록함. 박항래 이정직 정규석 등의 편지를 모아 첩을 만든 것임.	제목만 적음 (1907년 제작)	
제5첩 (27장)	<수택존언>(附 滄書, 제5) : 김택영의 편지와 壽序, 이진방이 찬한 황현묘지명,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항일활동중 장인환 전명환의 스티븐스저격사건, 이재명 의거, 안중근의 이토오 처단 및 재판과정 등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1916년에 첩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 1919년 독립선언서(보성사판) 원본 및 김지섭의거관련 조선일보 기사(1928.3.19)도 들어 있음. 특히, 황현이 황현의 手蹟을 빠짐없이 수집한 내용이 적혀 있음.	창강의 편지 부록, 송태회의 1939년 제첩, 대월헌 소장	
제6첩 (19장)	<위서첩>(제6) : 황현의 절명시가 실린 경남일보 신문기사(1910.10.11.), 황현의 순절을 기리는 제문을 모아 첩으로 만든 것. 최익현의 아들 최영조, 최익현과 전북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임병찬, 김택영, 이정직, 이진승, 조진규, 김상국 등의 제문, 이진승은 황현을 '大韓烈士'라고 호칭.	1910년 겨울 음력 10월에 첩장하여 대월헌에 소장	
제7첩 (21장)	<천애비린>(제7) : 김택영의 글이 많은 편	송태회의 1939년 제첩, 대월헌 소장	
제8첩 (19장)	<칠분기용>(제8) : 김윤식, 이기, 이진방의 글이 많은 편	송태회의 1939년 제첩, 대월헌 소장	
제9첩 (27장)	<십서사조>(제9) : 김택영, 이진방의 글이 많은 편	송태회의 1939년 제첩, 대월헌 소장	
제10첩 (43장)	<사해형제>(제10) : 한용운의 조시, 김윤식과 이진창의 「구안실기」, 홍건, 이진승, 정인보의 글	송태회의 1939년 제첩, 대월헌 소장	

- 제1첩 『미상소별(未嘗少別)』과 제2첩 『여견기인如見其人』의 경우 매천이 직접 제첩을 썼다는 내용을 표지 우측에 밝히고 있음. 즉, '광무 기해년 춘분절 매천이 제목을 쓰다 담취헌 소장 / 光武己亥春分節 梅泉題籤 澹翠軒藏'이라 되어 있음. 기해년, 즉 1899년 춘분에 황현이 제첩하여 담취헌에 소장하고 있던 첩으로 판단됨. 담취헌은 황현이 1886년부터 1902년까지 살았던 집의 당호임. 따라서 양 첩은 그의 지기들과 주고받은 글이 수록되어 있음. 제3첩 『思至則是』와 제4첩 『我懷維何』는 제목만 적혀 있는데, 첩으로 만든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황현의 절친한 지기들인 김택영 이정직 이진승 이진방 박항래 등과 주고받은 서간 등을 모아 첩으로 묶은 것임. 제5첩 『手澤存焉』 및 7첩 『天涯比鄰』, 8첩 『七分其容』, 9첩 『心犀查照』, 10첩 『四海兄弟』은 제목과 함께 표지 우측에 '기묘년 음력 10월 10일 엮어 제첩함, 대월헌 소장 / 己卯年小春 念齋題籤 待月軒藏'이라 적혀 있음. 따라서 5, 7-10첩은 1939년에 엮어 송태회가 쓴 제첩이 붙어 있으며, 대월헌에서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엮어 송태회(宋泰會, 1872-1941)는 황현과 같은 해에 진사시에 합격한 전남 화순 출신으로, 시서화 삼장에 뛰어난 인물로 황현과 절친한 사이였음. 이러한 인연으로 황현이 그에게 제첩을 부탁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 다만, 제6책 『위서첩題書帖』은 표지 우측에 '隆熙紀元四年 庚戌冬十月 待月軒藏'이라 쓰여 있는 점으로 보아 1910년 음력 10월에 제첩하고 첩으로 만들어 대월헌에 보관하였다고 판단됨.
- 『미상소별』 등 10책은 당대 내로라하는 지식인(김택영, 이진방, 이진승, 정만조, 김윤식, 이기, 이정직, 이성렬, 조성희, 박항래 등)들이 보낸 편지 등을 모은 첩. 아울러 1907년에 황현이 직접 쓴 첩의 제목 유래와 첩을 만든 배경, 그리고 그의 동생 황원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분투의 과정 등이 잘 드러나는 귀중한 자료임. 그중 『위서첩』은 황현의 순절 이후 우국지사들이 보낸 제문, 절명시를 게재한 경남일보 신문 스크랩 등을 수록한 것임. 이진승은 제문에서 황현을 '대한열사'라 지칭함. 당대 제일의 문장가들과 교류한 이 글을 통해 19세기말 20세기초의 국가적 위기와 민족의 존망, 사회 상황, 그리고 지식인들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희귀 사료라 할 수 있음.

3) 문헌자료

○ 자료

- 黃玹, 『梅泉集』(7권3책), 上海, 1911 ; 『梅泉續集』(2권1책), 上海, 1913 ; 『黃玹全集』 上·下, 아세아문화사, 1978 ; 『梅泉全集』(전5책), 전주대 호남학연구소, 1984.
- 황현, 『梧下記聞』 ; 김종익 옮김, 『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2017.
- 황현, 『梅泉野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료총서 1, 1955 ; 金濬 譯, 『完譯 梅泉野錄』(附錄 漢文本), 敎文社, 1994 ; 임형택 외 옮김, 『역주 매천야록』 상하, 문학과지성사, 2005.
- 崔昇孝 編, 『國譯 黃梅泉 및 關聯人士 文墨萃編』, 上·下, 원문(전3책), 미래문화사, 1985.
- 이병기 김영봉 공역, 『역주 매천황현시집』 상중하, 보고사, 2007.
- 김영봉 옮김, 『역주 황매천 시집 속집』, 보고사, 2010.
- 김영봉 옮김, 『역주 황매천 시집 후집』, 보고사, 2010.
- 임정기 박현순 권경렬 역, 『매천집』 1-4, 한국고전번역원, 2010.

○ 연구논저

- 외솔회 편, 『나라사랑』 46(황현 특집호), 1983.
- 기대완, 『黃梅泉詩研究』, 보고서, 1999.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 『매천 황현과 매천집』, 순천대학교 박물관 편, 2006.
- 김정환, 『梅泉詩派 研究』, 경인문화사, 2007.
- 하우봉 외, 『매천 황현과 역사서술』, 디자인 흐름, 2010.
- 최인진, 『해강 김규진과 천연당 사진관』, 아라, 2014.
- 홍영기, 『경술국치에 항거한 순국지사 황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 洪以燮, 「黃玿의 歷史意識-梅泉野錄 讀解에의 試論-」, 『淑大史論』 4, 1969.
- 林瑩澤, 「黃梅泉의 詩人意識과 詩」, 『창작과 비평』 겨울호, 1970.
- 李章熙, 「黃玿의 生涯와 思想」, 『亞細亞研究』 21-2호, 고려대, 1978.
- 李相寔, 「梅泉 黃玿의 歷史意識」, 『歷史學研究』 8, 전남대학교 사학회, 1978.
- 金昌洙, 「<甲午平匪策>에 대하여-梅泉 黃玿의 東學認識-」, 『藍史鄭在覺博士古稀記念 東洋學論叢』, 고려원, 1984.
- 김창수, 「黃玿의 『東匪紀略』 草藁에 대하여--『梧下記聞』 乙未4月以前記事의 檢討--」,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정음문화사, 1985.
- 金容燮, 「黃玿(1855-1910)의 農民戰爭 收拾策」, 『高炳翊先生回甲紀念史學論叢』, 1984 ; 『歷史와 人間의 對應』(韓國史篇), 한울, 1985.
- 琴章泰 · 高光植, 「梅泉 黃玿」, 『續 儒學近百年』, 驪江出版社, 1989.
- 黃秀貞, 「梅泉詩의 이해를 위한 傳記 研究」, 『古詩歌研究』 10, 2002.
-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김소영, 「매천 황현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홍영기, 「황현」, 『한국사 시민강좌』 41, 일조각, 2007 ; 「한말 한 지식인의 이상과 좌절-梅泉 黃玿를 중심으로-」, 『지리산과 인문학』, 브레인, 2010.
- 이의강, 「매천의 삶과 문학」, 『한문학보』 23, 2010.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조사본 『대월헌절명첩』(전1책) 등 매천 황현 가 소장 전적류는 1910년 경술국치에 항거하여 순절한 황현의 절명시를 포함하여 우국지사로서 역사가이자 시인이었던 황현의 역사관과 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임.
- 특히, 『매천야록』(전7책)과 『오하기문』(전7책)은 유교적 관점에서 저술한 당대사를 기록한 귀중한 자료로서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 망국과정을 진솔하게 기록으로 전함. 특히 의병항쟁 등을 비롯한 항일활동을 상세하게 전함으로써 『매천야록』과 함께 한국근대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
- 또한, 『매천시초』(전4책) 및 『매천문초』(전3책)는 황현의 다양한 문체를 통해 그의 사상과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대월헌유목집』을 포함한 <매천황현관련유목첩>(전11책)은 매천 선생의 유목은 물론 당대 제일의 문장가들의 친필 및 관련자료들이 모두 모여있는 매우 귀중한 희귀 사료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매천 황현의 저술과 관련인사 유목은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 전후 한국의 정치/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문화재의 등록은 가지번호 등을 사용하여 일괄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를 통하여 다양한 유물이 서로 관련되어 가치가 재정립되고 유물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리라 봄.

「매천 황현 관련 유물」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매천 황현 관련 유물
2. 소재지 : 전남 000 / 전남 000
3. 소유자 : 000
4. 조사자 의견

<000 전라남도 문화재위원(2019.2.1.)>

- 1) 조성연대
 -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 사이에 제작되거나 사용한 문물.
- 2) 현상
 - 매천 황현의 생활유물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그는 선비로서 역사가이자 시인으로 널리 文名을 떨친 우국지사였음. 따라서 그가 사용한 문방구류를 먼저 들 수 있는데, 벼루와 벼루집, 연갑硯匣, 연적硯滴, 필가筆架, 필통筆筒, 능화판菱花板, 족자추簇子錘, 地球儀(地球團) 및 지구의합地球儀函, 벼루돌이 있음. 황현이 생전에 사용했던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임.
 - 다음으로 그가 생전에 착용했던 유물로서 안경과 안경집, 호패, 합죽선과 선추, 상투관을 비롯한 머리손질기구 및 휴대용 목침, 진신(신발), 주머니 등이 있음. 그리고 도장, 패철佩鐵(나침반)과 주머니, 향로, 향합, (옥)합, 물병, 십각돌화로, 표주박, 소쿠리, 가죽제품(용도미상) 등과 같은 생활유물이 남아 있음.
 - 끝으로 교지敎旨 및 시권류試卷類 가 있음. 1888년 생원시에서 급제(1등 제2인)한 白牌 교지와 시권을 보관한 백패통이 전함. 시권은 1887년 음력 8월 전북 장수의 향시에 응시하여 장원한 시권과 1888년 3월 생원시 2소에 응시하여 생원시 1등 제2인으로 급제한 시권 등 2점인데, 보존 상태도 양호함.
 - 이와 같이 황현의 생활 유물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며, 보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임. 황현 순절 후 후손들이 각별하게 보존해왔음을 반증한 것이라 하겠음.
- 3) 내용 및 특징
 - 황현(黃玿, 1855-1910)의 자는 운경雲卿, 호는 양운養雲 매천梅泉. 그는 조선말부터 대한제국기의 대표적 역사가이자 시인으로 2,000여 수의 시를 짓고, 한국근대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자료인 『매천야록梅泉野錄』과 『오하기문梧下記聞』 등을 저술한 지식인임. 특히 경술국치 직후 순절하면서 남긴 「절명시」 4수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회자됨. 정부는 1962년에 그를 독립유공자(건국훈장 독립장)로 서훈하였음. 1909년 서울의 천연당사진관에서 촬영한 그의 사진(2점)과 그 사진을 토대로 채용신이 그린 그의 초상화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494호로 지정(2006)되어 있음.
 - 황현은 1855년에 전라남도 광양에서 출생하여 1886년에 전라남도 구례 만수동에

은거하여 주로 담취한澹翠軒에서 생활하고 구안실苟安室에서 저술과 후학 양성에 주력했음. 1902년에 구례 월곡으로 이거하여 대월헌待月軒에서 『오하기문』 『매천야록』 등을 저술하고 우국시를 지으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1910년 경술국치에 항거하여 순국함.

- 그는 20대의 나이에 만권의 책을 독파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저술에 전념했음. 하지만 그는 사시斜視로 인한 근시여서 20대 이후 안경을 착용했으며, 몸도 허약하여 병치레가 많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재능과 뛰어난 암기력으로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렸음.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을 더해 주옥같은 시와 뛰어난 저술을 남겼고, 1888년에는 생원회시에 급제(1등 제2인)하였음. 그의 저술을 비롯한 유품은 동생인 석전 황원(石田 黃瑗, 1870-1944, 독립유공자로서 애족장 추서)을 비롯한 후손들의 정성과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왔음.
- 그의 생활유품은 크게 문방구류, 착용 유물, 생활용품, 교지 및 시권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첫째 문방구류는 벼루와 벼루집, 연갑, 연적, 필가, 필통, 능화판, 족자추, 지구의(지구단) 및 지구의합 등임. 둘째 그가 착용한 유품은 안경 및 안경집, 호패, 합죽선과 선추, 상투관을 비롯한 머리손질 기구 및 휴대용목침, 진신(신발), 주머니 등임. 셋째 생활용품으로는 도장, 패철(나침반) 및 주머니, 향로, 향합, (옥)합, 물병, 십각돌화로, 표주박, 가죽제품(용도미상), 소쿠리 등임. 끝으로 교지 및 시권류는 1888년 생원시 급제(1등 제2인) 교지, 교지통(백패통), 시권 2점(1887년 향시, 1888년 생원시) 등임.

- (문방구류) 벼루와 벼루집, 연갑, 연적, 필가, 필통, 능화판, 족자추, 지구의 및 지구의합, 벼루돌.

· 벼루(3점) 벼루집(2점) 연갑(1점) 연적(1점) : 황현이 직접 지은 명銘 7수가 『매천집』 4(한국고전번역원, 2010)에 수록(121-131쪽)되어 있으며, 그 중 3수가 이번 조사한 벼루에 새겨져 있음(아래에 벼루명을 제시함). 따라서 매천이 직접 명을 짓고 사용한 벼루로 판단됨.

(1) <『매천집』 권7 / 명(銘) / 벼루에 대한 명 [硯銘, 1909] : 『매천집』 4, 130쪽 문예의 발 날로 갈면 추수 풍성하리니 / 禾+丸(藝)圃日關秋有穫
즉묵에 봉하여진 네 공적 가상쿠나 / 余嘉乃績封卽墨

(2) 벼루에 대한 명 [硯銘] : 『매천집』 4, 128쪽
바탕이 올곧으며 아름다운 게 / 貞固含章
덕을 지닌 군자의 빛과 같으니 / 君子之光
오래도록 진실로 좋아하리라 / 其壽允臧

(3) 주연에 대한 명 [朱硯銘] : 『매천집』 4, 131쪽
검은 먹 가는 게 벼루인 줄 내 알지만 / 硯吾知其磨墨
때로는 붉은 먹도 갈 때 있나니 / 有時乎研朱
검은 것만 받드는 유자 아님을 알겠네 / 蓋曰非尙玄之儒

- 그리고 2개의 버루집은 해당 버루에 맞춰 짜맞춤한 것으로 판단되며, 1개의 연갑 역시 먹감나무와 오동나무를 덧대어 만든 제품으로 당시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1개의 연적 및 버루들도 함께 보존되어 온 점으로 보아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능화판(1점)** : 황현은 일생동안 손수 필사한 책이 100여 권이나 되었고, 그것을 모두 정성들여 필사하고, 정성을 다해 장정을 했다고 그의 동생 황원은 기록하고 있음. (‘一生手鈔書冊百餘卷 皆精鈔粧池精鑿’ ; 황원, 『선형매천공사행영록』 ; 『매천집』 1 ; 『매천전집』 3, 41쪽). 따라서 이 능화판 역시 황현이 장정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지구의와 지구의합(각 1점)** : 지구의는 일본 東京의 樂善堂에서 제작한 것으로, 지구의합에 쓰인 내용으로 보아 1907년 음력 4월에 구매한 것으로 판단됨. 황현은 이 지구의으로써 지구의 형태와 지리적 지식을 축적하여 1900년대 후반 세계정세의 파악과 구미의 근대지식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됨. 그 결과 그는 1908년 이후 실력을 양성하자는 애국계몽운동 노선을 적극 실행하고자 노력했음.
- 현존의 설명에 따르면 필가와 필통, 연적, 족자추, 버루들 역시 황현의 유품이라 하여 선대로부터 대를 이어 보존해왔다고 함.
- **(착용 유물) 안경과 안경집, 호패, 합죽선과 선추, 상투관을 비롯한 머리손질 도구 및 휴대용목침, 진신(신발), 주머니 등.**
- **안경(3점)과 안경집(5점)** : 동생 황원은 그의 형이 근시인데다 오른 눈의 사시로 인해 시력이 좋지 않아 25.6세부터 평생 안경을 착용했다고 기록함(『眼短視而右眼尤拂 自二十六常着眼鏡』 ; 『매천전집』 3, 55쪽). 1909년에 촬영한 사진과 그것을 토대로 1911년에 그린 초상화에도 안경을 착용한 모습임. 그렇다면 그는 적어도 1880년을 전후하여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판단됨. 그가 1878년에 처음으로 서울을 다녀왔으니 이 시기를 전후해서 안경을 구입, 착용한 것으로 추정됨. 현존하는 안경집 중에서 세브란스병원 안경집으로 판단하건대, 1904년 말 서울역 앞에 신축된 세브란스병원에서 안경을 맞춘 것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안경과 안경집 역시 황현 생전에 착용했던 것으로 판단됨.
- **호패(2점)** : 부친 시목과 황현의 호패.
- **합죽선과 선추(각 1점), 상투관을 비롯한 머리손질구 일절 및 휴대용목침(1점), 진신(1켄레), 주머니(1점)** 등도 소장자는 선대로부터 전승해온 매천의 유품이라고 함.
- **(생활용품) 도장(5점과 2세트), 패철(나침반) 및 주머니(각 1점), 향로(1점), 향합(1점), (옥)합(2점), 물병(1점), 소쿠리(1점), 십각들화로(1점), 표주박(2점), 가죽제품(용도미상, 1점)** 등. 이 중 도장은 ‘黃玿’ 및 ‘梅泉’이라 印刷된 것이 각 2점으로 황현이 직접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됨. 다만, ‘梅泉家藏’과 ‘書冊是吾精力所萃其善守護’라고 인각된 도장은 동생 황원이 제작하여 『매천야록』 『매천시초』 『매천문초』 등 첫번째 속지에 적었음. 이는, 황원이 대를 이어 서적의 보존을

잘 하 황현의 유언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와 다짐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됨. 패철을 비롯한 나머지 유품들에 대해서도 소장자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던 매천의 유품이라고 말할.

- **(교지 및 시권류) 1888년 생원시 급제(1등제2인) 교지(1점), 백패 교지통(흔히 ‘백패통’, 1점), 시권(2점).**

- **백패통** : 황현은 1888년 생원시 급제(1등제2인)후 받은 교지와 시권을 보존하기 위한 백패통을 만든 후 집안에서 대대로 보존하라는 아래 내용의 명을 지었음 (『매천집』 4, 125쪽). 그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백패통에 대한 명 [白牌筒銘] >
 백패에 붉은 시권 함께 있는데 / 維白牌兼硃券
 너는 어찌 독 안에 담겨 있었나 / 汝胡爲乎積而蘊
 자손들이 이 가보 삼가 지켜서 / 愚子孫守之謹
 길이 집안 문헌으로 보존하리라 / 一家百年資文獻

- 이와 같이 황현은 교지와 시권을 함께 보관할 백패통을 제작하고, 그 내용을 백패통에 새겨 자손대대로 보존할 것을 기대하며 지은 명임. 이로써 볼 때 백패통은 교지와 시권을 보관할 목적으로 황현 당대에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이상과 같이 매천황현생활유품은 편의상 문방구류와 착용유물, 생활용품, 교지와 시권류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이 유품들은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까지 살았던 역사가이자 시인으로 살았던 선비 황현의 일상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음. 아울러 황현의 순국이후 110년째 이러한 유품을 보존하기 위해 4대에 걸친 후손들의 각고의 노력을 파악할 수 있음. 앞서의 순서대로 유품목록을 간단히 만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부록 참조).

4) 문헌자료

- 자료
 - 黃玿, 『梅泉集』(7권3책), 上海, 1911 ; 『梅泉續集』(2권1책), 上海, 1913 ; 『黃玿全集』 上·下, 아세아문화사, 1978 ; 『梅泉全集』(전5책), 전주대 호남학연구소, 1984.
 - 崔昇孝 編, 『國譯 黃梅泉 및 關聯人士 文墨萃編』, 上 下, 원문(전3책), 미래문화사, 1985.
 - 임정기 박헌순 권경렬 역, 『매천집』 1-4, 한국고전번역원, 2010.
- 연구논저
 - 최인진, 『해강 김규진과 천연당 사진관』, 아라, 2014.
 - 홍영기, 『경술국치에 항거한 순국지사 황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 李章熙, 「黃玿의 生涯와 思想」, 『亞細亞研究』 21-2호, 고려대, 1978.
 - 琴章泰 · 高光植, 「梅泉 黃玿」, 『續 儒學近百年』, 麗江出版社, 1989.
 - 黃秀貞, 「梅泉詩의 이해를 위한 傳記 研究」, 『古詩歌研究』 10, 2002.
 - 홍영기, 「황현」, 『한국사 시민강좌』 41, 일조각, 2007 ; 「한말 한 지식인의 이상과 좌절-梅泉 黃玿을 중심으로-」, 『지리산과 인문학』, 브레인, 2010.
 - 이의강, 「매천의 삶과 문학」, 『한문학회』 23, 2010.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황현은 20대의 나이에 1만권의 책을 읽었노라 자부할 만큼 책을 즐겨 읽었음. 이에 따라 그는 문방구류를 많이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증표가 바로 벼루라 할 수 있음. 벼루명(硯銘)을 7수나 남긴 점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그 중에 벼루명이 새겨진 벼루 3개가 현전하고 있음. 그는 심한 근시에다 오른눈 사시였던 관계로 20대 중반이후 안경을 착용했는데 관련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그가 착용했던 머리 손질 도구와 신발, 그리고 도장, 패철, 향로, 물병, 돌화로, 표주박 등 그가 사용한 유물들은 19세기말 20세기초 역사가이자 시인이었던 선비의 생활상을 복원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자료임. 아울러 당시 선비들이 지향했던 관계 입문의 첫걸음인 과거시험과 관련된 시권과 교지 등도 잘 보존되어 있음. 따라서 이 유물들은 순절한 우국지사의 일상을 같이 보존하고 이 시기 선비들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매천 황현의 생활유품은 크게 <매천황현생활유품>으로 지정하고, 그것을 4개(혹은 2개) 주제로 나누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예컨대, 1) 문방구류(<부록> 1-11항), 2) 착용유물(<부록> 12-18항), 3) 생활유품(19-28항), 4) 교지 및 시권류(29-30항) 등으로 나누어 지정하면 좋지 않을까 함. 만약 2개 분야로 나눈다면 1) 교지·시권 및 문방구류(1-11, 29-30항), 2) 생활유물(12-28항)으로 나누어도 괜찮다고 판단됨. 이는 물론 위원회의 논의를 종합하여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이 유품들은 그의 저술과 함께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 부록 1. 매천황현생활유품목록표 1부.
2. 황현 사진 1부.

<부록1> 매천황현생활유품목록표

연번	유물명칭 (크기)	수량	유물사진1	유물사진2	비고
1	벼루	1			OOO
2	벼루	1			OOO
3	벼루 (길이 16/폭 11.5)	1			OOO
4	연갑	1			OOO
5	연적	1			OOO
6	필가 (길이 6/ 높이 8)	1			OOO
7	필통 (길이16.2/지름15.5)	1			OOO
8	능화판 (가로47×세로21/높이 3.2)	1			OOO

연번	유물명칭 (크기)	수량	유물사진1	유물사진2	비고
9	족자추 (길이 6/ 둘레 12)	2			000
10	지구의 및 지구의합	각 1			000
11	벼루돌 (가로 23.2×세로 23.2/높이 4.2)	1			000
12	안경 (1) 실다리 : 12, 안경알지름 4 (2) 겹경 : 11.2, 안경알지름 4 (3) 우각 : 10.5, 안경알지름 3.5)	3			000
13	안경집 (1) 어피(혹) : 지름 8/ 두께 1.8 (2) 어피(혹) : 지름 7.5/ 두께 1.3 (3) 제중원 : 길이 13.6/ 폭 4.8 (4) 어피 : 길이 16.2/ 폭 7.6 (5) 어피 : 길이 18.5/ 폭 8.2)	5			000
14	호패 (1) 길이 10 (2) 길이 10)	2			000
15	함죽선 (가로 43.4 세로 29.5) 선추() 길이 9.2/ 전체길이: 27(장식포함) 2) 길이 8.2)	각 1, 2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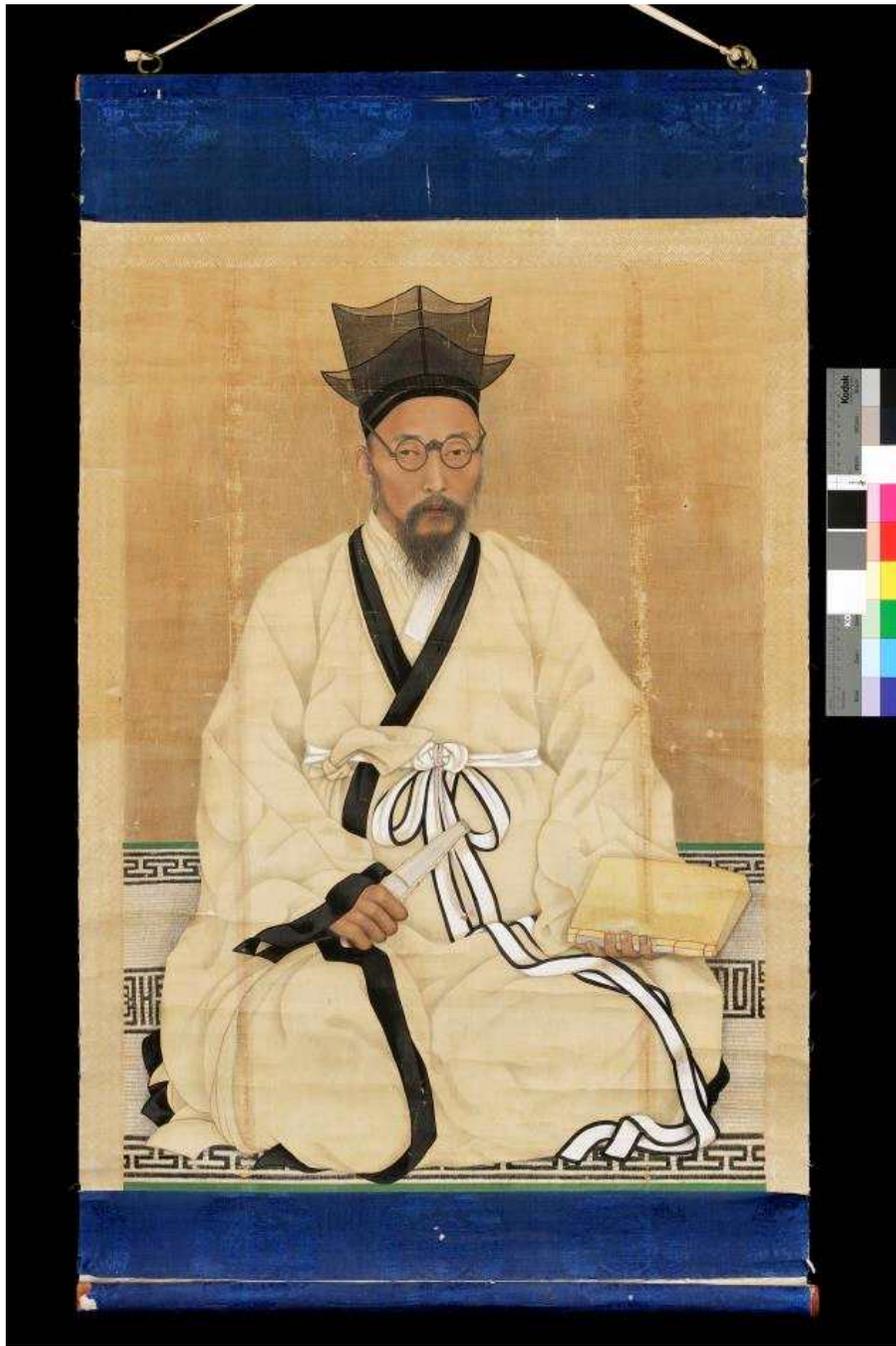
연번	유물명칭 (크기)	수량	유물사진1	유물사진2	비고
16	상투관(추가) 갓솔(1) 얼레빗(1) 참빗(1) 동곳(2) 휴대용목침				000
17	진신 (길이 25.5/폭 7)	1			000
18	주머니 (가로 11.5/세로 12.5)				000
19	도장	7			000
20	패철 및 주머니	각 1			000
21	항로	1			000
22	항함	1			000
23	(옥)함 (지름 7.3x높이 5.3, 지름 7x높이 3.4)	2			000

연번	유물명칭 (크기)	수량	유물사진1	유물사진2	비고
24	물병 (길이19×18.5)	1			000
25	소쿠리 (길이18.5/폭15/높이 7)	1			000
26	삼각돌화로 (지름16/높이 15)	1			000
27	표주박 (길이 12.5/길이 10.5)	2			000
28	가족제품 (지름 6/ 두께 2)	1			000
29	교지와 백폐통	각 1			000
30	시권	2			000

<부록2> 보물 제1494호 「황현 초상 및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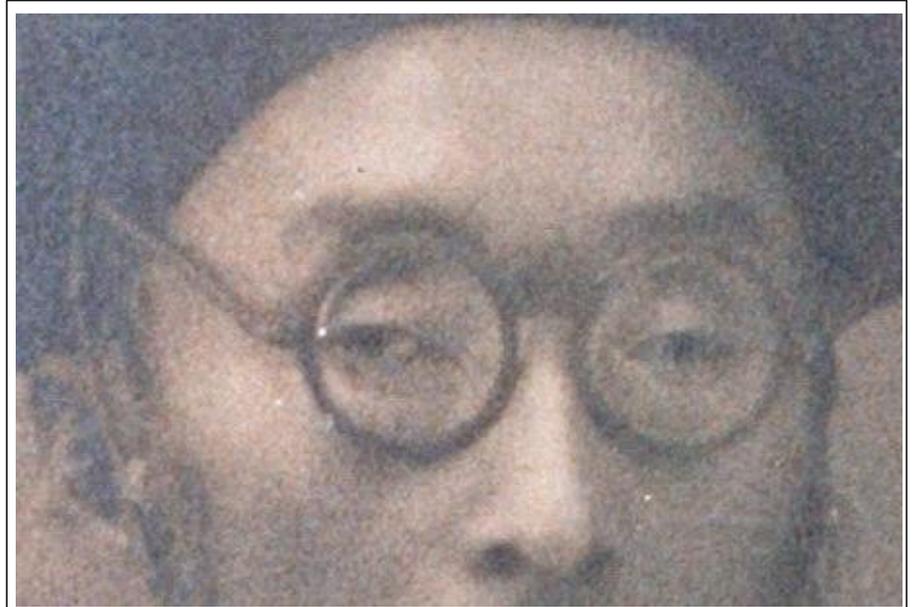


<황현 사진>



<황현 초상>

※ 사진, 안경 비교



<OOO 온양민속박물관 상임고문(2018.12.20./2019.2.1.)>

1) 조성연대

-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 사이에 제작되거나 사용한 문물.

2) 현상

- 황현(1855-1910)의 생활유물(민속)은 문방구류, 신변잡구로 나눌 수 있음. 문방구류로는 벼루와 연갑, 연적, 필통, 필가, 능화관, 석판 등이 있음. 매천이 생전에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존상태가 양호함. 다음으로 신변잡구로는 매천의 사진(1909년 촬영)에서 보듯이 안경과 그리고 안경을 보관할 수 있는 안경집, 호패, 합죽선, 선추, 상투관, 표주박, 굽돌화로 지구단(地球團), 자라물병, 패철 등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며, 현존 OOO에 의해 그동안 잘 보존되어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임

3) 내용 및 특징

- 황현(1855-1910)은 조선 후기의 우국지사로서 학자이다.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피탈이 되자 경술국치를 통분하며 절명시(絶命詩) 4수를 남기고 음독 순국하였고 매천야록(梅泉野錄), 오하기문(梧下記聞) 등 많은 저서를 남겼음. 1909년 서울 천연당(해강 김규진이 설립한 최초의 사진관)사진관에서 촬영한 2점의 사진과 그 사진을 바탕으로 채용신(1850-1941)이 그린 그의 초상화는 국가지정 보물 제 1494호로 지정되어 있음.
- 그의 생활유물(민속)은 크게 문방구류(文房具類)와 신변잡구(身邊雜具)로 나눌 수 있음.
- 문방구류는 벼루와 연갑, 연적, 필통, 필가, 능화관, 석판 등이 있음. 매천이 생전에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벼루에 황현이 직접 지은 3수가 조사한 벼루에 새겨져 있음. 그 벼루를 보관하는 벼루집은 오동나무로 벼루에 꼭 맞게 제작해 보관하고 뚜껑은 없고, 그 벼루를 연갑(硯匣)에 다시 넣어 보관하는데 오동나무와 먹감나무를 덧대어 두 개의 공간을 나누어 한쪽에는 벼루를 보관하고 다른 한쪽은 붓, 연적, 먹 등을 넣어 두는 공간 나누어 만들었음.
- 다음으로 신변잡구로는 매천의 사진(1909년 촬영)과 보물로 지정된 영정에 착용한 안경이 확인됨. 그리고 안경을 보관할 수 있는 안경집에 세브란스 호스피탈 서울 코리아라는 명문이 금박으로 찍혀 있음. 1904년 말 서울역 앞에 신축된 세브란스병원에서 안경을 구입한 것을 알 수 있음. 호패, 합죽선, 선추, 상투관, 표주박, 굽돌화로 지구단(地球團), 지승자라물병, 패철, 능화관 등이 현존 OOO에 의해 잘 보관되어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임. 특히 지구단은 일본 동경낙선당(東京樂善堂)에서 제작한 것으로 1900년대 후반 세계정세를 파악하고 지리를 익히는데 도구로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상과 같이 황현 생활유물(민속)은 문방구류와 신변잡구로 나누어 조사 검토하였음. 이 유품들은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까지 살았던 조선 후기의 우국지사인 매천의 일상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음. 황현의 순국 110년째 맞는 시점에서 이러한 소중한 유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련유품을 모두 일괄 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유물 명칭과 수량, 크기, 재질 등은 별지목록 첨부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생몰년이 보여주듯 황현(黃玿, 1855-1910)은 조선후기의 학자로서 매천야록(梅泉野錄), 오하기문(梧下記聞) 등 많은 저서를 남기고 격동을 거쳐 망국으로 귀결된 구한말 삶을 마감하는 절명시(絶命詩) 4수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서 조선의 마지막 선비로서 의리정신을 다했음. 학자로서 문방구류와 신변잡구 등을 생활유물들이 현존 OOO에게 전세(傳世)되었는데 보존상태도 양호함. 그중에 벼루 에 벼루명(硯銘)이 새겨진 벼루가 3점이 잘 보존되어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회소까지 있음. 또한 그가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안경, 안경집, 낙관, 패철, 향로, 향합, 돌화로, 표주박, 진신 등 만든 솜씨나 기법이 매우 우수하고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높고, 당시 선비들의 시대상과 물질문화의 생활상을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관련유물을 일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음.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황현의 유품은 “매천 황현 생활유물”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보존하고, 관련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1)문방구류 2)신변잡구 3)교지 및 시권류로 분류하고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위탁받은 기관에서 특별전시를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부 유물은 보존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종합의견

- 매천 현존 OOO의 전세傳世 유물로 물질문화 연구와 학술적 가치가 높고 민속유물로 중요한 자료임.
- 매천 황현(1855~1910)의 현존 위탁일괄 유물로 시대성과 민속유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줌
- 서울의 천연당天然堂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이 보물 제1494호로 지정된 근거가 뒷받침 하고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함.
- 조사된 매천관련 민속유물(연번1~34)은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만들어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황현 관련유물로 일괄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역사적으로 상징적 가치가 있는 민속유물로 등록 가치 있음

* 별지목록(1-34)

연번	유물명칭	수량	크 기(cm)	재 질	비 고
1	안경	3점	안경길이는 다리를 제외한 길이 1) 실다리 : 12, 안경알지름4 2) 검정 : 11.2, 안경알지름4 3) 우각 : 10.5, 안경알지름3.5	경주남석 무소뿔 쇠뿔	
2	안경집	5점	1) 어피(혹) : 지름8/ 두께1.8 2) 어피(혹) : 지름7.5/ 두께1.3 3) 체중원 : 길이13.6/폭4.8 4) 어피 : 길이16.2/폭7.6 5) 어피 : 길이18.5/ 폭8.2	교피鮫皮	
3	도장	1점	지름 4.5 높이 3.3	회양목	
4	선추	2점	1) 길이9.2/전체길이:27(장식포함) 2) 길이 8.2	회양목	
5	합죽선	1점	길이(펼친 상태) 가로 43.4 세로 29.5	대나무	
6	담배쌈지	1점	가로 11.5/세로 12.5	한지(춤치기 벌로만들)	
7	표주박	2점	1) 길이 12.5 2) 길이 10.5	나무, 옷칠	
8	합	1점	지름 7.3/ 높이 5.3	적납석	
9	향합	1점	지름 7/ 높이 3.4	적납석	
10	죽자추	2점	길이 6/ 둘레 12	적납석	
11	필가	1점	길이 6/ 높이 8	백동	
12	벼루·집	1점	길이 16/폭 11.5	남포석·나무	
13	상투관 갓술(1) 알레빗(1) 찰빗(1) 동곳(2) 휴대용목침	7점	1) 상투관 : 길이6/높이4 2) 갓술 : 가로 4.5 세로 3.2 높이 6.8 3) 알레빗 : 가로9/세로5 4) 찰빗 : 가로10.5/세로6.5 5) 동곳 : 길이4.8 6) 동곳 : 길이3.5 7) 휴대용목침 : 11.5×14.2/높이7	종이,옷칠 말총 산유자 대나무 백동 백동 소나무	
14	표주박	1점	지름 6/ 두께 2	종이,옷칠	
15	진신	1족	길이 25.5/폭 7	쇠가죽	
16	지승자라병	1점	길이19×18.5	질흙,종이	
17	필통	1점	길이16.2/지름15.5	오동나무	

연번	유물명칭	수량	크 기(cm)	재 질	비 고
18	소쿠리	1점	길이18.5/폭15/높이 7	초고草藥	
19	곰돌화로	1점	지름16/높이 15	남석蠟石	
20	능화판	1점	가로47×세로21/높이 3.2	산벚나무	
21	석판(石板)	1점	가로23.2×세로23.2/높이 4.2	남포석	
22	호패	2점	1) 길이 10 2) 길이 10	회양목	
23	지구단 (地球團)	1점		종이, 인쇄,금속, 나무	
24	지구단 상자	1점		종이	
25	벼루	1점		남포석	
	벼루 뒷면				
26	도장	1건 2점		무소뿔	
	도장 해체 땃 날인				
27	낙관	3점	매천(梅泉) 매천가장(梅泉家藏) 황현지인(黃鉉之印)	적석	
28	벼루	1점		남포석	
	벼루 옆면 (1)				
	벼루 옆면 (2)				
	벼루 뒷면				
29	벼루집 (硯匣)	1점		먹감나무, 배나무	
	벼루집내부			오동나무	
30	연적(硯滴)	1점		사기	
31	향로	1점		놋쇠	
32	향합	1점		놋쇠	
33	패철	1점		산유자나무	
34	패철 주머니	1점		모직물	

<OOO 문화재 위원(2018.12.20./2019.2.1.)>

- 1) 조성연대
 - 19세기 후반 ~ 1910년
- 2) 현상
 - 매천 황현(1855~1910)이 사용한 유품. 호패가 남아 있고 유품은 크게 문방구류(벼루, 벼루집, 벼루돌, 도장, 硯匣, 硯滴, 筆架, 筆筒, 菱花板, 簇子錘, 地球儀 및 地球儀函)와 생활 유물(안경, 안경집, 호패, 합죽선과 선추, 머리손질용품, 신발, 향로, 향합, 물병, 표주박, 화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함.
- 3) 내용 및 특징
 - 매천 황현이 생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유물임. 지방에 머물던 유학자가 사학자적인 입장에서 당대의 사건을 기록하여 『매천야록』 등을 남겼으며, 단순히 학자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기록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애국자로서의 의연함을 지닌 인물임. 벼루, 벼루집, 연갑, 연적, 도장, 필가, 필통, 능화판, 지구의 및 지구의합 등의 문방구류는 그의 학자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임. 안경, 안경집, 호패, 합죽선, 선추, 머리손질기구, 신발, 패철, 향로, 향합, 물병, 돌화로, 표주박 등은 당시 매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임.
 - 도장을 비롯한 벼루, 벼루집, 연갑, 연적, 필가, 필통, 능화판, 족자추, 지구의 및 지구의합, 벼루돌 등 문구류는 황현이 직접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벼루 3점의 바닥 혹은 옆면에 매천이 지은 시와 호가 새겨져 있음. 특히 흥미로운 유품은 지구의인데, 이 지구의는 일본 東京의 樂善堂에서 제작한 것이며 ‘丁未四月’로 구입 시기를 함의 내부에 표기해두었음. 매천은 지방의 유학자였지만 근대문물에 대한 관심은 물론 세계 정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임.
 - 생활 유물 중에는 화로, 합죽선, 선추, 표주박처럼 매천이 사용하던 것이라고 확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유물의 제작연대 혹은 유통 시기가 대체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며 그의 현손이 소장하고 있어 진정성이 있음. 단, 3점의 안경 중에서 여성용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포함되어 있음.
-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본 조사 유물들은 매천의 유학자이자 우국지사로서의 삶이 녹아 있는 유물임. 순국 이후 후손들이 보존해왔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크며, 제작연대가 19세기 후반에서 늦어서도 1910년이라는 하한선이 있는 유물로, 조성연대가 비교적 분명한 시대양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속학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음.
 - 황현은 20대의 나이에 1만권의 책을 읽었노라 자부할 만큼 책을 즐겨 읽었음. 이에 따라 그는 문방구류를 많이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증표가 바로 벼루라 할 수 있음. 벼루명(硯銘)을 7수나 남긴 점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그 중에 벼루명이 새겨진 벼루 3개가 현전하고 있음. 그는 심한 근시였다 오름눈 사시였던 관계로 20대 중반이후 안경을 착용했는데 관련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그가 착용했던 머리 손질 도구와 신발, 그리고 도장, 패철, 향로, 물병, 돌화로, 표주박 등 그가 사용한 유물들은 19세기말 20세기초 역사가이자 시인이었던 선비의 생활상을 복원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자료임. 아울러 당시

선비들이 지향했던 관계 입문의 첫걸음인 과거시험과 관련된 시권과 교지 등도 잘 보존되어 있음. 따라서 이 유품들은 순절한 우국지사의 일상을 길이 보존하고 이 시기 선비들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 5) 종합의견
 -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

<OOO 연세대학교 연구교수(2018.12.20./2019.2.1.)>

- 1) 조성연대 : 19C 후반 ~ 1910년 전반
- 2) 현상
 - 매천 황현 관련 유품은 벼루와 연적 등 문방구류, 안경과 호패 등 생활용품, 향호와 향합 등 생활유물, 기타 科擧 관련 유품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됨. 이들 모든 유품은 대체로 보존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임.
- 3) 내용 및 특징
 - 매천 황현 관련 유품은 구한말의 순국지사인 매천 황현(黃玿, 1855-1910)이 사용하거나 소장하거나 하사받은 물품들을 말함. 황현의 유품은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까지 근대문명 도입기 및 국망기의 역사를 살아간 역사가이자 재야선비인 황현의 일상과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음.
 - 매천 황현 관련 유품에는 문방구류(벼루와 벼루집, 硯匣, 硯滴, 筆架, 筆筒, 菱花板, 簇子錘, 地球儀(地球團) 및 地球儀函, 벼루돌 등), 생활용품(안경과 안경집, 호패, 합죽선과 선추, 상투관, 머리손질기구 및 휴대용 목침, 진신[신발], 주머니 등), 생활유품(도장, 佩鐵과 주머니, 향로, 향합, (옥)합, 물병, 십각돌화로, 표주박, 소쿠리, 가죽제품 등), 과거 관련 유품(敎旨, 試卷類, 백패통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매천 황현은 조선말부터 대한제국기에 걸쳐 재야사가로 유명한 인물임. 그가 구한말 역사를 재야사가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정리한 『梅泉野錄』과 『梧下記聞』을 남겼는데, 이들 서책들은 한국근대사 연구의 필독서 가운데 하나임. 아울러 황현은 왕성한 저작활동을 전개하여 2천여수의 한시를 남겼으며, 대한제국기에 전남 구례에 호양학교를 세워 후진양성 활동을 펼쳤고, 그리고 경술국치 직후 일제의 한국 강제병단에 항거하여 자진하여 순절하면서 「절명시」 4수를 남겼음. 한마디로 황현은 국망기 및 근대문명 도입기 애국적 지식인의 면모를 잘 나타낸 인물임.
 - 대한민국정부는 황현의 공로를 감안하여 1962년 황현을 독립유공자(건국훈장 독립장)로 지정하였음. 아울러 1909년 서울의 천연당 사진관에서 촬영한 황현의 사진(2점)과 그 사진을 토대로 채용신이 그린 황현 초상화가 보물 제1494호로 지정되어 있음.
 - 황현은 구한말의 역사에서 매우 비중이 높은 인물이며,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직접 사용하거나 소장하거나 하사받은 물품이나 유품 등은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OOO이 위탁 보관하고 있는 황현의 유물 및 물품들과 황현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황현의 물품 및 유품들은 근대문화재로 일괄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함.

- 4) 문헌자료
- 이병기, 『매천 황현 산문 연구』, 보고서, 1995.
 - 이병기, 『매천 황현 詩 연구』, 보고서, 1995.
 - 김영봉 『매천 황현의 시와 사상』, 보고서, 2017.
 - 홍영기, 『경술국치에 항거한 순국지사 황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 홍영기, 『황현』, 『한국사 시민강좌』 41, 일조각, 2007.
-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황현은 조선 말기 및 대한제국기에 재야선비로서 文名을 떨친 인물임. 황현이 남긴 『梅泉野錄』과 『梧下記聞』은 한국근대사 연구의 필독서로 인정받고 있으며, 왕성한 시작활동을 전개하여 2천여수의 한시를 남겼고, 대한제국기에 전남 구례에 호양학교를 세워 후진양성 활동을 펼쳤고, 그리고 경술국치 직후 일제의 한국 강제병탄에 항거하여 자진하여 순절하였음. 한마디로 황현은 국망기 애국적 지식인의 면모를 잘 드러낸 인물임. 이러한 점에서 황현이 남긴 문방구류, 생활용품, 생활유품 및 科學 유품 등은 근대문화재로 지정할 가치 있다고 판단함.
-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황현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황현 선생 유품들을 정밀 조사하여 이들 모두를 000과 같이 안전한 공공기관에 보관, 전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함.
- 7)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3. 「윤희순 ‘의병가사집」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윤희순 ‘의병가사집」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8.2.26.)를 거쳐 등록 예고한 「윤희순 ‘의병가사집」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판종	형식	제작 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윤희순 ‘의병가사집’	1책	30.0×28.4cm	필사본	절첩장	1897년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장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 추진경과

- 항일의병 관련 문화재 등록 확대 자문회의 개최(‘18. 7. 20.)
 - 동산(動産) 분야 조사대상 15건 선정(1차 조사대상 8건)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8. 12. 12.)

(3) 등록예고 : 2019. 3. 11. ~ 4. 9.(30일간) * 의견없음

(4)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 위원(2018.12.12.)

- 완전한 한글 의병 가사라는 점, 가사의 작가가 여성이라는 점, 조선 후기와 개화기를 잇는 가사 형식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점, 한말의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개화기,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000 경기대학교 교수(2018.12.12.)

-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로 알려진 윤희순(1860~1935)이 쓴 의병가사집으로 일제강점기 항일 의병자료의 하나로서 가치가 크며, 의병활동과 독립운동 및 당시 상황적 역사 고찰의 중요 기록자료로서 가치가 큼.
- 내용적으로 근대 가사, 의병가사 및 한글표기방식 등 국어학적 및 국문학적 연구 등의 중요 기록 자료로서의 가치도 크며, 특히 원본 필사본으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000 연세대학교 연구교수(2018.12.12.)

- 1) 한말 의병운동 당시 의병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은 순한글 가사이며, 2) 여성 항일운동가가 의병활동의 일환으로서 지은 항일 문건이며, 3) 개화기의 민간의 한글 사용 양태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4) 한말 의병운동사에서 치열하게 활동한 대표적인 여성 의병의 작품이며, 5) 대한제국 멸망 후에도 중국으로 망명하여 아들들과 함께 항일활동을 벌이다가 서거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문집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희소성이나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윤희순 ‘의병가사집’」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윤희순 ‘의병가사집’
2.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박물관
3. 소유자 : 강원대학교 박물관장
4. 조사자 의견

<000 문화재 위원(2018.12.12.)>

- 1) 현상
 - 붓으로 종이에 적은 낱장 가사들과 여러 가지 글들을 종이책에 붙여 문집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문집의 종이 많이 변질되어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임.
- 2) 내용 및 특징
 - 유희순(1841-1913): 의병장, 의병장 유인석의 중형
 - 1897년 「고병정 가사」를 통해 왜적을 물리치는 바른 도리를 24개를 내걸고 조리있게 설득하고자 함.
 - 1907년에는 한문으로 된 「격고문」을 통해 상하귀천이 함께 일어나면 좌절을 이유가 없다고 설파함.
 - 작가 윤희순(尹熙順, 1860-1935) : 의병장 유희순의 며느리
 - 1911년 유희순과 함께 만주로 망명, 이태후 1913년 유희순이 세상을 떠났음. 이후 유희순의 아들이자 윤희순의 남편인 유제원이 남은 과업을 이루려다 1915년 사망. 그 뒤에는 두 아들이 직접 독립운동에 나서서 삼대에 걸쳐 투쟁을 함. 윤희순 1923년에 <신세타령>을 남기기도 함.
 - 의병가사의 유래 - 1895년 강릉에서 처음 비경한 의병장 민용호(1865-1922)가 강원도와 함경도에서 싸워 여러 차례) 승리한 경과를 <관동창의록>에 남겼는데, 여기에 최초의 의병가사가 실려있었음. 한문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격문을 접하기가 어려운 한글로 의병투쟁의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음. 의병가사는 이렇게 해서 시작됨. 이후 의병가사는 유희순, 전수용, 이석용 등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창작됨.
 - 『의병가사집』의 내용
 - ① 「봉어중」 - 가사
 - ② 「병정노력」 - 가사
 - ③ 「오병군」 - 가사
 - ④ 「오병군」 - 가사
 - ⑤ 「병정」 - 가사
 - ⑥ 「안스름 의병」 - 가사

- ⑦ 「오롱키들르 경고헌드」 - 격문
- ⑧ 「외놈 압즈비들으」 - 격문
- ⑨ 「은스름 으병 노리」
- ⑩ 「애들픈 노리」 - 가사
- ⑪ 「금수들으 보더 보겨르」 - 가사
- ⑫ 「외놈 디중 보겨르」 - 격문
- ⑬ 「외놈들헌디 보닌 글입니다」 - 서한

- 격문의 성격 - 칩락을 규탄, 왜적의 앞장이들에 대한 나무람
- 가사의 성격 - 유희석의 「고병정가사」와 전체적으로 비슷. 그러나 수법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 첫째, 내용적인 면
 - ① 글쓴이의 주체가 여자 이기에 오직 국문만 사용했고,
 - ② 직선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함
 - 둘째, 형식적인 면
 - ① 수식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음.
 - ② 4자가 한토막이고, 대체로 네 토막이 한 줄로 가지런이 다듬어져 있음
- 『의병가사집』 문학사적 혹은 문화사적 의의
 - 첫째, 완전한 한글 의병 가사라는 점.
 - 둘째, 가사의 작가가 여성이라는 점.
 - 셋째, 조선 후기와 개화기를 잇는 가사 형식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점 이상의 이유에서 근대문화재로 등록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3) 문헌자료
 - 김용직, 『한국현대시사』, 일지사, 1974.
 - 의암학회 편, 『유희석의사자료집』, 의암학회, 2008.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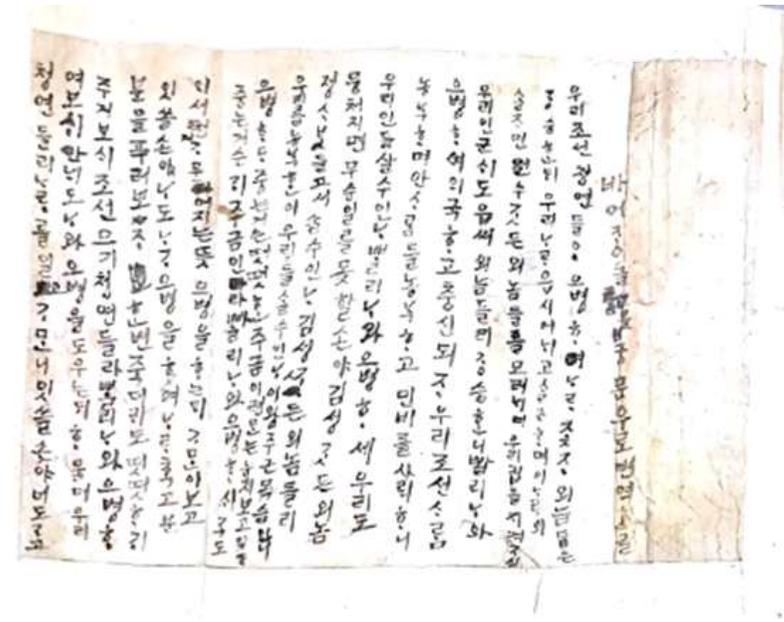
-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첫째, 완전한 한글 의병 가사라는 점.
 - 둘째, 가사의 작가가 여성이라는 점.
 - 셋째, 조선 후기와 개화기를 잇는 가사 형식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점
 - 넷째, 한말의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개화기,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 이상의 이유에서 근대문화재로 등록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책자의 종이들이 변색되어 가고 있기에 특수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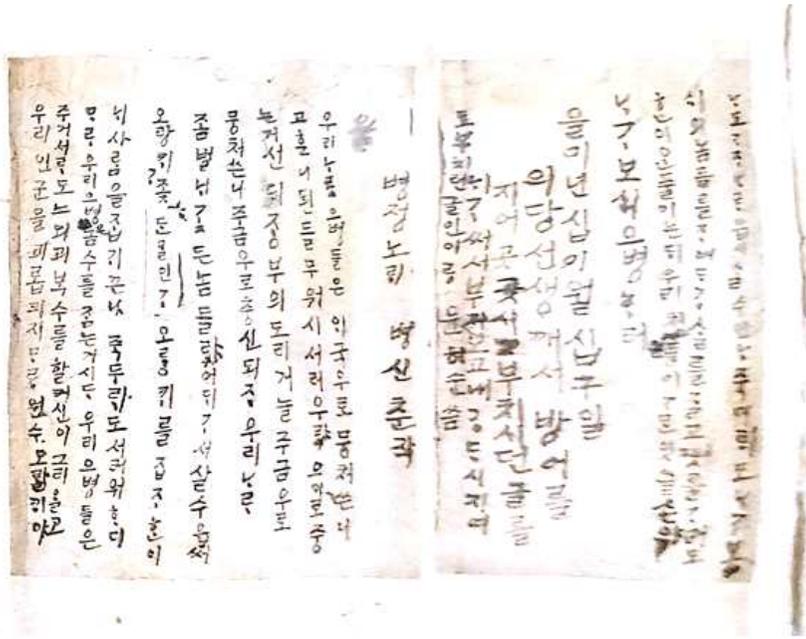
- 6)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OOO 경기대학교 교수(2018.12.12.)>

- 1) 현상
 - 친필의 가사를 절첩의 형태로 이어 붙이고 표지에 『義兵歌辭集』 尹熙順이 기록되어 있음. 표지와 내용 모두 양호함.
- 2) 내용 및 특징
 -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로 알려진 유희순(1860~1935)의 친필 필사본 의병가사집임. 유희순은 독립활동을 위해 1910년 한일합병 당시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해 노학당이라는 학교를 설립해 반일 인재를 양성하여, 3년 만에 5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음. 즉, 조선의 의병에서 중국의 반일 인재 양성가로 40년을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음.
 - 을미년(1895)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선포되면서 항일 감정이 들끓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들고 일어설 때 유희순은 의병들에게 밥을 해주며 힘을 보태다가 붓을 들어 강경한 표현으로 일본을 비판했음.
 - 현재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의병가사집에는 유희순이 쓴 ‘안사람의병가’, ‘병정노래’ ‘의병군가’ 등이 수록되어 있음. 각 가사마다 한글로 성명 유희순을 밝히고 있음(<그림 2> 참조).



<그림 1> 의병가사집 제1면



<그림 2> 의병가사집 제2면

-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강원대박물관 소장 자료로서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로 알려진 윤희순(1860~1935)이 쓴 의병가사집으로 일제강점기 항일 의병자료의 하나로서 가치가 큼.
 - 특히 강원지역의병은 전체 항쟁기간에 걸쳐 가장 끈질기게, 가장 오랫동안 내외에서 의병항쟁을 전개하였으나 강원도 각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함. 이에 이 의병가사집은 의병활동과 독립운동 및 당시 상황적 역사 고찰의 중요 기록자료로서 가치가 큼.
 - 내용적으로 근대 가사, 의병가사 및 한글표기방식 등 국어학적 및 국문학적 연구 등의 중요 기록자료로서의 가치도 큼.
 - 특히 원본 필사본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4) 문헌자료
 - 嚴燦鎬.“강원도 영서지역소재 의병관련 고서·고문서자료 연구.”『사학연구』 제81호(2006. 3), 87-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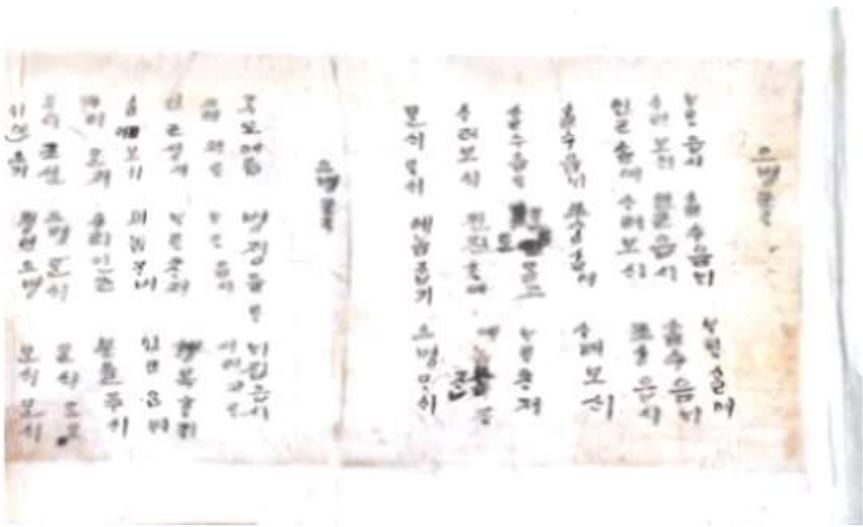
-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원본 보존과 연구자들의 각 분야 연구를 위한 원시자료로 제공을 위하여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 6) 종합의견
 - 강원대박물관 소장 자료로서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로 알려진 윤희순(1860~1935)이 쓴 의병가사집으로 일제강점기 항일 의병자료로서 문화재 등록의 가치가 큼.

<OOO 연세대학교 연구교수(2018.12.12.)>

- 1) 현상
 - 붓으로 종이에 적은 낱장 가사들과 여러 가지 글들을 종이책에 붙여 문집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문집의 종이가 변색된 문제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임.

- 2) 내용 및 특징
 - 『義兵歌辭集』은 한말 강원-충청 지역에서 의병운동을 전개한 유희석(柳弘錫) 의병장의 며느리인 윤희순(尹熙順, 1860-1935) 여사가 남긴 친필 문적을 모아 엮은 것임. 여기에는 의병 가사, 항일 포고문과 경고문이 수록되어 있음.
 - ‘義兵歌辭集’이란 제목은 윤희순 여사가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라 후대에 윤희순 여사의 가사와 기타 글을 모아 소책자로 만든 후에 표지에 한자로 ‘義兵歌辭集’이라고 임의로 써붙인 것임.
 - 의병 가사를 지은 윤희순 여사는 한말 의병운동 당시 항일가사를 지어 의병들의 사기를 진작한 항일활동을 전개한 특이한 경력의 인물임. 한말 의병운동 당시 여성으로서 항일



<그림 3> 의병가사집 제3면

의병가사를 지어 의병의 항일활동을 진작하고 고무한 사례는 윤희순 여사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한말 의병운동사상 의미가 크다고 판단됨.

- 또한 윤희순은 시아버지 유흥석(柳弘錫)과 남편 유제원(柳濟遠)이 을미사변-단발령 후 춘천-제천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할 때에 마을의 부녀자들과 함께 의병들의 식사를 담당하고 빨래를 해주는 등 의병뒷바라지를 하였음. 1907년 고종 퇴위 후에 유흥석이 춘천에서 의병을 모아 창의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활동을 벌이다가 탄약과 군자금에 고갈되어 어려움에 처하자 인근에서 군자금을 모금하여 춘천 가정리 여의내골에서 무기와 탄약을 제조하여 공급하였음. 1910년 대한제국이 패망하자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하여 대한독립단에 가담하여 활동하였고,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등 치열한 항일활동을 벌이다가 별세하였음. 따라서 윤희순은 평생에 걸쳐 항일운동에 종사한 투철한 애국자라고 평할 수 있음.
- 『義兵歌辭集』에는 ①「봉어중」 ②「병정노리」 ③「으병군ㄱ」 ④「으병군ㄴ」 ⑤「병정ㄴ」 ⑥「안스름 의병ㄴ 노리」 ⑦「오롱키들ㄴ 경고흔드」 ⑧「외눔 압즈비들으」 ⑨「안스름 으병 노리」 ⑩「애들푼 노리」 ⑪「금수들으 보더 보거ㄴ」 ⑫「외눔 더중 보거ㄴ」 ⑬「외눔들흔디 보닌 글입니다」 등 총 13점이 수록되어 있음.
- 『義兵歌辭集』에 수록된 글들 중에서 ①·②·③·④·⑤·⑥·⑨·⑩은 의병가사임. 이 의병가사들은 윤희순 의사가 을미사변-단발령 후 시아버지 유흥석이 화서학과 유림 이소응(李昭應)을 추대하여 춘천에서 의병운동을 전개하다가 충북 제천의 유인석(柳麟錫) 의진으로 옮겨가 의병운동을 전개할 때, 일반의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은 것임. 이 의병가사들은 1895년 (음)12월 19일(양/1896.2.2)부터 1896년 (음)7월 19일(양/1896.8.28) 사이에 지은 낱장가사들을 을미의병운동 종료 후 어느 시점에 종이책에 붙여놓은 것임.
- 아울러 『義兵歌辭集』의 글들 중에서 ⑦·⑧·⑪·⑫는 강력한 항일의식이 담긴 포고문과 경고문에 해당하며, ⑬는 숙모에게 올린 서한임.
- 『義兵歌辭集』은 1) 한말 의병운동 당시 의병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은 순 한글가사이며, 2) 여성 항일운동가가 의병활동의 일환으로서 지은 항일 문건이며, 3) 개화기의 민간의 한글 사용 양태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4) 한말 의병운동사에서 치열하게 활동한 대표적인 여성 의병의 작품이며, 5) 대한제국 멸망 후에도 중국으로 망명하여 아들들과 함께 항일활동을 벌이다가 서거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문집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희소성이나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에서 근대문화재로 등록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3) 문헌자료

- 의암학회 편, 『윤희순의사자료집』, 의암학회, 2008.
- 엄찬호, 「윤희순의 생애와 항일운동」, 『의암학연구』 창간호, 2002.
- 심옥주, 『윤희순평전』,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2009.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1) 한말 의병운동 당시 의병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은 순 한글가사이며, 2) 여성 항일운동가가 의병활동의 일환으로서 지은 항일 문건이며, 3) 개화기의 민간의 한글 사용 양태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4) 한말 의병운동사에서 치열하게 활동한 대표적인 여성 의병의 작품이며, 5) 대한제국 멸망 후에도 중국으로 망명하여 아들들과 함께 항일활동을 벌이다가 서거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문집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희소성이나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에서 근대문화재로 등록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함.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책자의 종이들이 변색되어 가고 있으므로 조속히 탈산작업을 포함한 특수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4. 「서울 한양대학교 구 본관」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서울 한양대학교 구 본관」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8.2.26.)를 거쳐 등록 예고한 「서울 한양대학교 구 본관」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2017년 「근현대 교육시설 일제조사」 결과 : A등급
- * 「근현대 교육시설」 가치평가 자문회의에서 등록 추진 대상 선정('18.5.9.)
- * 관할 지자체에 등록 추진 협조 요청('18.6.25.)
-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8.2.26.) 명칭 : 「서울 한양대학교 구 본관」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학교법인 한양학원
- (2) 대상문화재(신청명칭) : 한양대학교 본관(역사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용도 : 교육시설(전시시설)
 - 소유자 : 학교법인 한양학원 (관리자: 한양대학교)
 - 수량 및 면적 : 1동(4층), 건축면적 950.18㎡, 연면적 3,613.91㎡
 - *등록예고 중 측량면적 : 1,013㎡(한국국도정보공사)
 - 건립시기 : 1956년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 (3) 심의대상 : 문화재 등록
- (4) 등록예고 : 2019. 3. 11. ~ 4. 9.(30일간) * 의견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000 문화재위원(2019.2.13.)

- 한양대학교는 공학교육에서 시작된 학교이며, 본관은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진에 의해 설계되었고, 이후 한양대학교가 한국 공학교육과 경제발전에 주축이 된 역사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사관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한양대학교 역사관은 외관은 잘 보존되어 있으나 내부 공간은 외관에 비해 지나치게 변형되어 장기적으로 역사성을 감안한 진정성 있는 내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9.2.13.)

- 1965년 증개축을 통해 외관과 평면에서 상당히 많은 변형이 있었지만, 1950년대 중반의 대학건물 배치, 정면구성, 구조, 외벽시공 사례로서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있고, 증개축 시기 역시 50년 이상 경과했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9.2.13.)

- 당시 돌산이었던 행당산 일대에 교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배치계획과 함께 크고 작은 증, 개축 과정에서 본래의 건물이 갖는 기능과 형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완성한 건축적 수법 등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시기별 건축도면 일체가 잘 남아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이밖에, '근현대 교육시설 일제조사 연구보고서(문화재청,2017)'에서 등록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9명 / 제척 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한양대학교 역사관 (구) 한양대학교 본관

2. 용 도 : (현) 전시시설 (원) 대학본부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4. 소유자 : 학교법인 한양학원(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 준공일 : 1956년 신축(1965년 증·개축)
- 수량 및 면적 : 1동(지상4층) / 건축면적: 950.18㎡, 연면적 3,613.91㎡(건축물대장)

6. 조사자 의견

< OOO 문화재위원(2019.2.13.) >

1) 개요

- 1939년 일제강점기하에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동아공과학원으로 출발한 사립 대학임
- 해방후 건국기술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 1948년 (재)한양학원 인가와 함께 교명이 한양공과대학으로 바뀌었음.
- 1953년 사근공원으로 지정되었던 행당산을 서울시로부터 불하받아 현 한양대학교 캠퍼스가 조성되었으며, 현 역사관은 1957년에 대학 본관으로 건축되었음.
- 최초 신축시에는 3층으로 지어졌으며, 1965년 증개축을 통해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음
- 2009년 개교 70주년을 기해 신본관이 완성되면서 구본관이 역사관으로 용도 전환되었으며, 이때 내부 공간에 대한 전면적인 리노베이션이 실시되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내부 전시관과 외관을 통해 확인되는 구조는 외부 벽체는 돌로 형성되었으며, 내부 기둥과 층간 슬래브는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구법은 해방전에 보편적으로 지어진 구법임. 그러나 등록문화재 신청시에 제출된 도면에 따르면 벽체 외부에 기둥이 그려져 있어 정밀 조사가 필요함. 지붕의 구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음.
- 대학 본관을 석조로 짓는 것은 해방 후 신축되는 대학교 본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음.
- 이는 해방전 사학을 대표했던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의 영향임. 해방후 지어진 대학 본관으로 성균관대학교 본관(김태식 설계), 동국대학교 본관(송민구 설계) 등이

있으며, 양식을 달리하는 건축으로 경희대학교 본관이 있음. 한양대학교 역사관(구 본관)은 대학교 건축에 대한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신축 당시의 비대칭적 구성이었던 디자인은 1960년대 증개축과정에서 중앙의 현관부분이 추가되고 복층 부분이 증축되면서 좌우 대칭으로 증축되었으며, 4층이 수직으로 증축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음.
- 역사관 외관에서 중요한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는 주출입구의 모습은 고전주의 건축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는 1960년대 증개축과정에서 추가된 부분임.
- 현 역사관의 주출입구에 들어서면 현관 홀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1957년 신축 당시의 모습이라는 증언이 있으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가 필요함. 중앙계단은 1층과 2층을 연결하고 있으며 2층의 아치는 신축 당시의 것은 아님.
- 외관의 전체를 구성하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창호는 외벽체가 내벽체일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디자인임. 전면의 돌쌓기와 후면의 돌쌓기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음.
- 초기에는 측면의 입구를 통해 출입이 이루어졌다고 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체적으로 외관은 신축 당시의 모습을 포함하여 1960년대 증축된 후의 모습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음.
- 내부는 역사관으로 리노베이션하는 과정에서 옛 흔적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등은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관으로 사용되면서 사무공간과 복도로 구분되었던 내부공간은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행정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현대적으로 개조되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구분관이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신본관과 인접한 현 위치는 한양대학교의 상징적 공간에 해당하므로 주변환경의 보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는 캠퍼스부지 전체에 대한 개발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기에 현 상황에서 역사관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주변의 상황이 현 상태에 변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한양대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용중인 역사관과 행정실로 계속 사용 될 예정이라고 하며, 제출된 용도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제출된 보존관리 계획에 따라 역사관이 보존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석조 대학교 본관 중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사례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가 있고 동국대학교 명진관은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바 있음.
- 기존의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대학 본관과 비교할 때 한양대학교 본관은 건축적 가치보다는 한양대학교가 해방 후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공학계열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높게 평가받아야하는 측면에서 비교되어야 함.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한양대학교는 공학교육에서 시작된 학교이며, 본관은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진에 의해 설계되었고, 이후 한양대학교가 한국 공학교육과 경제발전에 주축이 된 역사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사관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한양대학교 역사관은 외관은 잘 보존되어 있으나 내부 공간은 외관에 비해 지나치게 변형되어 장기적으로 역사성을 감안한 진정성 있는 내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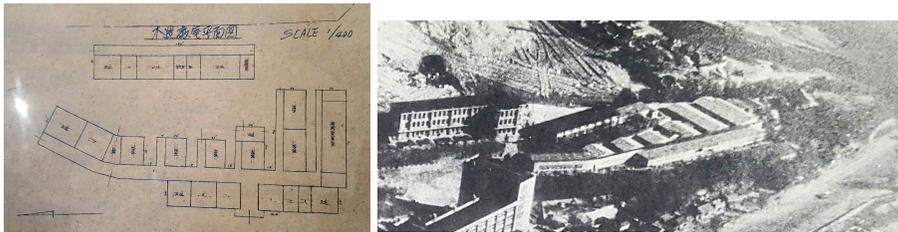
- 한양대학교 구 본관(역사관)

< OOO 문화재전문위원(2019.2.13.) >

1) 개요

- 한양대학교는 1939년 7월 김연준이 설립한 동아공과학원에 기원을 두고 있음. 그는 1942년 3월 동아고등공업학원(야간)의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했음. 해방 후 1945년 8월 건국기술학교를 설립했고, 1946년 5월 한양공업학교로 설립인가, 1947년 12월 건국기술전문학교와 한양공업대학관으로 승격인가, 1948년 7월 재단법인 한양공과대학으로 설립인가, 1959년 2월 한양대학교로 승격인가받아 현재에 이름.
- 한양공과대학 시절,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 1951년 6월 부산시 완월동에 임시교사 및 가교사를 설치하여 학교를 운영했고, 서울 수복 후인 1953년 8월 서울시 신당동 인근에 임시교사를 짓고 학교 운영을 이어갔음.
- 1953년 9월 현재 위치(당시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산8-2번지)로 교지를 이전하고 1954년 4월 2층 목조 가교사를 지어 수업을 했는데,1) 모두 철거되고 지금은 없음.
- 이듬 해 1955년 말 현재 위치에 정지작업을 시작하고 본관을 짓기 시작해 1955년 7월 1일 정초(定礎)하고 1955년 12월말~1956년 3월초에 지상 3층 규모로 준공했다.2)) 설계자는 한양대학교 전임교수로 부임하던 박학재임.
- 1963년 11월 30일 화재로 본관 일부가 소실되자, 지상 4층으로 올리고 익부를 증축하고 정면을 좌측면으로 바꾼 후 중앙부에 포치를 내 다는 증개축공사를 하여 1965년 12월 준공했음.4) 이 공사로 현재와 같은 입면 및 평면이 되었음. 공사 진행

1) 한양대학교 역사관에 전시된 '목조교실평면도' 청사진(도면작성년도 미상) 및 1959년 한양대출판앨범 중 '교지 전경' 사진 중 일부 참조. 사진 중앙의 목조교실의 좌측에 보이는 건물은 등록문화재 신청 대상 건물임.



2) 한양대학교 역사관 전시실에 전시된 '본관평면도' 청사진(도면작성년도 미상) 및 '입시본관'으로 표기된 본관의 완공 후 전경 (촬영 1956.1: 2019.2.13. 조사시 시설과 구두 확인). 사진에 보이는 본관 입면이 북서쪽으로 향하는 좌측면이었으나, 현재 정면으로 바뀜.

중인 1965년 5월, 포치 상부 박공면(페디먼트)에 교육이념을 상징하는 조각을 새겼음.

- 1970년 12월 10일 다시 화재가 나서 4층 일부가 소실되자 이를 복구하면서 또한번 증개축하여 1971년 3월 18일 준공하였음. 이 공사 때 지붕 목조 트러스의 경사를 현재와 같이 높이고 형태도 바꾸었음.5) 목조트러스 아래에 지붕슬라브가 설치되어 있는데, 1965년 공사인지 이때 공사인지 알 수 없음.
- 2009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본 건물 좌측에 '신 본관(본관 행정동)'을 신축하면서 본 건물은 '구 본관'으로 개칭되고, 3층 높이에서 신 본관과 잇는 연결복도가 3층 높이에 설치되었음.
- 2011년 역사관으로 개관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2015년 2층에 전시실 실내공사를 한 후 '역사관'으로 개관하여 현재에 이룸. 3층과 4층은 재단사무실로, 1층은 역사관 중앙홀, 시설과사무실, 수장고, 기념품점으로 사용됨.
- 구 본관 앞쪽에 원형 광장이 조성되어 있고 넓은 외부계단을 통해 건물로 접근하도록 했음. 구 본관과 신 본관이 광장을 에워싸면서 교정의 전면중심부를 형성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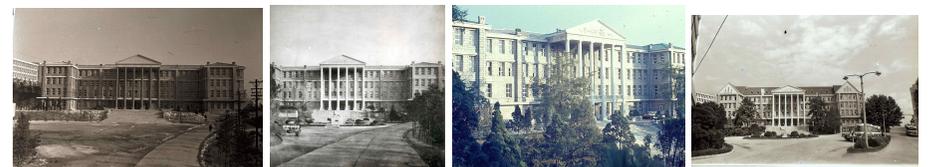
- 건물 형상은 중앙부와 양단부가 앞으로 조금 튀어나오는 누운 E자형이고, 정면 중앙에 간략하게 처리한 도리식 그리스 신전형식의 포치가 있고, 전체적으로 석조 마감에 경사지붕을 얹어 고전주의 건축의 외관을 가짐. 포치 전면에 석재뿔칠 마감된 원형의 열주가 4층 높이를 가로지르게 하고 2층 높이에 발코니를 내는데, 이 포치는 건물에 정면성과 중심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함.
- 거칠게 먼처리한 화강석 조적 구조체가 그대로 노출되어 외벽마감을 이루고 실내측에는 1B 정도(두께 추정) 벽돌이 조적되어 실내마감 바탕면을 이루도록 했음.
- 경사진 대지에 자리해서, 기단부는 높이 변화를 가지고 상부보다 큰 돌로 마감한 뒤 기단 맨 상단에 얇은 수평 화강석 띠를 돌려 안정감 있게 마무리했음. 기단 상부 외벽의 마감은, 정면 및 우측면은 바른층쌓기, 배면 및 좌측면은 허튼층쌓기로 다르게 처리되었음. 신축 당시 거실이 배열된 현재 정면의 외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3) 『한양대학교 70년사』 I 권, 242쪽(등록문화재 신청자가 제공)에는 1956년 말 준공한 것으로 쓰여 있으나, 시설과에서 구두 확인한 대로 1956년 1월 촬영한 각주2)의 사진과 1965년 3월 8일 촬영한 각주3)의 세 번째 사진이 있으므로, 준공은 늦어도 1956년 3월초임. 『한양대학교 70년사』의 1956년 말 준공은 1955년 말의 오기일 가능성도 있음.

4) 『한양대학교 70년사』 I 권, 242쪽. 해당 자료에는 지하1층·지상4층이라 쓰여 있으나 지상4층임.

5) 좌측부터 1965년 1월 8일 촬영, 1967년 졸업앨범, 1970년 10월 28일 촬영, 1971년 6월 1일 촬영. 네 사진을 비교하면, 1971년 공사로 지붕경사와 형태가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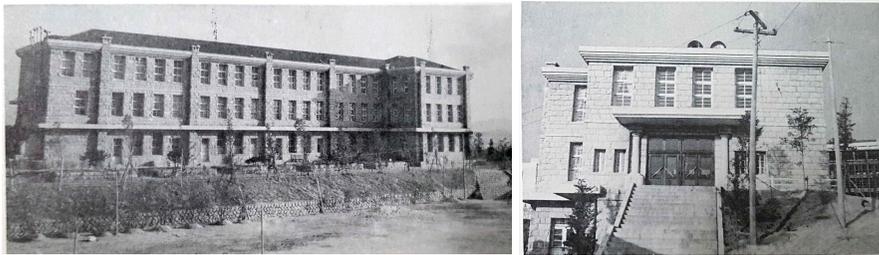
굴뚝이 긴 입면에 리듬을 부여함. 굴뚝은 이 면에만 나 있음.

- 3층으로 신축되었을 당시 입면 바깥으로 단을 이루며 꽤 튀어나온 코니스의 가장 아래 부분만 남아 4층 바닥높이 외벽 전체에서 수평띠를 형성함.
- 원래 주출입구가 있던 우측면의 현관문 좌우측에는 무릎 높이의 주춧돌 위에 원형 불임기둥을 세웠고, 좌측 주춧돌에는 '檀紀 四二八八年 七月 一日', 우측 주춧돌에는 '定礎'라는 새김을 했음. 이 우측면이 신축 당시 소박하고 단정한 인상의 외관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음.6)
-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구조가 석조로 되어 있으나, 철근콘크리트조 및 석조 혼합구조임. 내부의 기둥·보·바닥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고 기둥머리와 만나는 곳에 보는 까치발 처리되어 있음.
- 외벽둘레는 석조이되, 경사진 대지에 건물을 배치해서 1층 배면쪽은 지면 아래에 놓이게 되어 이 부분만 철근콘크리트 용벽으로 처리했음.7) 1965년 증축된 좌측(신본관 쪽) 익부 전체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추정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두 번에 걸친 화재와 이를 계기로 진행된 1965년과 1971년의 증개축, 1971년 지붕목조트러스 및 지붕마감 교체, 2009년 신 본관과 연결하는 연결통로 설치, 역사관으로 용도변경을 준비하면서 2011년 엘리베이터 설치 등 여러 차례 공사를 통해 원 건물의 규모·층수·평면형상·외벽·지붕·출입구 등에 전반적으로 변형이 있었음. 특히 첫 번째 화재 후 1965년의 증개축이 결정적인 변형을 가져왔음.
- 신축 당시 주출입구가 난 정면은 현재 우측면에 해당하는 짧은 면이고 부출입구는 그 반대쪽(신 본관 쪽) 짧은 면이었고, 건물평면 및 정면도 좌우대칭이 아니었음(각주2의 사진 및 각주3의 평면도·사진 참조). 1965년 증개축 때 좌측면을 정면으로 바꾸기 위해 중심부에 포치를 내달고 주현관을 내었음. 주현관 안쪽에는 중앙홀을 만들기 위해 2층 바닥을 뚫고 T자형 계단을 신설했음. 이 포치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입면·평면을 만들기 위해 원래 좌측(신 본관 쪽)에 앞쪽으로 조금 튀어나온 익부를 증축했음. 또한 신본관 쪽에 났던 부출입구를 없애는 대신 증축한 익부의 배면 2층 높이에 부현관을 내었음.8) 원래 주출입구 역시 부현관이 되었음.
- 1965년 공사에서 한 층을 더 올려 4층 규모로 만들었는데, 이때 모입지붕을 철거하고 한층 높여 원래 지붕과 유사한 기둥기와 형태로 모입지붕을 없앴음.
- 1971년 증개축에서 어느 부분이 증축되었는지 알려줄 자료는 없고, 이때 지붕이 전면적으로 개축되어 그 형태·경사·재료가 바뀌고 중앙부 포치를 중심으로 양쪽

6) 1959년 한양대출업앨범 중 '본관 전경' 및 '본관' 주출입구.



7) 외벽 석조 및 1층 배면부 용벽처리 정보는 학교시설팀 김의환 과장 전화인터뷰(2019.2.19.)에 따름.

8) 1970년 시작된 증개축공사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는(한양대학교 시설관리팀) 건물 평면도 및 입면도(등록문화재 신청자 제공)

정면쪽 지붕 경사면에 각각 4개씩 비둘기창을 두었음. 또한 좌우 익부의 정면 쪽에 페디먼트를 설치하고 각각 3개의 아치창을 뚫었음. 이에 따라 모입지붕 위로 올랐던 굴뚝은 페디먼트 하단에서 잘렸음. 현재 이 3개의 아치창호 크기는 1971 완공 후 찍은 사진의 창호와 그 크기 다 다른 것으로 보아 때 1994년 11월 지붕 보수공사 때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음.

- 이상 여러 차례 변형에도 불구하고 거친 화강석 쌓기의 외벽마감 및 정면 외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돌출된 굴뚝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고, 증축된 4층과 좌측 익부의 외벽마감은 3층까지 원래 외벽마감과 이질감 없이 이어짐. 특히 원래 주출입구가 났던 우측면의 외관과 접근계단은 원형 그대로 가장 잘 유지되고 있음. 다만 우측면의 출입문짝 및 창틀은 교체되었음. 내부공간구획과 마감은 전체적으로 변형되었음.
- 건물은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의 노후화 정도는 심하지 않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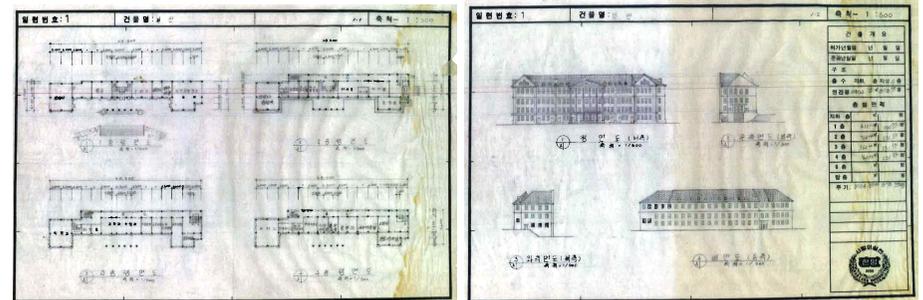
- 대학재단은 이 건물을 한양대학의 역사성·상징성을 가진 건물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역사관으로서 양호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어, 건물 원형이 유지되는 부분이나 화재로 인한 소실 후 증개축된 부분을 모두 보존 관리하는 여건은 양호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대학재단은 현재와 같이 건물을 역사관 및 재단사무실로 계속 사용할 예정으로 내부변경 계획이 없고 외관의 변형이 필요한 조건도 없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 활용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신축 당시 건물은 새로 조성한 교지의 지형·접근로·방위 등을 고려하여 짧은 면을 정면으로, 반대편 짧은 면을 배면으로 하고 대지 경사에 맞추어 층수 처리하는 등 대지조건에 최대한 순응한 실용적 건축계획이 돋보임.
-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대학 본관은 11건이고 해방 전 준공 3건과 해방 후 준공 8건임. 이 8건의 신축시기는 모두 1950년대로 본 신청 건물과 건축시기가 유사함. 그중 고전주의 외관에 그리스 신전 정면 형식을 중앙부에 설치하여 가장 유사한 외관을 가진 건물이 1956년 신축된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이고 건축시기도 거의 같음. 다만 경희대학교 본관은 신축 당시부터 고전주의 외관을 갖추었다면 본 신청건물은 1965년 증개축을 통해 고전주의 외관으로 변형된 점이 다름.



-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대학 본관 중 1건(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구 본관)을 제외하면 모두 좌우대칭의 공간구성 및 정면을 취하고 중앙부를 페디먼트나 탑으로 강조하여 중심성과 정면성을 부여하고자 노력한 점이 유사성이라면, 본 신청 건물의 신축 당시 배치와 공간구성은 실용적·합리적 계획에 따랐다는 특징을 가지며 그 외관은 유사 사례에 비해 소박하고 단정함.

7) 등록가치의견

- 한양대학교 구 본관은 1955년 말~1956년 초 완공되었으며 화재로 인한 보수과정에서 증개축을 거치며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다. 특히 1965년 증개축을 통한 변형이 큼. 그리스 정면형식을 차용한 포치를 부가하여 중앙 현관부를 중심으로 해서 고전주의적인 대칭형 평면 및 입면이 구성됨으로써 대학 본관으로서 상징성을 갖추는데 유리하게 되었지만, 대지조건에 맞추어 기능적·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정면을 구성했던 건물 원형의 가치는 상당히 상실되었음.
- 반대로 우측면 구성, 굴뚝을 포함한 외벽구성·창내기 및 돌마감, RC조 및 석조 혼합구조, RC구조체에서 십자형 까치발 기둥머리 처리 등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의 상태는 양호함.
- 요약하면, 1965년 증개축을 통해 외관과 평면에서 상당히 많은 변형이 있었지만, 1950년대 중반의 대학건물 배치, 정면구성, 구조, 외벽시공 사례로서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있고, 증개축 시기 역시 50년 이상 경과했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함.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등록신청서의 ‘한양대학교 본관(역사관)’이 아니라 ‘한양대학교 구 본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건물의 설계자가 박학재교수로 확인되는 만큼 유족 측이나 제자 등으로부터 추가자료를 확보하면 더 정확한 건물평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OOO 문화재전문위원(2019.2.13.) >

1) 개요

- 오늘날 한양대학교 전신인 한양공과대학은 한국전쟁 이후, 새로운 교지 확보를 위해 당시 돌산이었던 행당산(杏堂山) 일대의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불하 받아, 1953년 겨울부터 본관 등 일부 교사 건립을 시작함.
- 당시 신축된 교사는 용산에 주둔한 미8군으로부터 다량의 목재를 원조 받아 목조로 건립하였으며, 본관 등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임시 건물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기록(한양대학교 70년사)에 의하면, 본관 건물은 최초 1954년 4월에 2층 규모의 목조 건물로 건립되었으나, 그 이듬해인 1955년 3층 규모의 석조 건물을 새롭게 정초(定礎)하여 1956년 완공되었음. 설계 작업은 당시 한양대학교 건축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박학재교수에 의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학교측에서는 설계도서 일부(한양공과대학교 대학본관 및 목조교실 평면도)를 본관 2층 전시실에 전시하고 있음.
- 또한, 학교 측에서는 1963년에 본관 확장을 계획하였으나, 그 해 11월 본관에 화재가

-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1965년 12월에 오늘날의 규모와 같이 증개축하였음.
- 본관 건물은 최초 준공 이후부터 줄곧 총장실을 비롯하여 교무처, 사무처, 기획실, 법인사무국 등이 위치한 대학본부로 사용하여 왔으며, 지난 2015년 11월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현재는 ‘한양대학교 역사관’으로 활용하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본관은 별도의 지하층 없이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입지한 지형의 고저차로 인해 정면부와 달리 배면부 및 양측면에서는 3층의 입면 구성을 보이고 있음.
- 건축물은 전체적으로 중앙부에 위치한 열주랑을 중심으로 좌, 우로 길게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중앙부와 우측면에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각 1개소씩을 두고 있음.
- 주출입구를 들어서면 1층에 2bay 정도의 비교적 넓은 공간의 로비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좌, 우측에 사무공간을 배치하였으며, 이들 각 실은 전면부에 로비와 연결된 편복도를 통해 이동할 수 있게 하였음.
- 로비 가운데는 2층까지만 연결된 중앙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건물의 우측면에 위치한 부출입구를 통해서 각 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음. 부출입구는 본관이 입지한 지형의 고저차로 인해 외부 계단을 통해 본관 2층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음.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1956년 최초 건립 당시에는 우측면의 부출입구를 통해서만 출입이 이루어졌는데, 1965년 본관 증, 개축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중앙부에 주출입구를 설치하였다고 함.
- 또한, 1965년 5월 열주랑 상부의 박공면에 한양대학교의 교시인 ‘사랑의 실천’을 상징하는 조각 ‘목자와 양떼들’을 새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같은 해 1월에 촬영된 사진에는 조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건물 내부는 기둥과 보, 슬라브를 이용한 라멘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외부 벽체는 거친돌쌓기(저층)와 바른층쌓기(상층)가 혼용되어 있으나 정확한 구조체는 확인할 수 없음.
- 건물의 내부 공간은 2015년 역사관으로의 리모델링으로 인해 마감재 등의 변형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1971년 화재로 인한 복구공사 과정에서 작성된 설계도서에 의하면 기본적인 구조는 큰 변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1층의 경우 정면부 외벽면에 각 실별 출입문을 내어 직접 출입할 수 있게 하였던 것으로 보임.
- 지붕은 목조트러스 지붕틀로 박공지붕과 모입지붕이 조합되어 있으나 지붕의 비례와 물매로 볼 때 후에 변형된 것으로 보임. 현재 지붕면은 싱글로 마감되어 있으나, 본래 마감재는 알 수 없음.
- 현재 정면부 중앙의 열주랑을 중심으로 좌, 우측에 각 1개소씩의 굴뚝이 위치하고 있으나, 과거 기록 사진에 의하면 1965년 증, 개축 당시에는 좌, 우측 돌출부에도 각 2개소씩의 굴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상과 같이 본관은 크고 작은 변화(증, 개축)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록(한양대학교 70년사)을 통해 주요 건축 연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즉, 1963년 학교측에서는 최초 1956년 건립된 목조 건축의 본관을 확장할 계획하였으나, 그 해 11월 본관에 화재가 발생,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1965년 12월에 오늘날과 같이 지상부에 제4층을 증축하고 주출입구를 정면으로 옮기면서 이 과정에서 정면부에 투스칸 오더의 열주랑을 세웠으며, 또한 기존 우측 단부의 돌출부와 대칭을 이루도록 좌측 단부를 동일한 형태로 증축하는 등 정면부의 입면을 전체적으로 고전주의

양식으로 개축하였음(전언에 의하면, 열주랑은 당시 한양대 건축과를 졸업 후 강사로 재직 중이던 장기인 선생이 디자인하였다고 함.)

- 이밖에, 1970년 화재로 인해 4층 동측 부분이 일부 소실된 이후 1971년 복구공사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물체가 급한 지붕으로 교체되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전, 후 지붕면에 도머창과 함께 좌, 우측 돌출부 지붕 상부에 박공 등을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역사관으로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내부공간의 마감재가 새롭게 교체된 것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공간구조 등은 1965년 중, 개축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일부 변형된 부분(지붕형태 등)은 고증자료를 통해 원형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한양대학교 역사관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노후화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소유자인 한양대학교 측이 역사적 산물로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여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가 극히 적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한양대학교가 현재의 위치에 교지를 확보하면서 최초 건립한 건물로서 교직원 및 졸업생들에게 학교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학교측에서도 적극적인 보존, 활용 의지가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학교측에서 본관을 단순한 오래된 건축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근대문화유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 관리와 더불어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교육시설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전국에 걸쳐 다수의 사례가 있고 이들 대부분이 평가 과정에서 건축적 완성도와 함께 역사성 측면에서 가치 평가되었음.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건축적 연역이 충분히 고증되고 또한 한국전쟁 이후 현재의 위치에 새로운 교지를 확보하고 그 중심 공간에 본관을 건립하는 등 역사적 흔적이 오히려 간직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한양대학교 본관이 갖는 건축적 가치는 동일 유형의 기 등록문화재와 충분히 견줄 만 하다고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당시 돌산이었던 행당산 일대에 교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배치계획과 함께 크고 작은 증·개축 과정에서 본래의 건물이 갖는 기능과 형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완성한 건축적 수법 등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시기별 건축도면 일체가 잘 남아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이밖에, '근현대 교육시설 일제조사 연구보고서(문화재청, 2017)'에서 등록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서울 한양대학교 구 본관」

5. 「자해자전(慈海自傳)」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자해자전(慈海自傳)」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사 항

나. 제안사유

-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연구’용역(‘18. 6~10월)을 통해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자해자전(慈海自傳)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9. 2. 28.)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제작 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자해자전 (慈海自傳)	1책	20.2 x 15.2 cm	양지	1960년대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2) 추진경과

-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연구’용역(‘18.6~10월)
 - A등급 34건, B등급 104건(‘자해자전(慈海自傳)’ 등 포함), C등급 1,215건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8. 2. 28.)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 등록 명칭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

- 「자해자전 초고」(OOO)와 「자해자전」(OOO, OOO, OOO)으로 등록 명칭 부여에 이견
 - (OOO) ‘자해자전 초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록된 사항(페이지 작성 등)으로 보아 저술자는 책으로 낼 의도가 있어 ‘초고’로 명시한 것으로 보임. 저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해자전 초고」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함
 - (OOO) 유물의 현 상태상 초고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유일본 상태이므로 「자해자전」으로 명칭 부여하는 것이 적절함
 - (OOO) 현존하는 것은 간행본이나 개정본이 아닌 유일본 상태이므로 ‘초고’라는 명칭 부여는 불필요
 - (OOO) ‘초고’라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면지 부분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해자전」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위원회 위원 (2018.2.28.)

- 1930~40년대 내몽고에서 의사(醫師)로 일하며 광복군으로 활동한 이자해(李慈海, 1894~1967)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자신의 전기임.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다르거나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을 수록하고 있어 독립운동사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음. 또한 1930~40년대 내몽고 지역의 항일운동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000 경기대학교 교수(2018.2.28.)

- 독립운동가 이자해가 1919년부터 1961년 12월 4일까지 작성한 자서전적 수기임. 특히 1930~40년대 광복군 활동 등 내몽고 지역에서의 항일 운동이 수기되어 있음. 임시정부 참여 인물의 수기이자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하나로서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음.

○ 000 단국대학교 교수(2018.2.28.)

- 의사로서 중강진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중국으로 망명하여 대한 독립단·광복군사령부 등 독립군부대에서 활동한 이자해(李慈海, 1894~1967)가 자신의 삶을 기록한 자서전임. 『자해자전』은 개인의 일상적인 서술도 많지만, 북경에서 내몽고 포두에 이르는 지역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음. 이는 독립운동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함.

○ 000 서강대학교 교수(2018.2.28.)

-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자해(李慈海, 1894-1967)가 중국어로 서술한 자서전으로, 1919년 3·1운동부터 1960년까지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음. 중국 북부지역에서의 독립운동사가 그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였고 자료도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자해자전』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이 지역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의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고 있음.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명칭은 「이자해자전 초고본」으로 함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자해자전(慈海自傳)」 조사보고서

1. 명 칭 : 자해자전(慈海自傳)

2.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3. 소유자 : 독립기념관

4. 조사자 의견

<000 문화재위원회 위원(2019.2.28.)>

1)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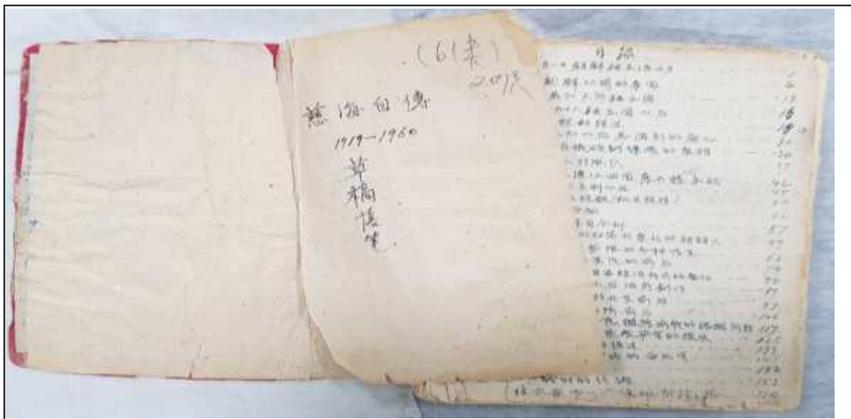
- 보수가 시급함

2) 내용 및 특징

- 『자해자전(慈海自傳)』은 1930~40년대 내몽고에서 의사(醫師)로 일하며 광복군으로 활동한 이자해(李慈海, 1894~1967)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자신의 전기이다. 이자해의 다른 이름은 이동필(李東弼)이며, 본적과 출신지는 평안북도 중강군(中江郡) 장사면(長士面) 호하리(湖下里)이다.
- 그는 1919년 중강진 공립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할 때 3·1운동의 소식을 듣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이후 중국 봉천성(奉天省) 유하현(柳河縣)으로 망명한 후 대한독립단이 대한독립단총단으로 바뀌어 불렀을 때 의무부장을 맡아 신입 청년의 신체검사와 치료를 담당하였다. 그는 대한독립단에서 전개하는 각종 활동에도 관여하였는데, 팔도강 특과대를 조직한 것이 그 하나이다. 또한 대한독립단과 한족회의 통일운동에도 관여하였다. 1923년경에는 북경으로 이주하여 8월경에 해전(海甸)에서 안창호(安昌浩) 등과 농장을 경영하며 아신의원(亞新醫院)을 개원하였다. 이후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족회, 대한 청년단연합회 등이 연합하여 임시정부로 인정받은 광복군사령부에서도 활동하였다. 광복군사령부가 설립되자 이자해는 군의처 처장 겸 사령부 비서를 맡게 되었다.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내몽고로 이동하여 하투(河套), 영하(寧夏) 일대에서 국민당군 군의관으로 활동하였다. 1941년 임시정부 광복군사령부 국무처장으로 임명되었고, 1944년 8월에는 김구의 지령을 받고 광복군 초모(招募:병력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1958년에 나이 65세로 병원에서 퇴직한 뒤 북경으로 이주하였다가 1967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묘는 내몽고자치구 후허하오터시(呼和浩特市) 기독교묘원에 부인과 합장되어 있다. 2007년에 우리 정부로부터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 이자해는 과거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서 공부하여 의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 그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기록으로는, 황학수(黃學秀)가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길에 대동(大同)에서 병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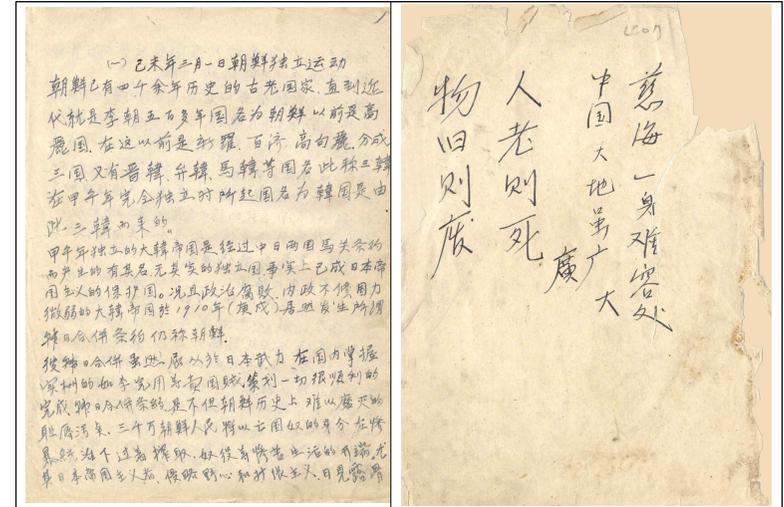
하고 있는 그를 만난 사실이 회고록에 남아 있다. 또 진기섭(陳起燮)이 그의 회고록 『조국이여 산하여』에서 그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내몽고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자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2년 7월에 내몽고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에 거주하는 아들을 찾았고, 유족들이 『자해자전』을 보여줌으로써 국내에서도 그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후 우리 측에서 중국과 내몽고 일대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에 대한 사실이 수록된 『자해자전』을 한국에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하자 유족들은 2005년 8월에 사진 3장과 함께 이 『자해자전』을 한국에 기증해 준 것이다.

- 『자해자전』의 본문은 네 곳을 내철(內綴)하고, 붉은색 비단표지로 책가위로 해놓았다. 여러 면에서 원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지를 열면 “慈海自傳 1919~1960 草稿落筆”이라고 쓰여져 있다. 이어 목록에는 소재목 40개를 차례로 열거하고, 그 오른쪽에는 해당 면수를 적어 놓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해놓았다. 내용은 중국어 가로쓰기에 펜으로 필사하였고, 면수는 좌우 상단에 아라비아 숫자로 써 놓았다. 첫 내용은 3·1운동 직후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이야기로 시작되며, 마지막은 북경으로 이주한 뒤 정식으로 입적한 내용으로 끝이 난다.
- 그런데 내용 중의 일부는 다른 종이에 써서 덧붙인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 필사한 뒤에 보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부분인 “慈海年鑑表(자해연감표)”도 그런 사례에 해당되며, 끝부분은 1964년의 일이 3행으로 쓰여져 있다. 본문이 끝나는 곳에는 15행의 “追憶尾語(추억미어)”를 적고 “1960.10.22.”라고 끝을 맺었다가 다시 7행을 보완한 뒤 “1961.2.4.”이라고 적어 놓았다. 그런데 이 뒤에 편차된 “日本統治朝鮮時期的罪行(일본통치조선시기적죄행)”은 “1962.12.28.”, “中華人民共和國”은 “1960.11.15.”,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1960.11.20”, 마지막으로 인도(印度)가 제공한 군사장비에 대한 내용은 “1962.12.3.”으로 각각 연월일을 적어 놓았다.



<사진1> 『자해자전』 표제면과 목록

- 그렇다면 『자해자전』은 자신이 이전에 기록해 놓은 자료들을 편차에 맞추어 정리하여 1963년 12월 3일에 정서(淨書)하였다가 이듬해인 1964년에 약간의 보완을 거쳐 최종 완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체재나 편성을 볼 때, 향후 발행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앞부분에 “草稿落筆(초고낙필)”이라고 써 놓은 것으로 이해된다.



<사진2> 본문 첫 장과 마지막 글씨

- 3) 문헌자료
 - 『李慈海自傳: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32) 中國篇』, 국가보훈처, 2007.
 -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openViewer.do>)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잊혀진 독립운동가 이자해선생 ‘자서전’ 발굴”, 『경향신문』, (2006.08.14.)
- 4)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자해자전』은 북경 이북지역에서 전개된 한국 독립운동을 이해하거나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내용은 일상적인 면도 많지만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내용이 다르거나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다. 곧 서간도 지역의 대한독립단의 조직과 변화, 안창남(安昌南)의 사망원인과 그의 활동, 내몽고 지역에 적지 않은 한인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들이 일제가 패망한 후 한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는 사실 등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독립운동사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아울러 1930~40년대 내몽고 지역에서의 항일운동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우 소중한 북경 이북의 독립운동사 사료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OOO 경기대학교 교수(2019.2.28.)>

1) 현상

- 제본의 보수가 시급

2) 내용 및 특징

- 이자해(李慈海, 1894.10.22.-1967.12.20.)의 수기의 자사전임.
- 이자해는 독립운동가로서 서간도로 망명하여 대한독립단에서 활동하였으며, 이후 광복군사령부, 한국광복군에 참여하였음.
- 이 책은 권두부분에 ‘자해자전(慈海自傳) 1919-1960’이 기록(<그림 2> 참고)되어 있어 이후 으로 ‘자해자전’으로 불리 왔으며, 1960년까지의 수기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권말부분에 1960년도 이후의 수기가 추가 구성되고 1961년도 수기(<그림 6> 참고)도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확인 필요함.
- ‘己未三月一日朝鮮獨立運動’부터 시작하여 3·1운동 직후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이야기와 문화혁명 직전의 ‘만리역정’이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로 쓰여져 있음. 특히 이자해의 생애, 1930-40년대 광복군 활동 등 내몽고 지역에서의 항일운동이 수기되어 있음.
- 전체 수기가 중국어로 쓰였음.
- 국판 크기의 383쪽으로 알려져 있으나 406쪽 까지 연필로 체크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함.
- 2007년 국가보훈처에서 번역본을 발행하였음.



<그림 1> 표지



<그림 2>이면지 기록



<그림 3> 제본 상태



<그림 4> 목차 2-3면



<그림 5> 1960년 11월 20일 이후 추가 수기 부분: 1955년



<그림 6> 1960년 11월 20일 이후 추가 수기 부분: 1961년 3월 6일



<그림 7> 1960년 11월 20일 이후 추가 수기 부분: 1963년 12월 3일



<그림 8> 내철 상태



<그림 9> 서배부분

3) 문헌자료

- “잊혀진 독립운동가 이자해선생 ‘자서전’ 발굴.” 경향신문. 2006.8.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8141821101>

4)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독립운동가 이자해가 1919년부터 1961년 12월 4일까지의 자서전적 수기임.
- 이는 임시정부 참여 인물의 수기이자 임시정부 관련 자료로 하나로서 문화재 등록의 가치가 있음.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제본의 보수가 시급함

<OOO 단국대학교 교수(2019.2.28.)>

1) 현상

- 필사본 원형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 있고, 상태도 비교적 좋은 편임.

2) 내용 및 특징

- 『자해자전』은 이자해(李慈海, 1894 - 1967)가 자신의 삶을 기록한 자서전임. 이자해는 의사로 중강진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중국으로 망명하여 대한독립단·광복군사령부 등 독립군부대에서 의무부장으로 활동하였고, 중국에서 북벌전이 전개될 때 馮玉祥·閻錫山·傅作義 등의 부대에서 야전병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인물임. 산서성(山西省) 대동(大同)에서 유신병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와 연락하며 항일부대 결성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내몽고 포두(包頭)에서 한국광복군과 연계하여 병력을 모집하는 초모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음.
- 내용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시간적으로는 1919년 3·1 운동부터 1960년까지 서술되어 있고, 공간적으로는 국내의 중간진과 중국의 서간도·북경·대동·태원·내몽고 지역에 걸쳐 있음. 특히 이들 지역은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에서 제대로 조사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척지나 다름없는 곳임. 이자해는 이들 지역에서 중국국민당 군대에 참가하여 야전병원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활동에도 연계를 맺고 있었음. 『자해자전』은 개인의 일상적인 서술도 많지만, 북경에서 내몽고 포두에 이르는 지역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 독립운동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 『자해자전』은 2005년 8월 독립기념관 학술조사단이 내몽고 포두에 거주하고 있는 후손을 만나 수집하였음.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를 영인하고 번역하여 2007년 『李慈海自傳』이란 이름으로 간행함.

3) 문헌자료

- 국가보훈처, 『李慈海自傳』, 2007.

4)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자해자전』은 이자해가 자신의 삶의 행적을 기록한 자서전임. 이자해는 의사로 중강진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중국으로 망명하여 대한독립단·광복군사령부 등 서간도지역의 독립군부대에서 활동하였고, 이후 중국국민당 군대가 북벌전을 전개할 때 馮玉祥·閻錫山·傅作義 부대에서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야전병원장으로 활동하였음. 산서성 大同과 내몽고 包頭에서 병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와 연락하며 항일부대 조직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한국광복군과 연계하여 병력을 모집하는 초모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음. 『자해자전』은 北京·大同·太原·包頭 등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의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는 내용이 적지 않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됨.

<OOO 서강대학교 교수(2019.2.28.)>

1) 현상

- 필사 원본이 비교적 좋은 상태로 남아 있음.

2) 내용 및 특징

-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자해자전(慈海自傳)』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자해(李慈海, 1894-1967)가 중국어로 서술한 자서전으로, 1919년 3·1운동부터 1960년까지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음. 평안북도 중강진 출신인 이자해는 오래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로, 독립군과 중국군에서 군의관으로 활동한 바 있던 의사였음. 즉 그는 중강진에서 3·1운동에 참여하고 중국으로 망명, 대한 독립단과 광복군사령부 등 독립군 부대의 의무부장으로 활동하였음. 이어 풍옥상(馮玉祥)과 엄석산(閻錫山) 등의 군벌 부대에서 야전병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산서성(山西省) 대동(大同)에 유신병원을 세워 운영하였음. 중일전쟁 이후에는 내몽고로 옮겨 중국국민당 군대의 군의관으로 활동하다가, 한국광복군과 연계하여 초모 활동을 전개하였음. 해방 이후에도 계속 내몽고에 거주하며 의사로 일하다가 1958년 퇴직하고 북경으로 이주하였다가 1967년 사망함. 2007년 독립훈장 독립장이 추서됨.
- 『자해자전』은 3·1운동부터 1960년까지 이자해의 생애를 기록한 것으로, 그가 활동한 중국 북부지역에서의 내용이 주를 이룸. 그가 활동한 지역의 독립운동사가 그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였고 자료도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자해자전』은 그 부족한 부분을 크게 메워주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줌. 그 자신도 오래 독립 운동사에서 알려지지 않았고, 몇몇 회고록에서 언급되는 정도였음. 2002년과 2005년 독립기념관 학술조사단의 조사로 이자해와 『자해자전』의 존재가 알려지고, 이 자서전을 후손에게서 기증받았음.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자료를 2007년 영인과 함께 번역본을 『이자해자전』으로 간행하여 독립운동사 자료로 널리 알림.

3) 문헌자료

- 이자해, 『李慈海自傳』, 국가보훈처, 2007.

4)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자해자전』은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인 이자해가 자신의 일생을 기록한 자서전으로, 중국어로 작성되어 있음. 이자해는 3·1운동에 참여한 뒤 중국으로 망명하여 서간도에서 활동한 독립군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중국국민당 군대의 야전병원장으로도 일하였음. 또 내몽고 포두(包頭)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과 연계하여 초모 활동을 전개하였음. 따라서 『자해자전』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북경 북부, 산서성과 내몽고 등지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의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 지역의 독립운동에 관련된 사료나 기록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됨.

6. 「한국독립운동사(상)」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한국독립운동사(상)」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연구’용역(‘18. 6~10월)을 통해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한국독립운동사(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9. 2. 28.)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한국독립운동사(상)	1책	22 X 155 cm	양지	1921년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2) 추진경과

-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연구’용역(‘18.6~10월)
 - A등급 34건(‘한국독립운동사(상)’ 등 포함), B등급 104건, C등급 1,215건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8. 2. 28.)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 등록 명칭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

- 「한국독립운동사상」(OOO OOO)과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OOO OOO)으로 등록 명칭 부여에 이견
 - (OOO, OOO) 표제에만 「한국독립운동사(상)」으로 되어있을 뿐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권수제-목록제-본문에는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으로 기록되어 있어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으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함
 - (OOO) 저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표제부분의 「한국독립운동사(상)」으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함
 - (OOO) 표제에 작성된 명칭에 더 중요성이 있다고 보아 「한국독립운동사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OOO 문화재위원회 위원(2018.2.28.)

-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한 김병조(金秉祚, 1877~1948, 1950)가 저술하고, 1925년에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한 백암(白巖) 박은식(朴殷植, 1859~1925)이 교열한 책임. 3.1운동 연구의 기본 문헌이 되고 있으며, 방대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어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임. 또한 국내에서 공개된 유일한 완전본이라는 희소성을 지니고 있어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하편이 별책으로 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따라서 이 유물의 명칭은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으로 하고, 향후 하편이 공개된다면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하편』이라는 완전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OOO 경기대학교 교수(2018.2.28.)

-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중 1인인 김병조가 편찬한 책으로서, 1894년 갑오전역부터 1919년 이듬해이자 3.1운동 1주년이던 1920년 독립선언 축하기념식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당시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관련 자료로서의 가치가 큼. 또한 책은 상권으로 목기되었으나, 기본적으로 하권의 출판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상권 1권의 완전본으로 가치를 지님.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 OOO 서강대학교 교수(2018.2.28.)

- 민족대표 33인의 1인인 김병조(金秉祚, 1877~1948)가 1920년 저술하여, 1921년 3월 상해에서 간행된 저술임. 3.1운동의 배경, 각 지방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와 국내의 운동의 전개상황, 일제의 탄압 실태를 서술하였으며, 한성·블라디보스토크·상해에서 조직된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과정 등을 정리하였음. 이외에도 대한인 국민회의의 선언서와 결의안 등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어 3.1운동과 초기 임시정부에 관한 자료집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 이 책은 3.1독립운동 연구의 기본적인 문헌이 되며, 완전한 판본의 형태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함.

○ OOO 단국대학교 교수(2018.2.28.)

- 김병조(金秉祚)가 저술한 것으로, 1921년 3월 중국 상해에서 간행되었음. 『한일관계자료집』을 편찬할 때, 이에 편찬위원으로 활동한 김병조가 저술하였다는 점에서, 또 이를 편찬하기 위해 수집하였던 많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저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그리고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와 함께 3·1운동 연구의 기본적인 문헌이라는 점, 완전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명칭은 「한국독립운동사략(상편)」으로 함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한국독립운동사(상)」 조사보고서

1. 명 칭 : 한국독립운동사(상)
2.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3. 소유자 : 독립기념관
4. 조사자 의견

<OOO 문화재위원회 위원(2019.2.28.)>

1) 현상

- 표지 등 여러 곳의 보수가 시급함

2)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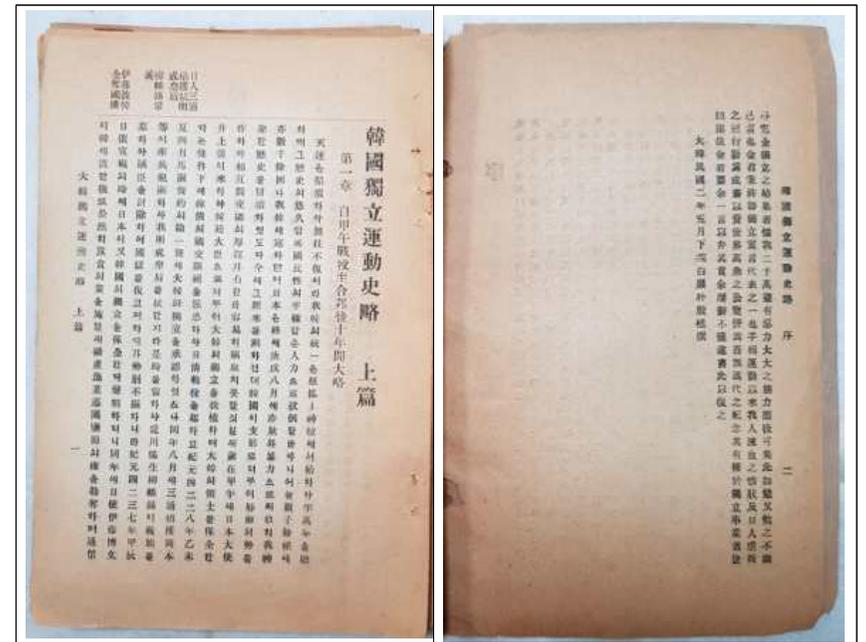
-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은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한 일재(一齋) 김병조(金秉祚, 1877~1948, 1950)가 저술하고, 1925년에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한 백암(白巖) 박은식(朴殷植, 1859~1925)이 교열하였음. 김병조는 1915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뒤 목사가 되었고, 1919년 3·1운동 때는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음. 3월 1일의 태화관 선언식에 불참하고, 중국으로 가서 상해 임시정부의 상임이사, 임시의정원 평안도 대표 등을 역임하였음.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료조사편찬회(史料調查編纂會)에 참여하여 『조일관계사료집』 편찬에 참여하였음. 또한 『한국독립운동사략』 외에 1924년에는 만주 집안현(集安縣)에서 『대동역사』와 『독립혈사』 등을 저술하였음. 광복 이후 반공운동을 하다가 1947년에 평양감옥에서 수감되었고, 이후 시베리아에 끌려가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1990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음.
- 독립기념관 소장의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의 표제(表題)는 『韓國獨立運動史上』이지만 권수제(卷首題)와 목록제 등은 『韓國獨立運動史略 上篇』임. 그래서 현재 이 책의 서명은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으로 알려져 있음. 본문에 앞서 1921년 5월 하순에 쓴 백암 박은식의 서(2면), 도산 안창호의 서(1면), 장재한(張載翰)의 서(1면) 그리고 1921년 6월 상순에 저자가 쓴 소서(小序, 1면)가 있음. 이어 4항목으로 구성된 범례(1면)와 17장(章)으로 편성된 목차(2면)가 소개되어 있음. 17장의 목차는 「自甲午戰役至合邦後十年間大略」, 「威爾遜의 十四條約과 大韓獨立舉事의 來歷」, 「日人은 橫暴自恣하고 韓人은 敵愾決心이라」, 「大韓民國은 如瑞日方昇하고 臨時政府는 若砥柱屹立이라」, 「韓族의 義烈과 日人의 殘虐」, 「內外國人 公憤과 正義」, 「敵刃의 死傷과 牢獄의 泣血」, 「政府의 通諭民會」, 「我義軍의 繼續 猛進으로 死傷이 日增」, 「國士訴冤義人表情」, 「美洲人士의 奮起」, 「日本人性은 羊衣狼心」, 「我政府의 對外方針과 日本의 對我愚策」, 「內外人士之去益奮發」,

「獨立運動之宣傳」, 「義血이 日濺하고 大業이 日進」, 「獨立宣言記念祝賀式」 등임. 1921년 3월 30일에 중국 상해의 선언사(宣言社)에서 발행되었음. 그런데 김병조는 서문을 지은 시기를 “大韓民國獨立宣言之第二年夏六月上浣”(1920.6.상순)이라고 하였음. 그렇다면 이 책의 원고는 발행하기 한 해전 6월에 완성이 되었고, 이듬해 3월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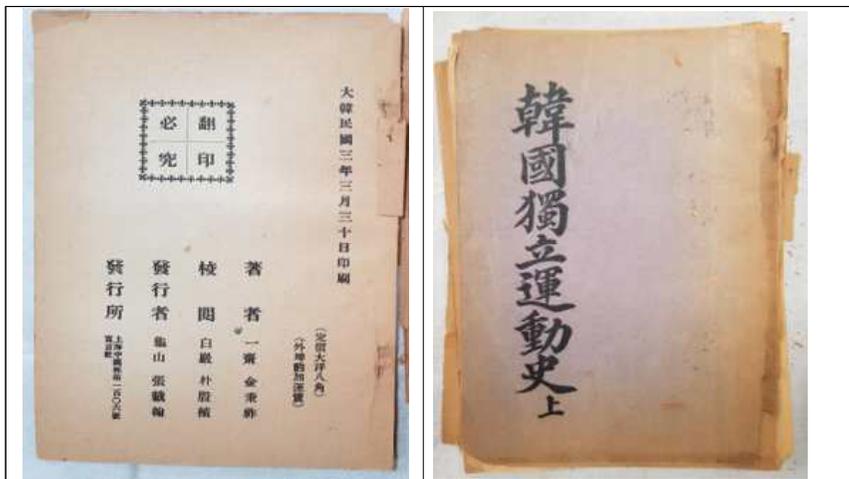
- 또한 저자가 범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편성체제는 “듣는 대로 기록하여 시기 순으로 장을 나누어 편찬”하되 “2장부터는 시기의 선후를 불구하고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하나의 장으로 엮었다.”고 하였음. 또한 당시에 발행하게 된 것은 “불완전 하지만 완전함을 꾀하다보면 이미 얻은 것 까지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서라고 밝히고 있음.
- 본문은 1면에 15행이고, 본문 윗부분에는 본문과 관련된 소재목을 주어 이용에 편리토록 하였음. 전체의 내용은 저자가 기술하되, 원 자료를 그대로 옮겨 놓은 곳이 많아 사료집의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이 책은 학계에서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와 3·1독립운동 연구의 기본 문헌이 되고 있다.”(OOO)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독립기념관 소장의 이 책이 공개되기 전까지 국내에서는 앞뒤가 결락된 불완전한 전본만이 공개되어 있었을 뿐이었음.9) 이 책은 『한국독립운동사략』이라는 동일한 서명으로 아세아문화사에서 1972, 1974년 그리고 1977년에 『한국학교전총서』로 각각 영인 발행되었음. 이 영인 발행본은 뒷부분의 판권기가 결락되었기 때문에 저자가 서문을 쓴 1920년 6월에 이 책이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왔으나 이제 1921년 3월 30일에 상해의 선언사에서 발행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음. 아울러 맨 앞에는 교열을 담당한 박은식의 서문이 있었다는 실도 확인할 수 있었음. 이 완전본이 공개된 이후,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서는 2018년부터 전 내용을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뒤에 추가하여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상해 선언사에서 상하편을 모두 간행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음. 현재까지 하편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하편을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발행하지 못한 채 상편만 발행된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는 것 같음. 그러나 『조선해방과 삼일운동』¹⁰⁾의 부록(참고자료)에는 「獨立宣言書」(3·1독립선언서), 「東京留學生宣言書」, 「長谷川總督(하세가와 총독)에게 보낸 請願書」, 「巴里講和會議에 보낸 請願書」, 「李太王의 暴崩真相」, 「水原虐殺事件真相」, 「光武帝가 美大統領에게 보낸 親書」(1905년), 「孫文의 朝鮮問題論」, 「示威運動參加人員數及被害者數」 등 9종의 문서를 36면에 걸쳐 수록해 놓았음. 이때 이 자료의 출처에 앞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음.

“여기에 掲載하는 資料는 모두 1921년 3월, 上海 宣言社 出版— 一齋 金秉祚氏著 『韓國獨立運動史略』에서 轉載하는 것이오니, 諒解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2> 박은식의 서문과 권수제면



<사진1> 독립기념관 소장의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의 표지와 판권기

- 이렇게 『조선해방과 삼일운동』의 내용을 보면 해방과 삼일운동에 관련한 원천적인 사료가 많이 수록된 자료집인 『한국독립운동사략』은 이 분야를 살피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런데 『조선해방과 삼일운동』에서 소개된

9) 金秉祚, 『韓國獨立運動史略』上(서울: 아세아문화사, 1972, 1974, 1977).
 金秉祚, 『韓國獨立運動史略』上([서울]: 一齋 金秉祚先生 紀念事業會, [1999])은 상해의 선언사(선언사의 잘못)에서 1920년에 간행된 사실이 표시되어 있다. 대본은 아세아문화사 영인본이며, 말미에 일제 김병조선생 공훈사 등이 실려 있다.)

10) 조선과학자동맹, 『朝鮮解放과 三一運動』:三一運動과 朝鮮解放 記念論集(서울: 청년사, 1946), 부록(참고자료).

9종의 문서들과 『한국독립운동사략. 상권』의 내용을 대비하면, 하편이 별책으로 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그러므로 이 유물의 명칭은 『한국독립운동사략. 상권』으로 하고, 향후 하편이 공개된다면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하권』이라는 완전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3) 문헌자료

- 김병조, 『한국독립운동사략』, 아세아문화사, 1972, 1974, 1977.
- 김형석, 『일제 김병조의 민족운동』 : 부록(김병조, 『한국독립운동사략』. 서울 : 남강문화재단출판부, 1993.
- 『조선해방과 삼일운동』 : 삼일운동과 조선해방 기념논집(서울: 청년사, 1946)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김병조가 저술하고 박은식이 교열한 『한국독립운동사략. 상권』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과정을 살필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집이자 선구적인 연구물임. 이전까지는 결락 장이 있는 불완전본을 대본으로 발행된 영인본만 공개되어 있어서 전체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음. 이제 독립기념관 소장의 완전본을 통해 박은식의 서문(2면)과 뒷부분의 10면(227-236면)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고, 발행사실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음.
- 이 책은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와 함께 3·1독립운동 연구의 기본 문헌이 됨. 또한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한 인물이 저술하고, 방대한 자료를 기초로 함으로써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자 사료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더욱이 지금까지 국내에서 공개된 유일한 완전본이라는 희귀성까지 갖추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음.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되었음. 그는 서울에서의 독립선언식에 참석하는 대신 선천에서 독립선언서 배포 등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경찰을 피하여 상해로 망명하였음.

- 김병조는 1921년에 『韓國獨立運動史』 상권, 1924년에 만주 집안현(集安縣)에서의 『대동역사』와 『독립혈사』, 그리고 『한족신문』을 발행하여 독립사상의 양양에 힘썼음.
- 김병조는 1990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음.
- 표지의 표제는 『韓國獨立運動史上』으로 목기 되어 있음. 이처럼 ‘상권’으로 목기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하권의 출판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상권 1권으로 현전하고 있는 책임. 즉, 상권 1권의 완전본으로 가치가 있음.
- 이 책은 1894년 갑오전역부터 1919년 이듬해이자 3.1운동 1주년이던 1920년 독립선언 축하기념식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당시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관련 자료로서 참고가치가 큼.
- 김병조의 ‘小序’(<그림 3> 참고)에 의하면 서를 쓴 해는 ‘大韓民國獨立宣言之第二年’, 즉 1920년이며, 판권기(<그림 4> 참고)에 의하면 1921년에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내용의 기술은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음.
- 내용의 구성은 ‘自甲午戰役至合邦後十年間大略’에서부터 ‘獨立宣言紀念賀式’의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 권두부분 1면



<그림 2> 권두부분 2-3면

<OOO 경기대학교 교수(2019.2.28.)>

1) 현상

- 양지로 되어 있으며 산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등 종이의 상태에 대한 보존 정비가 시급함.
- 내철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 포배한 듯 한 가제본의 상태임.
- 권두부분(<그림 1> 등 참고)과 이후 권말부분(<그림 5> 참고)의 경우 보존 정비가 시급함.

2) 내용 및 특징

- 저자 김병조(金秉祚, 1877.1.10.-1950.9)는 호는 일재(一齋)임. 평안북도 정주 출신으로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의 1인임. 일제강점기 임시의정원 평안도 대표, 상해거류민단의사회 의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임. 상해 임시 정부에 참여하였으며, 임시의정원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조일관계사료집 편찬에 참여하였음.
- 김병조는 1915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으며,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그림 3> 김병조의 소서



<그림 4> 판권기



<그림 5> 권말부분

3) 문헌자료

- 한국독립운동사 : 一齋 金秉祚先生 紀念事業會, 1999.

4)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이 책은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중의 1인이었던 독립운동가 김병조가 엮은 책임.
- 1894년 갑오전역부터 3.1운동 1주년이던 1920년 독립선언 축하기념식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관련 자료로서 참고가치가 크고 상권으로 구성된 완전본으로 가치가 있음.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양지로 되어 있으며 산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등 종이의 상태에 대한 보존 정비가 시급함.
- 내철 위에 포배되어 있는 제본의 상태 또한 보존 정비가 시급함.

<OOO 서강대학교 교수(2019.2.28.)>

1) 현상

- 독립기념관 소장본은 책 전체가 남아 있으나, 도서 상태는 좋지 않음.

2) 내용 및 특징

- 『한국독립운동사 상』은 민족대표 33인의 1인인 김병조(金秉祚, 1877~1948) 목사가 1920년 저술하여, 1921년 3월 상해에서 간행된 저술임. 김병조는 3월 1일 서울에서의 독립선언식에 참석하지 않고 선천에서 독립선언서 배포 등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제 경찰을 피하여 상해로 망명하였음. 그는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제위원회 이사, 임시의정원 의원 등과 함께 임시사료편찬위원으로 국제연맹에 제출할 『한일관계사료집』 편찬에 참여하였음. 사료집 편찬으로 편찬위원회가 1919년 9월 해산되자 김병조는 이원익(李元益)과 국무원 사료조사 사무에 촉탁되었음.

- 『한일관계사료집』(1919)이 발간된 후, 그 자료를 이용하여 박은식(朴殷植)이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1920)를 한문본으로 간행하였고, 이어 김병조가 『한국독립운동사 상』을 국한문본으로 간행하였음. 이 책은 표지에 『한국독립운동사 상』으로 되어 있으나, 내지에는 『한국독립운동사략』으로 되어 있음. 박은식이 한문으로, 안창호(安昌浩)와 장재한(張載翰)이 국한문으로 서문을 썼으며, 저자 김병조의 소서(小序)가 있음. 전체 17장으로 1894년 갑오전역(甲午戰役)으로부터 1920년 독립선언기념축하식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3·1운동과 임시정부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즉 3·1운동 거사 배경, 각 지방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와 국내외 운동의 전개 상황, 일제의 탄압 실태 등을 서술하였음. 또한 한성(漢城)·블라디보스토크·상해에서 조직된 임시정부와 그 통합 과정, 활동 등을 정리하였으며, 대한국민회의의 선언서와 결의안, 한성정부의 선포문, 파리장서 등 자료를 수록하였음. 따라서 이 책은 한국독립운동사이며, 3·1운동과 초기 임시정부에 관한 자료집의 성격도 지님. 간기(刊記)에 따르면, 교열은 박은식, 발행자는 장재한, 발행소는 상해 중국우상(中國郵箱) 106호 선언사(宣言社)였음.
- 1977년 아세아문화사에서 백순재(白淳在) 소장본을 영인하여 소개하였으나, 앞의 박은식 서문과 마지막 부분 10쪽(16장 일부와 17장) 및 간기가 빠져 있었음. 독립기념관 소장본은 빠진 부분이 없는 완전한 것임. 특히 이 책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의 간행에 직접 참여한 김병조가 저술하였고, 또 수집한 많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한국독립운동지혈사』와 함께 3·1 독립운동 연구의 기본적인 문헌임.

3) 문헌자료

- 최우석, 「3·1운동, 그 기억의 탄생 - 『한일관계사료집』, 『한국독립운동지혈사』,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을 중심으로」
- 『향토서울』 99, 2018, pp.87-126 ;
- 『3·1운동 100년』 1 메타역사(휴머니스트, 2019), pp.21-54.

4)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김병조 저술의 『한국독립운동사 상』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제출하기 위하여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역사서임. 김병조는 임시사료편찬위원이었음. 『한일관계사료집』 편찬 수집자료는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와 『한국독립운동사 상』의 편찬에 이용되었음. 이 역사서들은 3·1 독립운동 연구의 기본적인 문헌일 뿐 아니라, 독립운동가에 의하여 저술된 독립운동사이기도 함. 그간 『한국독립운동사 상』은 일부 결락된 판본이 영인되어 이용되고 있었는데, 독립기념관 소장본은 완전한 판본으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할 가치가 충분함.

<OOO 단국대학교 교수(2019.2.28.)>

1) 현상

- 책 전체는 온전하게 남아 있지만, 상태는 좋지 않음.

2) 내용 및 특징

- <한국독립운동사 상>은 김병조(金秉祚)가 저술한 것으로, 1921년 3월 중국 상해에서 간행되었음. 김병조는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1인으로, 태화관의 독립선언식에 참석하지 않고 상해로 망명하였음. 상해에 도착한 후 임시의정원의원으로 활동하며 1919년 6월 17일 임시사료편찬위원으로 선임되어 국제연맹에 제출할 『한일관계사료집』 편찬에 참여하였음. 1919년 9월 임시사료편찬위원회가 해산되자 이원익(李元益)과 국무원 사료조사 사무에 촉탁되었음.
- 『한일관계사료집』이 발간된 후, 이를 편찬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독립운동사 상』을 저술 간행함. 책 표지에는 『한국독립운동사 상』으로 되어 있고, 안의 속표지에는 『한국독립운동사략』으로 되어 있음.
- 책의 구성은 박은식(朴殷植)·안창호(安昌浩)·장재한(張載翰)이 쓴 서문과 김병조의 소서(小序)를 비롯하여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내용은 1894년 갑오전쟁(甲午戰役)으로부터 1920년 독립선언기념축하식까지 다루고 있음.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내용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3·1독립선언서를 비롯하여 각 지방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와 국내외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운동의 상황, 만세 시위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 실태 등을 저술하였음. 또 3·1독립선언 발표 후 서울에서 한성정부,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이들 세 임시정부가 통합을 이루는 과정 및 활동 등을 저술 하였음. 그리고 대한국민의회의 선언서와 결의안, 한성정부의 선포문, 파리장서 등 자료를 수록하였음. 이 책은 한국독립운동사인 동시에 3·1운동과 임시정부에 관한 자료집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이 책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임시사료편찬위원회를 조직하여 『한일관계사료집』을 편찬할 때, 이에 편찬위원으로 활동한 김병조가 저술하였다는 점에서, 또 이를 편찬하기 위해 수집하였던 많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저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그리고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와 함께 3·1운동 연구의 기본적인 문헌임.

3)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한국독립운동사 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제출하기 위해 임시사료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일관계사료집』을 편찬하였을 때, 편찬위원으로 활동하던 김병조가 『한일관계사료집』을 편찬하기 위해 수집한 많은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저술한 역사서임. 이 책은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와 더불어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던 인물이 직접 저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3·1운동 연구에 귀중한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음. 독립기념관 소장본은 완전한 판본으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됨.

7.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교사」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교사」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이리농림학교 교사」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9.4.9.)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 2017년 「근현대 교육시설 일제조사」 결과 : B등급
- * 「근현대 교육시설」가치평가 자문회의에서 등록 추진 대상 선정('18.5.9.)
- * 관할 지자체에 등록 추진 협조 요청('18.6.25.)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구 이리농림학교 교사

- 소 재 지 :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79 (익산시 마동 194-5번지)
- 용 도 : 교육시설
- 소 유 자 : 전북대학교
- 수 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1,960㎡, 연면적 3,914㎡(건축물대장)
- 건립시기 : 1963년 준공
- 구 조 :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2)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등록 명칭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OOO 문화재위원(2019.4.9.)**

- 지방의 주요 교육시설인 1950년대 후반에 건립된 교사로서 붉은벽돌 치장쌓기의 외벽과 돌붙임 장식, 경사지붕 등 외관의 원형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의 새로운 마감도 장차 원형으로 복원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OOO 문화재위원(2019.4.9.)**

- 학교의 오랜 역사와 높은 위상을 상징하는 본관 건물로서 대칭성, 정면성, 상징성 등의 고전적 건축기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건물 높이와 지붕 형태, 화강석 장식 등에 의해 고전주의 건축의 단순성, 일률성을 탈피
- 이리농림학교 교사는 역사성, 상징성, 지역성과 건축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외관을 중심으로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됨

○ **OOO 군산대학교 교수(2019.4.9.)**

- 1960년대 초에 지어진 교사로서 학교의 역사와 건축물의 건축적 특징, 보존 상태 등에서 판단할 때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인 외관 구성과 마감 재료의 보존이 필요하며 창호 등의 복원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명칭은 「익산 구 이리 농림고등학교 본관」으로 함
 - 배면 증축부 제외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이리 농림고등학교 교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교양관 (구) 이리농림학교 교사

2. 용 도 : (현) 교육시설 (원) 교육시설

3.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79 (익산시 마동 194-5)

4. 소유자 : 전북대학교(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조적조 + 철근콘크리트조
- 준공일 : 1963년(1957년 착공)
- 수량 및 면적 : 건물 1동, 건축면적 1,960㎡, 연면적 3,914㎡
- 층수(높이) : 지상 4층

6. 조사자 의견

< OOO 문화재위원(2019.4.9.) >

1) 개요

- 현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의 전신인 이리농림학교는 일제강점기였던 1922년에 개교하였다. 그후 학제 개편에 따라 이리 농림중학교(1947년/6년제), 이리 농림고등학교(1951년/3년제), 이리 농공전문대학 승격(1991년), 국립 익산대학교로 변경(1999년)되었다가 2008년 전북대학교와 통합되었음. 본 신청 건물을 1957년 착공하여 1963년에 준공되었으며 현재는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 교양관으로 사용되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붉은벽돌 치장쌓기로 내외부 내력벽을 조성하고 각층의 바닥과 계단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설치한 전형적인 1950년대 후반의 학교교사 건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물의 중앙현관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며 긴 건물임. 중앙현관의 포치와 주변부는 돌붙임으로 장중한 느낌의 장식이 가미되어 있으며 이 돌장식은 건물 네 면의 1층 창호 아래 벽면으로 이어지고 있음. 건물전면의 양쪽 모서리에는 코너 스톤이 설치되어 있음. 중앙현관과 이어지는 계단실은 옥탑실까지 4층으로 되어 있으며 현관 양쪽 각 2스팬은 3층,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각 2스팬은 2층이다. 한 스펀 안에는 교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교실에는 3개의 창이 설치되어 있음.
- 각층 배면쪽에 복도가 배치된 편복도형 교사이며 좌우 끝에는 뒷마당을 향해 나 있는 현관이 있음. 이 현관의 주변에도 거친 돌쌓기로 장식되어 있음. 지붕은 맞배지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양쪽 끝은 박공지붕으로 마무리되어 있음. 그리고 이 부분은 건물이 앞뒤로 돌출되어 있어 건물 전체는 H자 모양을 하고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붉은벽돌 치장쌓기의 외벽과 돌붙임 장식, 경사지붕 등 중요한 건축요소들은 잘 남아 있음. 내부의 각 실들은 교육시설 현대화 작업에 의해 마감재로와 설비가 변경되었으며 지붕 또한 목조 트러스였으나 심각한 누수문제로 인해 경량철골 조로 변경되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 소유주인 전북대학교에서 옛 이리농고의 자취를 보존하고 교육시설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문화재로서 간직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 캠퍼스 내에는 등록문화재 제178호인 “구 이리 농고 축산과 교사”가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원형을 유지하며 교사로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국립대학의 교육시설로 활용되며 급격한 용도변경과 증개축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 상태 유지의 관리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지방의 주요 교육시설로서 1950년대 후반에 건립된 붉은벽돌 교사로서 외관의 원형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의 새로운 마감도 장차 원형으로 복원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등록가치 있음. 보존 부분은 건물전체와 실내 마감에 가려져 있는 원형의 재료와 구조.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구 이리 농업고등학교 교사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 교양관)

< 000 문화재위원(2019.4.9.) >

1) 개요

- 이리농림학교는 일제강점기 농업진흥과 농림직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조선총독부 칙령에 의해 1922년 설립되었으며, 당시 전국 유일의 갑종(5년제) 실업학교로 개교
- 이리농림학교는 일제강점기 당시 대표적 농업, 임업 전문교육기관이자 명문학교로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광복 전까지 한국인 1,050명과 일본인 999명의 졸업생을 배출
- 이리농림학교는 광복 이후 1947년 이리농림중학교(6년제), 1951년 이리농림고등학교(3년제), 1992년 국립 이리농림전문대학, 1998년 익산대학으로 각각 개편되었으며, 2008년

전북대학교로 통합된 후 환경생명자원대학, 수의과대학이 이전하고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로 지칭

- 이리농림학교는 본래 본관, 기숙사, 각종 실습동의 건물과 논, 밭, 임야 등의 야외실습장을 갖춘 대규모 시설이었으나 대부분이 멸실되었으며, 과거의 흔적으로는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 교사(등록문화재 제178호, 1932년 건축), 식품가공장과, 각종 기념비 등이 현존
- 금회 등록 신청된 이리농림학교 교사는 과거 국내의 대표적 농업전문 교육기관이자 지역의 대표적 학교이었던 이리농림학교, 이리농림중학교, 이리농림고등학교의 연속적 역사와 흔적을 보여주는 상징적 건물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금회 등록 신청된 이리농림학교 교사는 현재 전북대학교 특성화 캠퍼스 교양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이리농림학교 당시가 아니라 광복 후 이리농림고등학교 당시에 본관으로 건축
- 광복 후 이리농림중학교(6년제)에서 1951년 이리농림고등학교(3년제)로 개편된 후 본관으로 건축되었으며, 1957년 착공하였으나 재정난으로 완공이 늦어지면서 미완성 상태로 활용하며 공사를 지속하여 1963년 11월 15일 완공
- 지상 4층 규모 건물로 기본적 구조형식은 기둥이 없이 내력벽 형식의 조적조 벽체를 구축하고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바닥을 형성하였으며 상부 지붕은 목조트러스 구조체를 가설
- 평면은 현관, 계단으로 구성된 중앙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대칭형을 구성하였으며, 후면에 긴 복도를 두고 그에 면해 전면에 여러 개의 강의실을 연속적으로 배치하며 편복도 형식을 구성
- 적벽돌로 마감된 다른 부분과 달리 화강석으로 마감되고 돌출된 현관부(Porch)와 수직적 연속장이 강조된 4층 규모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3층 규모와 2층 규모가 양측에 연속 배치되며 완벽한 대칭형을 구성
- 대칭형 외관은 적벽돌 조적벽을 기본으로 하고 현관부를 포함한 4층의 중앙부, 1층 하단부, 창문 주변부, 건물 양단 모서리부, 후면 부출입구 주변부 등을 화강석으로 장식하여 형태적으로 대비, 강조
- 이리농림고등학교의 오랜 역사와 높은 위상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본관 건물로서 다른 건물에 비해 대규모로 건축하였고 조형적으로는 대칭성, 정면성, 상징성 등을 강조
- 일제강점기부터 학교 본관에서 지속되었던 대칭적, 정형적 구성의 고전적 건축양식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부분별로 다른 건물 높이와 다양한 지붕 형태, 적벽돌 마감과 대비되는 화강석 장식 등에 의해 고전적 건축의 단순성, 일률성을 탈피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관은 적벽돌을 기본적 마감재로 하고 화강석을 부분적으로 장식, 마감한 외관은 전체적으로 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중앙부 후면 계단 우측부에 2층 규모의 화장실이 후에 증축된 상태
- 상부 경사지붕은 본래 목조트러스위 기와 마감이었으나 이후 골슬레이트 마감으로 변형되었으며, 2008년 목조트러스가 경량철골 지붕틀로 교체되고 마감이 징크(Zinc)로 변형된 상태
- 내부는 강의실 등으로의 활용을 위해 바닥, 벽체, 천장 등이 현대적 마감재로

변형되었지만, 평면 및 공간의 기본적 구성은 건축원형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대학과 동문화 축에서 건물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대학 캠퍼스 내에서 주변에 보존을 방해할만한 환경이 없이 여유공지를 확보한 채 위치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대학측에서는 현재 교양관으로 활용하며 유지, 관리하였고 향후 문화재 등록 후에도 그동안 사용되었던 것처럼 강의실 등의 기능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원형 위주로 보존하고자 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건물의 본래 용도와 역사적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는 계획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교육시설로서 등록문화재는 본관, 강당 등 다수의 사례가 있으며, 대학 본관의 등록사례는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본관과 교사(제21호), 광주 조선대학교 본관(제94호), 광주교육대학교 본관(제97호), 부산대학교 구 본관(제641호), 서울 동국대학교 구 본관(제735호),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제741호)이 대표적 사례

7) 등록가치의견

- 급회 등록 신청된 이리농림학교 교사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국내 대표적 농업전문 교육기관이자 이리 지역의 대표적 학교이었던 이리농림학교, 이리농림중학교, 이리농림고등학교의 연속적 역사와 흔적을 보여주는 건물로 이리농림고등학교 당시인 1957년 착공되어 1963년 완공
- 학교의 오랜 역사와 높은 위상을 상징하는 본관 건물로서 대칭성, 정면성, 상징성 등의 고전적 건축기법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다양한 건물 높이와 지붕 형태, 화강석 장식 등에 의해 고전주의 건축의 단순성, 일률성을 탈피
- 이리농림학교 교사는 이상과 같이 역사성, 상징성, 지역성과 건축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현재 외관을 중심으로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본래 이리농림학교로 최초 개교하여 전체적으로는 이리농림학교의 역사와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지만, 등록을 신청한 건물은 이리농림고등학교 당시에 본관으로 건축되었으므로, 등록명칭은 '구 이리농림학교 본관' 보다는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본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등록신청 건물의 좌측 후면부에 위치한 건물은 과거 이리농림학교 당시 건축되어 식품가공창고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대학측은 철거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철거전에 등록가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OOO 군산대학교 교수(2019.4.9.) >

1) 개요

- 이리농림고등학교는 1922년 농업진흥과 농림직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립 실업계 고등학교로서 설립 당시 전국 유일의 갑종 실업학교로 출발함.
- 근대 농업 지도자 양성을 위한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일제강점기 많은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난 오랜 역사를 간직한 학교임.
- 현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교양관은 1957년 8월 착공하였으나 재정난으로 준공이 늦어져 1963년 11월 15일 이리농림고등학교 제2본관으로 준공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현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교양관은 붉은 벽돌 조적조 건물로서 기단 하부는 거칠게 다듬은 화강석으로 마감하고 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함. 모서리 부분도 화강석으로 마감하여 재료의 대비가 두드러짐.
- 건축물 중앙 부분을 4층 규모로 상대적으로 높게 만들고 화강석을 붙여 장식하였고, 주출입구 앞에 화강석으로 만든 포치를 두고 처마 부분을 고전주의 건축의 덴탈 형식으로 장식하여 전체적으로 중심성을 강조함.
- 정면 중앙 최상부에 '農'자가 붙어있었으나 현재는 떼어져 별도 보관되고 있음.
- 전체 입면을 좌우 대칭으로 구성하고 좌우측 끝부분은 박공형태의 입면으로 처리하였음. 좌우측의 입면에는 원형창을 설치하였음.
- 지붕은 박공지붕으로 본래 목조 트러스 구조 위에 골슬레이트를 올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경량 철골 구조 위에 징크 패널로 마감되었음.
- 내부 공간은 전면에 면한 강의실 등의 공간과 후면의 편복도로 구획되어 있음. 중앙부는 4층까지 내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2004년 내부 마감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복도와 실내 벽면을 판재를 돌렸으며 바닥과 천장, 창호 등을 변경하였음.
- 2008년 내부 마감재가 교체되었고 지붕이 교체되었음. 본래의 목조 트러스 구조가 이 시기에 현재와 같은 구조 및 재료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옥상 방수공사가 시행됨. 건축물의 내부 마감과 지붕 구조 및 재료가 변형되었으나 건축물의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까지 신축 당시와 동일하게 대학의 교육시설로 잘 활용되고 있으며, 대학 측에서 건축물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동안 양호하게 관리해 왔던 점에서 미루어 볼때 보존관리 여건 및 환경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와 같이 대학의 교육시설로서 활용하면서 보존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대학 측이 건축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수립된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의 실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제와의 가치 비교·검토
- 전체 등록문화제 중 학교 관련 건축물이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나 다수의 건축물이 일제강점기 건축물로 1950년대 이후 건축물은 소수임.
 - 현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교양관은 등록문화제인 학교 관련 건축물 전체 및 대학교 건축물과 비교할 때 등록문화제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1960년대 초에 지어진 교사로서 학교의 역사와 건축물의 건축적 특징, 보존 상태 등에서 판단할 때 등록문화제로서 등록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인 외관 구성과 마감 재료의 보존이 필요하며 창호 등의 복원이 필요함.
-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익산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교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보 고 사 항

8. 현상변경 신청사항 처리 보고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현상변경(연결다리 설치)

가. 보고사항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서울 경교장」 (사적465)	서울 종로구	삼성의료재단	(1) 허가받는자 : 삼성의료재단 (2) 허가내용 ○ 설치내용: 병원 신관 주차장과 연구동 사이 연결통로(다리) 설치(증축) ○ 설치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강북삼성병원 내)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1구역 (개별심의), 이격거리 30m ○ 세부내용 - 규모(m): 폭1.45×길이6.47×높이3.05 - 연면적: 9.38㎡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제난간 위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재 (3) 허가기간 ○ 2019. 4. 22. ~ 2019. 7. 31. (4) 전문가 조사 의견 <문화재위원 000(‘19.4.15.)> ○ 설치하려는 연결다리는 사적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고, 설치 위치가 경교장보다 낮아 기존 문화재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설치에 따른 추가적 경관훼손이 없다고 판단 됨	허가	‘19.4.22.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

9. 현상변경 신청사항 처리 보고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현상변경(냉·난방기 교체 공사)

가. 보고사항

사적 당해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사적442)	대구 광역시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장	(1) 허가받는자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장 (2) 허가내용 ○ 설치내용: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 설치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80 (당해문화재) ○ 세부내용 - 노후 한 냉·난방기 GHP 시스템을 철거하고 EHP시스템으로 교체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용어설명 *GHP(Gas engine Heat Pump): 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냉·난방 시스템 *EHP(Electric Heat Pump):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냉·난방 시스템 </div> - 실내기: 기존 101대 중 73대 신제품으로 교체(전체수량 변동 없음) - 실외기 : 기존 GHP용 7대와 EHP용 3대 중 GHP용 실외기 모두 철거, 후 EHP 실외기 9대 설치 - 배관: 기존 도시가스 배관 및 냉매배관 철거, 신설 실내기 냉매배관 1,403m 설치 - 설치방법 : 기존 냉·난방기 기계	조건부 허가	‘19.4.22.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p>및 배관 철거 후 발생하는 빈공간(배선 트레이, 건물 인입부, 내부 입상배관 마감)에 신규 기계 및 배관을 설치하여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 하고, 내부 입상배관 설치 부분은 현 상태와 동일한 규격으로 마감 함</p> <p>(3) 허가조건 ○현재 옥상에 직접 설치되어 있는 기존 EHP실외기(3대)와 새로 설치하려는 EHP실외기(9대)는 옥상의 철제구조물 위에 설치토록 하여 문화재 건물 옥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p> <p>(4) 허가기간 ○2019. 4. 22. ~ 2019. 7. 31.</p> <p>(5) 전문가 조사의견 <문화재전문위원 김기수('19.4.16.)> ○냉·난방 실외기(옥상)의 경우 기존 기기보다 하중이 경감되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보다 경미할 것으로 예측됨 ○다만, 실외기 설치 시 실외기가 직접 옥상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기타 배관 및 입상관의 경우 기존 통로를 이용하여 교체하므로 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p>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

안전번호 근대 2019-04-10

10. 현상변경 신청사항 처리 보고

사적 제545호 「구 군산세관 본관」 현상변경(보도 그린터널 설치)

가. 보고사항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구 군산세관 본관」 (사적545)	전라 북도 군산시	군산 시장	<p>(1) 허가받는자: 군산시장</p> <p>(2) 허가내용 ○설치내용: 박물관 로컬푸드 직매장 주변으로 관광객 이용도가 높은 보도에 *그린터널을 설치하여 그늘 및 볼거리 제공</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그린터널: 터널 형태의 구조물에 덩굴식물 등을 식재한 것</p> <p>○설치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24(박물관 로컬푸드 직매장 앞)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1구역 (개별심의), 이격거리 220m</p> <p>○세부내용 -규모: 연장 43m, 폭 3m, 높이 3m -연면적: 120㎡</p> <p>(3) 허가기간 ○2019. 4. 22. ~ 5.31.</p> <p>(4) 전문가 조사의견 <문화재전문위원 000('19.4.18.)> ○구 군산세관 본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개별심의)에 그린 터널 1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임</p>	허가	'19.4.22.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 해당 문화재에서 약 220m 이격되어 있고, 그 사이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기존 건축물 다수가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조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됨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